

청소년의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 방안

임정희 강지원 강경중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용역비로 수행되었으나,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연구진의 개인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머리말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탐색과 계발이 필요한 시기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적성과 소질을 반영한 진로개발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청소년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단계 교육 시스템은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로 획일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의 폭이 좁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전문계고를 중심으로 특성화고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계고의 경우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계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기회를 잃고 있으며, 학교 교육을 통해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기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MB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인재대국’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방향으로 자율화와 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의 특성화는 신선한 도전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행 학교 체제를 단시간내에 모두 변화시키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이 연구를 시발점으로 향후 학교 특성화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개선에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청소년의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 방안 연구를 위탁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 심리, 진로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세미나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고등학교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년 기본연구 2008-50번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단법인 밝은 청소년 지원센터 임정희 이사장이 책임자로서, 사단법인 어린이 청소년 포럼의 강지원 이사장과 본원의 강경중 박사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수고한 연구팀과 이 연구

를 위한 진행과정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은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
사를 드린다.

2008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권 대 봉

목 차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 · 4

1. 청소년 관련 진로환경 변화 분석 · 4
2. 청소년 진로개발 현황 분석 · 4
3. 특성화 학교 교육 현황 분석 · 4
4.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 방안 · 5

제3절 연구의 방법 · 5

1. 문헌연구 · 5
2. 통계자료 분석 · 6
3. 전문가 협의회 · 6
4. 세미나 개최 · 6

제2장 청소년 관련 진로환경 변화 분석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 · 9

1.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 9
2. 고령화 현황 · 12

ii 목차

제2절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 15

1. 산업구조의 변화 · 15
2.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 22

제3절 청소년 직업 활동 및 의식 변화 · 25

1. 청소년 직업 활동의 변화 · 25
2. 청소년의 직업의식 변화 · 28

제4절 청소년의 노동시장 이행의 변화 · 29

1. 대학진학률의 증대 · 29
2. 고용시장의 양극화 · 30
3.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 · 31
4. 청년실업의 증가 · 31

제3장 청소년 진로개발 현황 분석

제1절 청소년 진로개발의 개념과 특징 · 37

1. 진로 및 진로개발의 개념 및 특징 · 37
2. 청소년기의 진로발달 특징 · 39

제2절 국내의 청소년 진로개발 현황 분석 · 48

1.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관련 법령 및 행정체계 · 48
2. 학교교육에서의 진로개발 현황 · 53
3. 기타 진로개발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 67

제3절 국외의 청소년 진로개발 현황 분석 · 71

1. 미국의 진로개발 · 71
2. 영국의 진로개발 · 74
3. 일본의 진로개발 · 78
4. 프랑스의 진로개발 · 80

제4절 뇌의 발달과 청소년 적기적성 교육 · 85

제4장 특성화 학교 교육 현황 분석

제1절 특성화 학교 현황 · 87

1. 특수목적학교 · 87
2. 특성화고 · 89
3. 자율학교 · 91

제2절 특성화 학교 운영 체제 · 91

제3절 정보의 특성화 관련 정책 · 94

1. 마이스티고 육성 정책 · 94
2. 정부부처, 지자체 및 산업체 지원 특성화고 육성 사업 · 96

제4절 특성화 학교 운영 성과 및 문제점 · 98

1. 특성화 학교 운영 성과 · 98
2. 특성화 학교 운영 문제점 · 102

제5절 국외 특성화 학교 사례 · 108

1. 미국의 Career Magnet School 사례 · 108
2. 영국의 Specialist School 사례 · 117

제5장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 방안

제1절 학교 특성화의 기본 방향 및 체제 · 119

1. 학교 특성화 기본 방향 · 119
2. 학교 특성화 운영 체제 · 121

제2절 학교 특성화 장·단기 방안·123

1. 단기 방안·123
2. 장기 방안·124

제3절 학교 특성화 세부 추진 방안·126

1. 특성화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체제 개선·126
2.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개발·128
3. 특성화 교육에 적합한 교원 및 학생 확보·131
4. 특성화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133

제6장 향후 학교 특성화 추진을 위한 제언

SUMMARY·139

참고문헌·145

<표목차>

- <표 II-1>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변화 예상 · 12
- <표 II-2> 국가별 고령화 사회 속도 변화 추이 · 14
- <표 II-3> 노동력 상태 이동 추이 · 15
- <표 II-4> 학력별 · 연도별 월평균 임금수준 비교 · 16
- <표 II-5> 주요국의 상대 빈곤률 비교 · 16
- <표 II-6> 산업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 17
- <표 II-7> 직업대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 23
- <표 II-8> 직업대분류별 취업자 비중 전망 · 24
- <표 II-9> 최근 3년간 청소년의 직업별 취업 추이 · 27
- <표 II-10> 직업별 · 성별 청소년 취업 현황(2007년 기준) · 28
- <표 II-11> 청소년의 직업선택요인 변화 추이 · 29
- <표 II-12> 성별 청년 고용률(%) 추이 · 33
- <표 II-13>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 증감 비교 · 33
- <표 II-14> 청년 취업 애로층 추이 · 34
- <표 II-15> 대졸비경활인구중 취업준비자 비중 추이 · 34
- <표 II-16> 청년 취업 애로층의 학력별 구분(2008년 2/4분기) · 35

- <표 III-1> 청소년기의 진로발달 특징 · 40
- <표 III-2>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영역 및 주요 내용 · 42
- <표 III-3> 중학생의 진로발달영역 및 주요 내용 · 43
- <표 III-4>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영역 및 주요 내용 · 45
- <표 III-5> 학교급별 진로발달 종합 · 46
- <표 III-6> 정부 부처의 진로교육 관련 업무 분장 내역 · 51
- <표 III-7> 16개 시 · 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지원 활동 · 53
- <표 III-8> 7차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목표에서의 진로교육 · 55

- <표 III-9>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을 운영한 방법에 따른 장점과 단점 · 57
- <표 III-10> 초중등학교에서 재량 및 특별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 58
- <표 III-11> 전문상담교사 과정 이수 교사 · 63
- <표 III-12> 학교급별 전문상담교사 현황 · 63
- <표 III-13> 지역별 진로정보센터 운영 내용 · 68
- <표 III-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69
- <표 III-15>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70
- <표 III-16> 영국 교육법 제 43조 · 76

- <표 IV-1> 특수목적고 현황(2007년 3월 기준) · 88
- <표 IV-2> 특수목적중 현황(2008년 기준) · 89
- <표 IV-3> 특성화고 현황(2008년 4월 기준) · 90
- <표 IV-4> 특성화 학교의 자율성 정도 비교 · 92
- <표 IV-5> 고등학교 유형별 성격 비교 · 93
- <표 IV-6> 마이스터고 확대 계획 · 96
- <표 IV-7> 정부부처 위탁 지원 특성화고 육성 사업 선정 현황 · 97
- <표 IV-8> 송달용 외(2008)의 특성화고 성과분석 영역 및 항목 · 99
- <표 IV-9> 외국어고 졸업생 진학 현황(2002-2004년) · 103
- <표 IV-10> 시카고농업과학고등학교의 교과과정 · 112
- <표 IV-11> 윌리엄터너기술고등학교의 진로전공 · 115

[그림목차]

- [그림 II-1] 우리나라 출산율 변동 추이(1970-2005) · 10
- [그림 II-2] 출산율 저하 현상의 국제 비교 · 11
- [그림 II-3]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 13
- [그림 II-4]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 현황 · 14
- [그림 II-5]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추이(1981-2006) · 19
- [그림 II-6]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구조 변화 추이(1981-2006) · 20
- [그림 II-7]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변화 추이 · 25
- [그림 II-8] 상급학교 진학률 · 30
- [그림 II-9] 고용률 변동 추이 · 32
- [그림 II-10]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 증가 추이 · 32
-
- [그림 III-1]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진로교육 유형 · 54
- [그림 III-2] 7차 교육과정의 편제와 진로교육 운영 방안 · 56
- [그림 III-3] 각 시도별 창의지도 시간내 진로교육 운영 비율(2007) · 59
- [그림 III-4] 학교 내 진로교육 전담 전문상담교사의 보유 비율 · 64
- [그림 III-5] 진로교육 직무연수 참가 인원 및 과정 수 · 66
- [그림 III-6] School-to-Work Opportunity Act의 교육요소 구성 · 71
- [그림 III-7] 프랑스의 진로개발 업무 체계 · 83
- [그림 III-8] 인간 뇌의 구조 · 86
-
- [그림 IV-1] 마이스터고 Career Path · 95
- [그림 IV-2] 특수목적고 희망학생 및 일반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비율 차이 · 104
- [그림 IV-3] 과학고 입학 경쟁률 변화 추이(1999-2007년) · 106
- [그림 IV-4] 외국어고 입학 경쟁률 변화 추이(1998-2007년) · 106
-
- [그림 V-1]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의 기본 방향 · 120

- [그림 V-2] 학교 특성화 운영 체제 · 122
 - [그림 V-3] 학교 특성화 단기 방안 · 123
 - [그림 V-4] 학교 특성화 장기 방안 · 125
 - [그림 V-5] 특성화 학교의 자율성 확보 방안 · 127
 - [그림 V-6]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개발 방안 · 128
 - [그림 V-7] 특성화 교육에 적합한 교원 및 학생 확보 방안 · 131
 - [그림 V-8] 학교 특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134
-
- [그림 VI-1]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학교 특성화 추진 절차 · 136

【요약】

1. 연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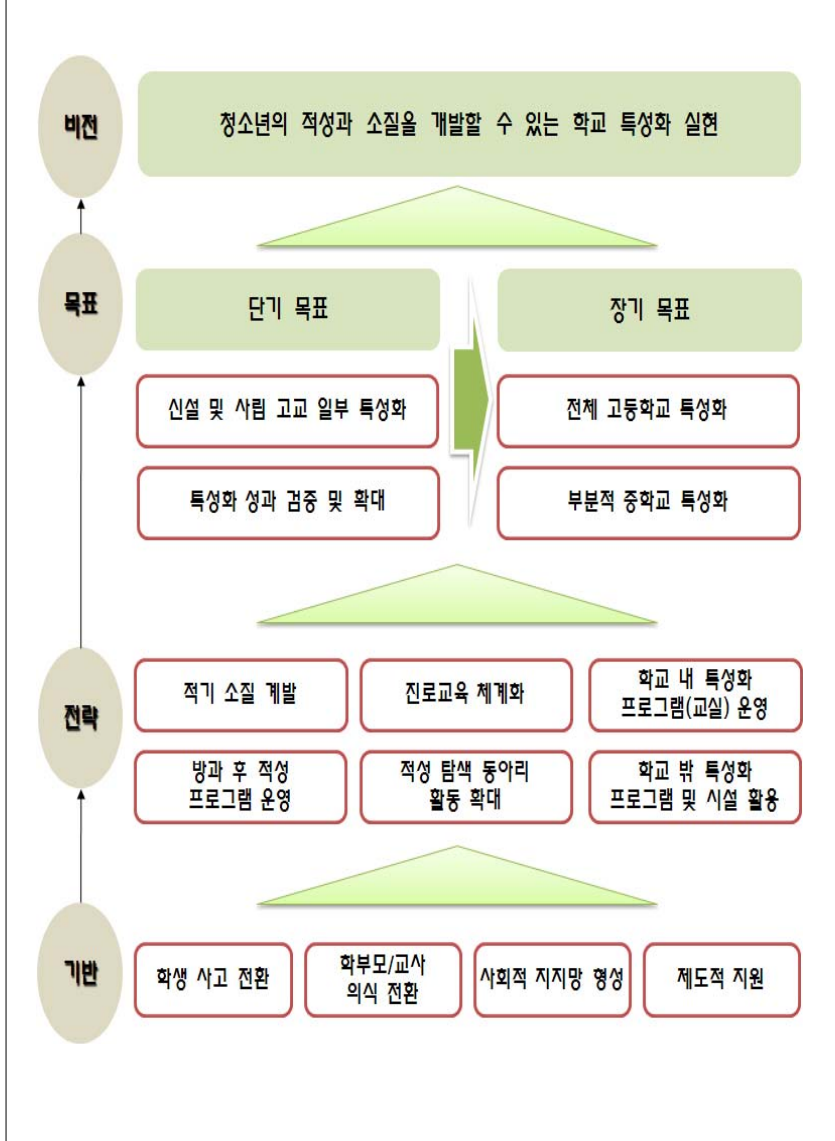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특성화 기본 방향 및 체제, 장·단기 방안, 세부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관련 진로환경, 청소년 진로개발 현황, 특성화 학교 교육 현황을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협의회, 세미나 개최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학교 특성화의 기본 방향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의 비전은 청소년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학교 특성화 실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단기적인 목표는 신설 학교나 사립 고교 중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특성화 학교로 전화하고, 추후 특성화 학교 운영 성과를 검증하여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목표는 단기 목표를 확대하여 전체 고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고, 중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특성화로 전화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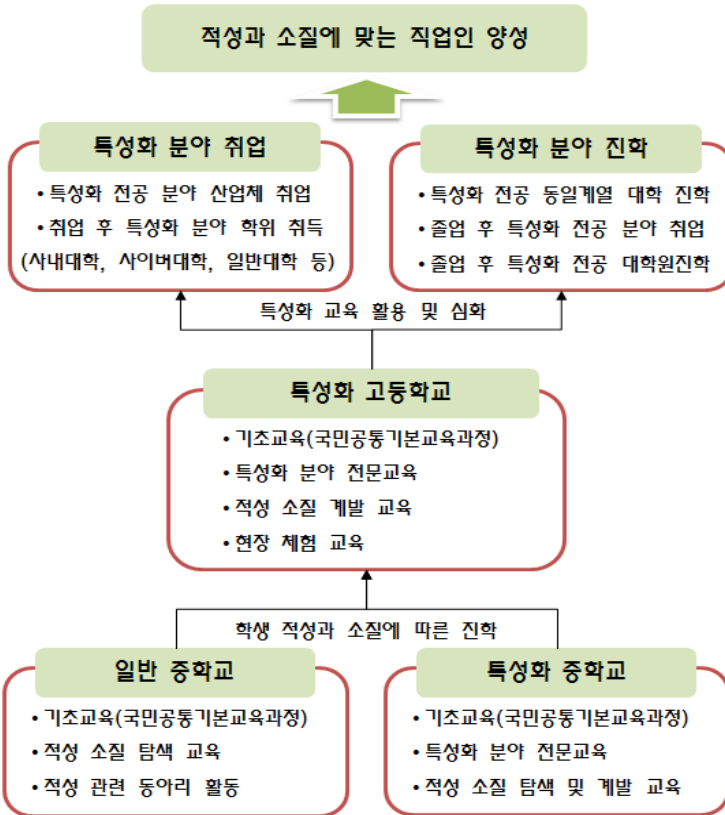
이러한 장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적기 소질 개발, 진로교육 체계화, 학교 내 특성화 프로그램(교실) 운영, 방과 후 적성 프로그램 운영, 적성 탐색 동아리 활동 확대, 학교 밖 특성화 프로그램 및 시설 활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략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하여 발휘하는 것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생들의 자기 발견을 수행해야 한

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직업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지지망을 형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특성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학교 특성화 운영 체제

학교 특성화 운영 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미래 해당 분야의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특성화 진로 경로를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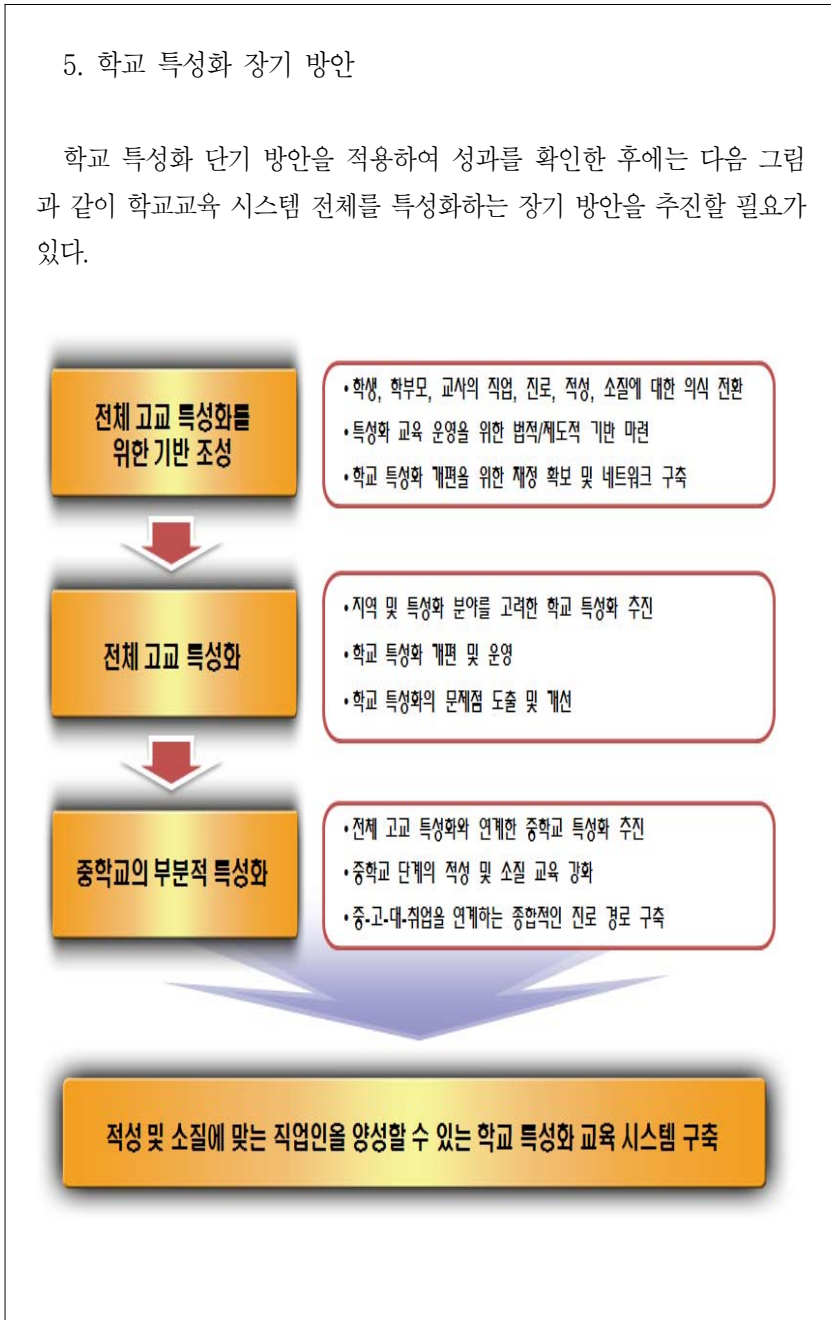
4. 학교 특성화 단기 방안

현행 고교 체제를 단기간 내에 전체 특성화고교로 전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다음 그림과 같이 일부 고교를 대상으로 특성화고로 체제를 개편하는 단기 방안을 적용한 후 전체 고교로 특성화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학교 특성화 장기 방안

학교 특성화 단기 방안을 적용하여 성과를 확인한 후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학교교육 시스템 전체를 특성화하는 장기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학교 특성화 세부 추진 방안

학교 특성화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특성화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체제 개선 방안,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개발 방안, 특성화 교육에 적합한 교원 및 학생 확보 방안, 특성화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성화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체제 개선 방안으로는 특성화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확대, 교과용 도서의 사용 자율화, 특성화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학교의 자율권 확대가 제시되었다.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개발 방안으로는 특성화 분야 선정, 특성화 분야에 대한 직업군 및 직업 분류, 직업인력 수요 현황 및 전망 분석, 직무 분석, 특성화 분야 교과목 교육목표 설정, 특성화 분야 교과목 도출,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수립, 특성화 분야 교과목 수업 설계, 특성화 교과목 교재 개발, 수업 전개, 교육평가 실시의 개발 절차가 제시되었다. 특성화 교육에 적합한 교원 및 학생 확보 방안으로는 교원의 재배치 요구, 특성화 분야의 심화과목 담당 교원에 한하여 관련분야의 경력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교직 문호 개방, 국공립 특성화 학교 교원의 경우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해당 분야의 유능한 교원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본인이 원하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 근무제에 있어서 예외 인정, 우수한 관련 분야 인사를 겸임 교사나 강사로 활용, 중학교 대상의 홍보 강화, 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생 선발 방법 개선, 전학제도 자율화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사회적 환경변화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탐색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개발이 필요하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이전과 더불어 평생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의 직업의식 변화, 직업생성 및 소멸 주기 단축, 자신의 고용능력을 지속적으로 함양하는 진로활성화의 주체자로서 개인 책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인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보다는 직업 안정성 및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의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단계 교육시스템은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로 획일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의 선택권의 폭이 좁다. 특히 영재교육과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이 중시되면서, 과학

분야와 예체능 분야 뿐만 아니라 각 분야를 특성화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으로는 청소년의 요구에 맞춘 진로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전문계고를 중심으로 특성화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계고와 일반계고를 포함한 전체 고등학교의 특성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에서는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인재대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국정과제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방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이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서는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하고, 학생의 특성, 취업·진학의 모든 기회를 살리는 직업분야 마이스터 고교 50개교를 집중 육성하며, 교육청의 획일적인 통제를 벗어나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운영 등을 학교가 자유롭게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교를 설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새 정부의 고등학교 단계의 정책 방향은 교육체제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이는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학생의 흥미, 적성, 소질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가 정립될 경우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업과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체계적인 진로개발이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특성화하는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공유를 통해 고등학교의 특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특성화 기본 방향 및 체제, 장·단기 방안, 세부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관련 진로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청소년 직업 활동 및 의식의 변화에 따른 진로환경 변화를 분석한다.
- 2) 청소년 진로개발 현황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청소년 진로개발 현황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청소년 진로개발의 특징을 분석한다.
- 3) 특성화 학교의 교육 현황, 운영 체제, 운영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다.
- 4) 청소년 관련 진로환경 변화, 진로개발 현황 및 특성화 학교 교육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특성화의 기본 방향, 장·단기 방안, 세부 추진 방안을 도출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1. 청소년 관련 진로환경 변화 분석

청소년 관련 진로환경 변화 분석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청소년 직업활동 및 의식 변화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고,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로는 노동시장의 변화, 산업 및 직업구조 현황 및 변화 전망,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직업 활동 및 의식변화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 활동 현황 및 변화와 직업선택 요인으로서의 의식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청소년 진로개발 현황 분석

청소년 진로개발 현황 분석에서는 청소년 진로개발의 개념 및 특징, 국내의 청소년의 진로개발 현황, 뇌의 발달과 청소년의 적기적성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진로 및 진로개발의 개념과 특징, 청소년기의 진로발달 특징, 국내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법령 및 행정체계, 학교교육에서의 진로개발 현황, 기타 진로개발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외 청소년 진로개발 현황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진로개발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청소년 적기적성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뇌의 발달에 따른 적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3. 특성화 학교 교육 현황 분석

특성화 학교 교육 현황 분석에서는 특성화 학교 현황 분석, 특성화 학교 운영 체제 분석, 정부의 특성화 관련 정책 분석, 특성화 학교 운영 성과 및 문제

점 분석, 국외 특성화 학교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성화 학교 현황은 특수목적학교,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특성화 학교 운영 체제에 대해서는 학교유형, 교육성격,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과정 운영, 학생 선발, 학생 진로 등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성화 학교 운영 성과 및 문제점에서는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정부의 특성화 관련 정책으로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과 정부부처, 지자체 및 산업체 지원 특성화고 육성 사업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특성화 학교 운영 사례와 관련하여 미국의 Career Magnet School과 영국의 Specialist School에 대한 사례를 고찰하였다.

4.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 방안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 방안은 학교 특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운영 체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교 특성화 방안을 장기 방안과 단기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학교 특성화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3절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 1) 이 연구에서 청소년 관련 진로환경 분석과 진로개발 현황, 특성화 학교 교육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 2) 청소년 관련 진로환경 분석을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 청소년 직업의식 변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보고서, 학술지, 논문 등을 고찰하였다.

6 청소년의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 방안

3) 청소년 진로개발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부처, 학교, 진로서비스 기관의 자료를 분석할 것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의 진로개발 지원정책 및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4) 특성화 학교 교육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특성화 학교 운영 보고서, 특성화 학교 성과 평가 보고서, 특성화 관련 정책 등을 분석하였다.

2. 통계자료 분석

1) 청소년 관련 진로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2) 주요 자료는 인구구조, 산업구조, 직업구조 변화 데이터 등이 활용되었다.

3. 전문가 협의회

1) 청소년 진로개발 현황과 특성화 학교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교육, 진로,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2)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연구의 전체 진행과정과 분석 상의 자문을 받았다.

4. 세미나 개최

1) 청소년의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구 결과의 적절성 및 향후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교육, 진로, 청소년 전문가, 일선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와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 2) 토론회 및 좌담회에서는 고등학교 특성화 방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보완 작업과 함께 향후 정책 제언 및 학교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 2 장

청소년 관련 진로환경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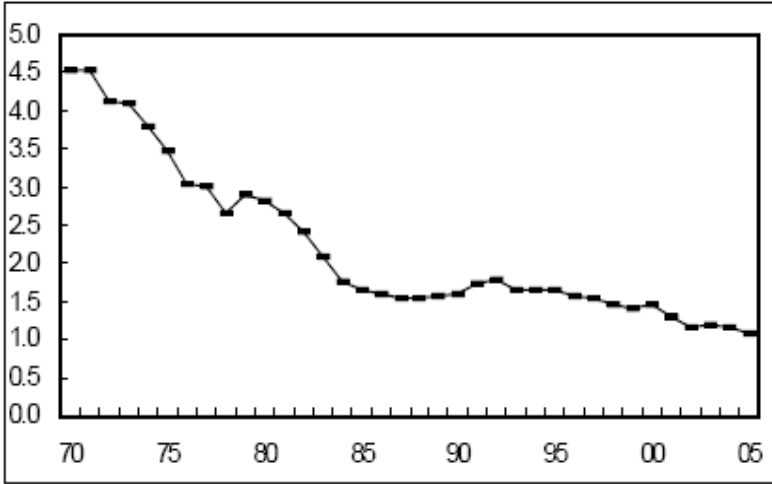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

1.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저하 속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2~2004년 동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에 근접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김병관 외, 2006).

출산율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이 도입된 이래,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에 도달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은 1.5~1.8명 수준에서 다소 불규칙성을 보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1년부터는 1.3명 이하의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5년에는 출산율이 평균 1.08명으로, 인구대체수준 2.08명에 비해 무려 1명이 적은 상황이다(문형표 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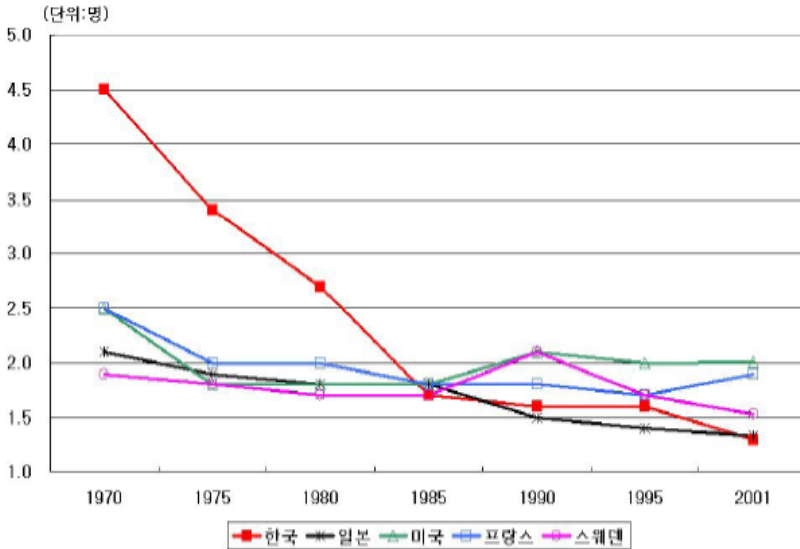
[그림 II-1] 우리나라 출산율 변동 추이(1970-2005)



자료: 문형표 외(200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p.30.

이러한 출산율 저하 속도는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 중 일본, 미국, 프랑스, 스웨덴의 출산율 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그림 II-2] 참조).

[그림 II-2] 출산을 저하 현상의 국제 비교



자료: 김병관 외(2006). 학령인구 감소의 교육부문 영향 예측과 관련 정책의 연계·통합 방안 수립. p.30.

한편, 청소년의 인구 및 구성비는 어떻게 변해왔으며, 향후 변화 추이에 대한 예상은 <표 II-1>과 같다. 청소년의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15~19세와 20~24세의 인구 및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특히 중등교육을 받는 기간의 청소년들을 살펴보면 15~19세의 경우 2000년대에 3,842천 명이었던 것이 2050년에는 1,558천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2%에서 3.7%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1>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변화 예상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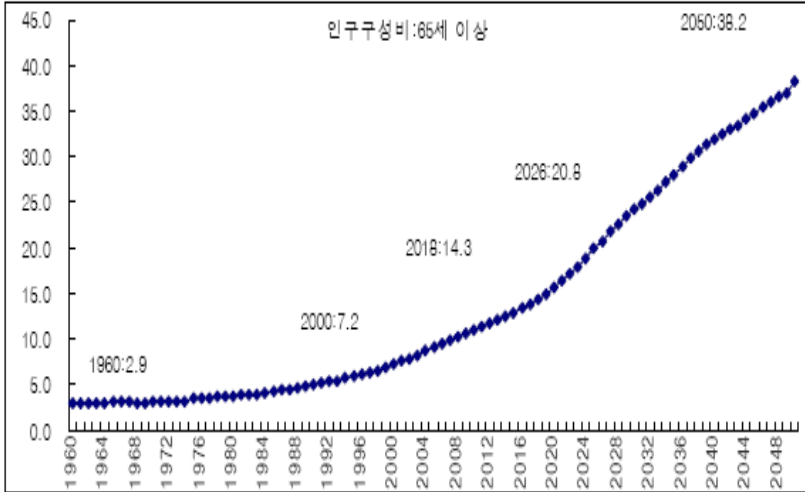
구분	총인구	15-19세	20-24세	구성비	
				15-19세	20-24세
2000년	47,008	3,842	3,854	8.2	8.2
2001년	47,357	3,615	3,932	7.6	8.3
2002년	47,622	3,403	3,994	7.1	8.4
2003년	47,859	3,246	4,007	6.8	8.4
2004년	48,039	3,157	3,915	6.6	8.1
2005년	48,138	3,136	3,743	6.5	7.8
2006년	48,297	3,142	3,568	6.5	7.4
2007년	48,456	3,197	3,386	6.6	7.0
2008년	48,607	3,277	3,236	6.7	6.7
2010년	48,875	3,402	3,113	7.0	6.4
2020년	49,326	2,439	3,112	4.9	6.3
2030년	48,635	1,989	2,097	4.1	4.3
2040년	46,343	1,781	1,829	3.8	3.9
2050년	42,343	1,558	1,732	3.7	4.1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2. 고령화 현황

우리나라의 총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2%로 고령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2005년에 9.1%에 도달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14.3%로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며, 2026년에는 20.8%에 진입하여 초고령사회(hyper 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 이후 2037년에는 30%대에 진입하며, 2050년에는 38.2%에 이를 전망이다(삼성경제연구원,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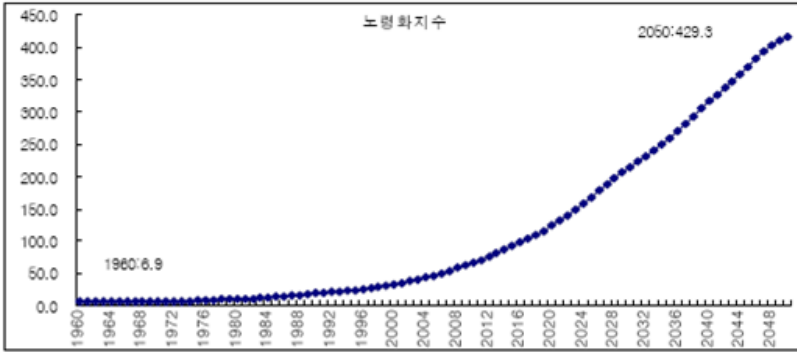
[그림 II-3]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7). 한일 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p.1.

한편 노령화 지수도 1960년 유년인구 100명당 6.9명에서 초기에는 더딘 속도로 증가하다가 점점 가속도가 붙는 지수함수(Exponential Function) 형태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II-4] 참조). 2016년 처음으로 유년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가 100명을 초과한 100.7명으로 추정된 후 2050년에는 유년인구 100명당 429.3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7).

[그림 II-4]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 현황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7). 한일 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p.3.

또한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 걸린 시간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표 II-2> 참조), 프랑스 154년, 미국 94년, 이탈리아 79년, 독일 77년, 일본 36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7).

<표 II-2> 국가별 고령화 사회 속도 변화 추이

국가	고령인구 비율 도달년도			고령인구 비율 증가소요 연수	
	7%	14%	20%	7%→14%	14%→20%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제2절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1. 산업구조의 변화

가. 노동시장의 변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용구조의 변화는 고용의 양극화로 말할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추구해온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는 비정규직(임시·일용직) 비중의 증가와 노동자의 노동이동을 높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의 노동력 상태 이동과 실업 위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III-3> 참조). 노동자가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중 하나를 경험하여 이동할 확률이 1996년 3.3%에서 2004년 4.7%로 증가하였으며, 한 해 동안 실업을 경험하는 확률도 1996년 4.8%에서 2004년 9.5%로 약 2배 증가하였다(나승일 외, 2007).

<표 II-3> 노동력 상태 이동 추이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월평균 노동력 상태 이동률	3.3	3.5	5.7	5.8	5.0	5.0	4.0	5.5	4.7
연간 실업 경험률	4.8	6.3	17.6	14.5	10.3	9.8	7.7	9.5	9.5

자료: 나승일 외(2007). 광주광역시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및 종합발전방안. 제인용.

고용구조의 양극화는 주요 계층별, 부문별로 소득수준의 격차를 수반하고 있다. 특히 학력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큰 실정으로써, 2003년을 기준으로 고졸자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하였을 때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임금은 152이다(교육혁신위원회, 2005).

<표 II-4> 학력별 · 연도별 월평균 임금수준 비교

(단위: 천원)

년도	고졸	전문대졸	대졸(4년제)
1981	186(100)	262(141)	396(213)
1991	541(100)	632(117)	912(169)
2002	1,363(100)	1,386(102)	2,036(149)
2003	1,456(100)	1,489(102)	2,208(152)
2004	1,542(100)	1,578(102)	2,347(152)
2005	1,618(100)	1,675(104)	2,506(155)

자료: 교육혁신위원회(2005).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p.12.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전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고 선진국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한 편이다. 직접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상대 빈곤률이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OECD국가 평균에 비해서도 거의 2배가량 높다(정부 · 민간 합동작업단, 2006).

<표 II-5> 주요국의 상대 빈곤률 비교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상대 빈곤률	18.0	17.1	15.3	11.4	9.8	5.3	10.2

※ 상대빈곤률 :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전체 가구

자료: 정부 · 민간 합동작업단(2006).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인력수급의 양적 · 질적 불일치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중분류 수준에서 부족인원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리업으로 부족률이 11.50%이었으며, 그 다음은 기계(11.39%), 철강(9.9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82%) 순이었다(산업자원부, 2004).

<표 II-6> 산업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단위: 명, %)

산 업		부족인원	부족률
제조업	기계	3,987	11.39
	반도체	397	2.29
	섬유	501	5.44
	자동차	2,070	4.67
	전자	2,233	4.78
	조선	254	3.96
	철강	1,109	9.91
	화학	1,003	2.27
	기타 제조업	4,089	5.97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38	7.26
사업 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9,298	11.50
	연구 및 개발업	1,236	3.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09	5.82
	사업지원 서비스업	326	9.19
총 계		29,048	6.77

자료: 산업자원부(2004).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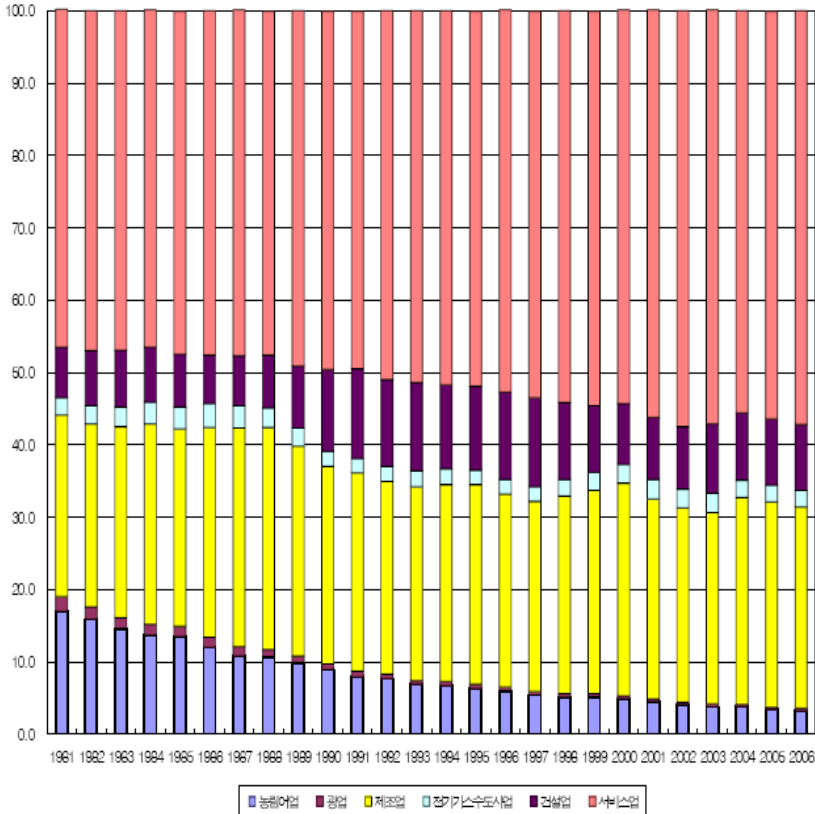
나. 산업 및 직업구조의 현황

한국의 산업구조는 1960년대 이후 1차 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이를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의 비중은 1980년대 말 최고에 이른 후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졌으나, 외환위기 이후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5). 구체적으로 1960년대는 섬유, 신발, 완구 및 가발 등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근간이 되

었고, 1970년대를 기점으로 경공업 중심에서 철강, 화학, 기계, 전자 그리고 조선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는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기계·전자산업의 비중이 자동화 및 기술혁신 투자가 늘어남에 힘입어 크게 상승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정보화의 급진전 등으로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산업의 비중이 크게 상승한 반면,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박종찬, 2006).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II-5] 참조), 농림어업은 1981년 17%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줄어들어 2006년에는 3.2%로 축소되었다. 제조업은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늘어나 1987년에는 30%를 넘어섰고, 이후 비중은 조금 줄어들어 26~28%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회복기를 제조업이 주도함으로써 제조업 비중은 2000년경에 다시 30%선에 근접하였으나, 이후 다시 근소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은 1981년 46.7%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6년에는 그 비중이 57.2%에 달하였다(이재형, 2007).

[그림 II-5]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추이(1981-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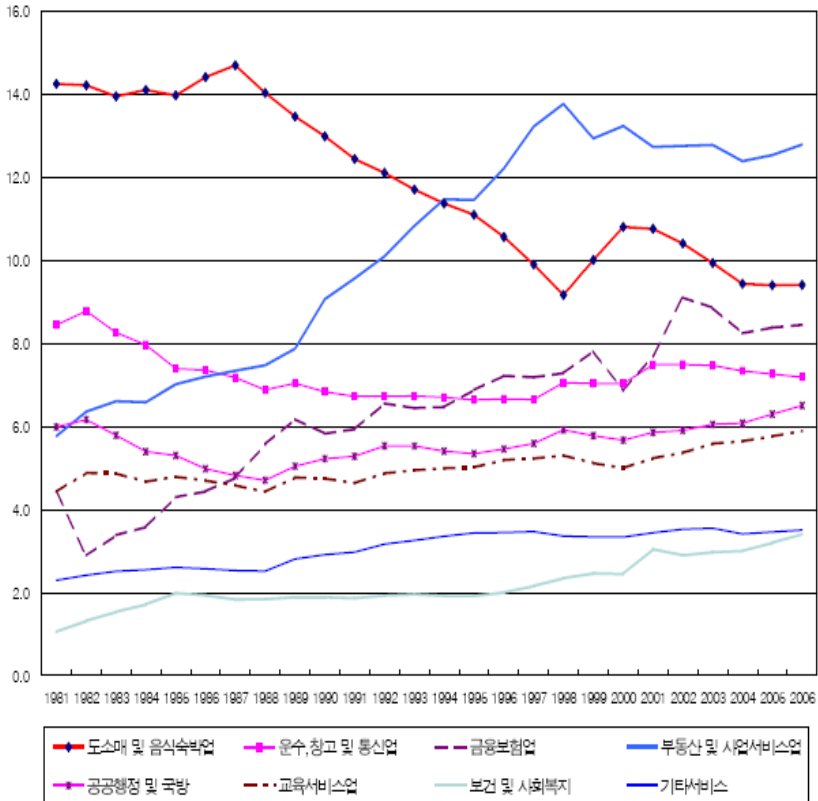


자료: 이재형(2007). 우리 산업의 경쟁구조와 산업집중 분석. p.65.

한편 서비스 산업 내에서의 세부산업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II-6] 참조),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은 1981년 14.3%이였지만, 이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998년에는 9%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의 비중저하는 주로 도소매업의 비중저하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유통산업이 갖는 본질적인 속성과 아울러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진전된 유통혁명과 대형소매점의 급성장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유통산업과 반대로 비중이 급속하게 높아진 산업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다. 이 산업의 특징은 특히 사업서

비즈니스의 발전으로부터 기인된 것인데, 1981년 6% 미만이었던 수준에서 1998년에는 14%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나머지 서비스업들은 지난 20년간 점진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구조변화는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의 급격한 비중 감소와 여타 서비스 산업의 점진적인 비중증대로 집약할 수 있다(이재형, 2007).

[그림 II-6]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구조 변화 추이(1981-2006)



자료: 이재형(2007). 우리 산업의 경쟁구조와 산업집중 분석. p.66.

다.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전망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 초기단계와 소재산업 부문 투자를 통해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투자유발의 단계를 거쳐,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성숙기로 진입하는 단계에 와 있다. 향후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의 전반적인 추세는 지식집약화와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반면, 서비스업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산업개발연구원, 2005).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에 국내 산업분야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성장 가능성이 많은 산업분야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차세대 성장 산업은 장래에 생산 및 수출 등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고 국가적으로 무역흑자를 이루어 내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 일 것이다. 따라서 미래 성장산업은 현재 국내 산업의 경쟁력, 기술의 변화 전망, 세계시장 전망,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 사업화 가능성,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Porter의 전략군 이론에 따라서 국내의 산업을 분류해보면 5개의 산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군은 항공우주, 바이오기술 등의 산업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제2군에는 디지털전자, Post-PC, 차세대 이동통신, 반도체(비메모리), 2차 전지, 정밀화학, 가정용로봇, S/W, 디지털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3군에는 기계·플랜트, 디지털 가전, NIT 부품소재, 디스플레이, LED, 전자상거래, 디자인 등이 해당되며, 제4군에는 가정용전자, 조선, 공작기계,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메모리), 범용전자부품, 유통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제5군에는 섬유 및 신발과 같은 산업들이 포함된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군은 다시 주력 기간 산업군, 미래 유망 산업군,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주력 기간 산업군에 속한 산업은 현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기술 접목 및 제품 차별화 등을 통해 경쟁우위가 가능한 분야이다. 예를 들면, 차세대 지능형 연료전지 자동차, 디지털전자, 고부가가치 선박, 신기술 융합 철강, 기계제품, 산업용 섬유 그리고 차세대 이동

통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로는 미래 유망산업군은 기술혁신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제품으로서 세계 산업 속에서 경쟁력 상승이 가능한 신기술 산업의 미래 제품군, 신기술간 융합 제품군이다. 예로는 Post-PC, BT, BIT, 환경·에너지, 전자의료기기, 헬기산업을 포함하는 항공우주, 디지털 콘텐츠 등의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군으로 주력 산업군과 미래 유망산업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육성이 필요한 분야로서 유통·물류, 비즈니스 서비스, 디자인,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박중찬, 2006).

2.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직업별 취업자 수 전망을 살펴보면(<표 II-7> 참조), 2004~2015년 사이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은 ‘전문가(2.79%)’이며, 다음으로 ‘서비스직(2.70%)’, ‘단순노무직(2.37%)’, ‘준전문가(1.64%)’, ‘관리자(1.59%)’, ‘조작·조립직(1.47%)’ 등이다. 이들 직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전체 평균증가율(1.16%)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농림·어업 숙련직’과 ‘판매종사자’는 각각 2.80%, 0.1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소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기능직(0.32%)’, ‘사무직(0.61%)’ 등의 증가율은 전체 평균증가율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장창원 외, 2005).

<표 II-7> 직업대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단위: 천명, %)

구분	2004	2010	2015	연평균 증가율		
				05-10	11-15	05-15
전 직업	22,567	24,444	25,600	1.35	0.93	1.16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72	636	681	1.77	1.38	1.59
전문가	1,688	2,091	2,284	3.63	1.78	2.79
기술공 및 준전문가	2,440	2,741	2,919	1.95	1.27	1.64
사무 종사자	2,855	3,031	3,051	1.01	0.13	0.61
서비스 종사자	2,917	3,465	3,910	2.92	2.44	2.70
판매 종사자	2,686	2,755	2,639	0.42	-0.85	-0.1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1,878	1,568	1,373	-2.78	-2.83	-2.8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707	2,744	2,803	0.23	0.43	0.3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416	2,655	2,836	1.59	1.33	1.47
단순 노무 종사자	2,399	2,740	3,103	2.24	2.52	2.37

자료: 장창원 외(2005).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인적자원정책 개선 지원. p.95.

한편 직업대분류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표 II-8> 참조), 전체 직업 중에서 해당 기간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은 '전문가'로, 연평균 2.7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전문가도 연평균 1.6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직은 연평균 2.70%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판매직은 연평균 1.6%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농림·어업숙련직 역시 1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축소와 해당 산업의 기계화에 따른 필요인력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2.80%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무직'은 2004~2015년 기간 중 연평균 0.61%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2004년보다 196천 명 증가하여 3,051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지식기반사회에서 핵심 인력이나 기능 인력에 비해서 단순사무직 인력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취업자 증가

율은 전체 취업자 평균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이 향후 2015년까지 취업자 수의 증가는 전문직과 서비스직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업별 전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에 기반을 둔 전문기술과 국제적인 개방에 대응한 서비스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장창원 외, 2005).

<표 II-8> 직업대분류별 취업자 비중 전망

(단위: %)

구분	2004	2010	2015	비중차
전 직업	100.0	100.0	100.0	0.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5	2.6	2.7	0.2
전문가	7.5	8.6	8.9	1.4
기술공 및 준전문가	10.8	11.2	11.4	0.6
사무 종사자	12.7	12.4	11.9	-0.7
서비스 종사자	12.9	14.2	15.3	2.3
판매 종사자	11.9	11.3	10.3	-1.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8.3	6.5	5.4	-2.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0	11.2	11.0	-1.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7	10.9	11.1	0.4
단순 노무 종사자	10.6	11.2	12.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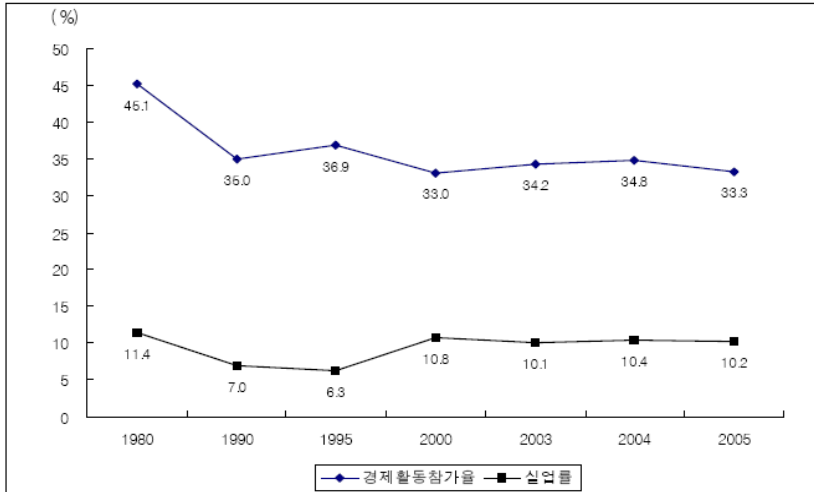
자료: 장창원 외(2005).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인적자원정책 개선 지원. p.96.

제3절 청소년 직업 활동 및 의식 변화

1. 청소년 직업 활동의 변화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그림 II-7]과 같다. 1980년 45.1%에 이르던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33.3%로 나타났으며, 1980년에 비해 11.8%p 감소하였다. 이는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그 중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점차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미석 외, 2006).

[그림 II-7]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변화 추이



자료: 진미석 외(2006). 직업진로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진로개발지원 정책, p.46.

청소년의 취업현황을 최근 3년간 직업별로 살펴보면 <표 II-9>와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05년에는 총 22,856천 명의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는 243천 명으로 전체의 약 1.1%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2007년에는 전체 23,433천 명의 취업자 중 청소년이 211천 명으로 전체의 0.9%가 되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부 직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직업에서 청소년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2005년 114천명이었던 취업자가 2007년에는 122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비율 또한 2.0%에서 2.2%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판매직을 제외한 전체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취업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학력화 현상으로 인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대학진학 선호 등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II-9> 최근 3년간 청소년의 직업별 취업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취업자	22,856	100.0	23,151	100.0	23,433	100.0
전문·기술·행정관리직	7,776	34.0	4,997	21.6	5,197	22.2
사무직	3,269	14.3	3,284	14.2	3,309	14.1
서비스·판매직	5,625	24.6	5,585	24.1	5,567	23.8
농림·어업직	1,708	7.5	1,676	7.2	1,624	6.9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7,478	32.7	7,610	32.9	7,736	33.0
청소년 취업자	243	100.0 (1.1)	209	100.0 (0.9)	211	100.0 (0.9)
전문·기술·행정관리직	33	13.6 (0.4)	20	9.6 (0.4)	19	9.0 (0.4)
사무직	38	15.6 (1.2)	31	14.8 (0.9)	24	11.4 (0.7)
서비스·판매직	114	46.9 (2.0)	116	55.5 (2.1)	122	57.8 (2.2)
농림·어업직	3	1.2 (0.2)	1	0.5 (0.1)	2	0.9 (0.1)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57	23.5 (0.8)	41	19.6 (0.5)	44	20.9 (0.6)

참고 1: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15-19세로 설정된 것임.

참고 2: 인원수는 천 명 단위로 반올림된 수치이므로, 총 합과 개별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참고 3: 괄호 안은 직업별 전체 종사자 수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05-2007). 경제활동인구연보.

청소년의 취업 현황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 <표 II-10>과 같다. 전체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수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약 98천 명이 취업을 한 반면, 여자는 약 113천 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세부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기

술·행정·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이 취업하고 있는 반면, 농림·어업직과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에는 남자가 월등하게 많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 직업별·성별 청소년 취업 현황(2007년 기준)

(단위: 천명)

구분	총수	전문·기술·행정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 어업직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직
총수	211	20	24	122	1	43
남자	98	7	6	51	1	34
여자	113	13	18	71	0	9

참고 1: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15-19세로 설정된 것임.

참고 2: 인원수는 천 명 단위로 반올림된 수치이므로, 총 합과 개별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자료: 통계청(2007). 경제활동인구연보.

2. 청소년의 직업의식 변화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직업의식 역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 중 직업선택요인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II-11>과 같다. 직업선택요인을 명예/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흥미, 보람/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2002년에 비해 2006년에는 명예/명성, 안정성, 수입 등의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성/흥미, 보람/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 등의 요인에 대해서는 2006년에 조사한 결과가 더 비중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조건에 다소 순응적인 자세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직업 생명 유지나 삶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를 개발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II-11> 청소년의 직업선택요인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2002년	2006년
명예/명성	2.9	3.6
안정성	19.3	21.8
수입	14.6	22.0
적성/흥미	34.3	30.0
보람/자아성취	11.8	9.8
발전성/장래성	15.8	10.6
기타	0.0	0.1
모름	1.4	2.1
합 계	100.0	100.0

참고: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15-19세로 설정된 것임.

자료: 통계청(2002, 2006),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제4절 청소년의 노동시장 이행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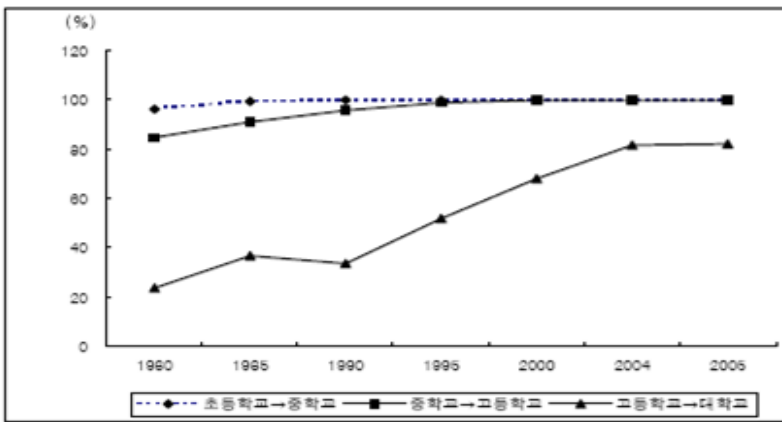
청소년이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불일치가 생기는 현상을 탐색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노동시장 이행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진미석 외(2006)의 직업진로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진로개발지원 정책 연구와 기획재정부 외(2008)의 청년고용촉진대책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1. 대학진학률의 증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90년 대비 2005년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48.9%p 증가한 것에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8] 참조). 이러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II-8] 상급학교 진학률



자료: 진미석 외(2006). 직업진로환경 변화와 청소년 진로개발지원 정책. p.40.

2. 고용시장의 양극화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라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대졸 실업률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층 인구의 학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경쟁이 높고 취업사정이 열악하여 청년층 일자리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최근 2년간은 대졸 취업자의 진로 비중 중 전문직과 기술직의 직종 비중의 감소, 서비스 판매직의 비중의 증가, 대기업 채용규모의 감소와 비정규직 비중 증가 등으로 높은 진학률로 인해 청년층의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괜찮은 일자리의 비중은 줄고 있는 상황이다.

대졸자가 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30대 대기업 집단이나 공기업, 금융 관

런 기업 등의 일자리는 최근 5년 동안 32만 6천 개나 줄어들었다. 동시에 이들 기업군에서의 경력직 채용 경향이 확산되면서 괜찮은 일자리의 청년층 점유율도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3.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후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임시 일용직의 비중이 41.9%에서 1999~2000년 52.3%로 증가하였다가 2005년 1/4분기 48.3%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이런 비정규직의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금근로자 10명 중 5명이 비정규 근로자인 상황이다. 비정규직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미혼자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취업취약계층이 비정규화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비정규 근로자는 정규 근로자에 비해 14% 정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속한 비정규직화는 한국노동시장이 최근 빠르게 유연화되고 있다는 주요한 단서이지만 동시에 고용의 질적 저하, 노동시장의 분단화, 이중구조의 심화를 초래하여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고용불안정에 따른 잦은 이직을 초래하게 되며, 이런 잦은 이직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 7~8% 정도 임금을 낮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이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는 결과를 보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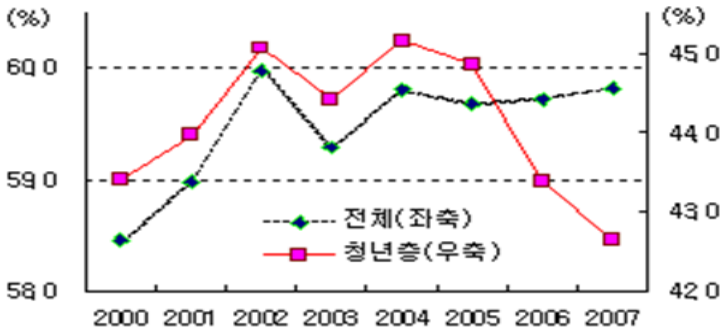
4. 청년실업의 증가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자의 증가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새 정부에 들어서서 청년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2007년 42.6%로 하락하고 있으며, 청년실업자·취업준비자 등 취업 애로층이 1백만 명을 상회하여 체감 실업이 높은 상황이다(기획재정부 외, 2008).

2007년 청년고용률은 42.6%로 OECD 평균 54.4%에 비해서도 낮으며 '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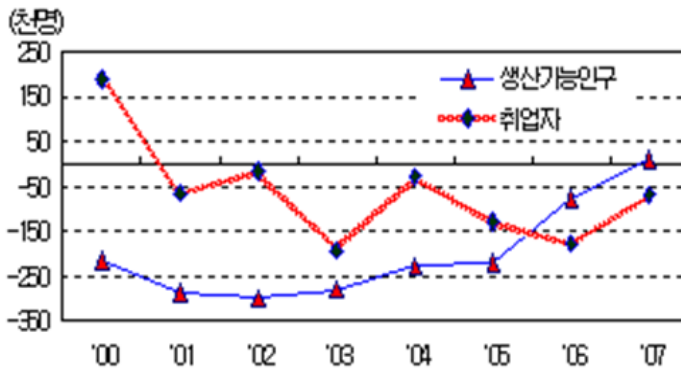
(45.1%) 이후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청년고용률의 하락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비해 취업자 감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그림 II-9], [그림 II-10] 참조).

[그림 II-9] 고용률 변동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외(2008). 청년고용촉진대책. p.1.

[그림 II-10]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 증가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외(2008). 청년고용촉진대책. p.1.

고용률의 하락 속에서도 여성 청년의 고용률은 '00년 이후 상승하여 '04년부터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24~29세, 서비스업, 전문직에서 여성 청년층이 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II-12> 참조).

<표 II-12> 성별 청년 고용률(%) 추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청년	43.4	44.0	45.1	44.4	45.1	44.9	43.4	42.6
남성	46.1	45.7	46.2	45.1	45.1	44.1	42.4	41.5
여성	40.9	42.4	44.0	43.8	45.2	45.6	44.3	43.7

자료: 기획재정부 외(2008). 청년고용촉진대책. p.1.

한편 고용구조는 중장년층에 비해 불안정한 상황으로, 청년인구 감소, 최근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08년 2/4분기 현재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8.7만 명이 감소하였다. 특히 청년층은 상용직(-2.7만 명), 제조업(-7.5만 명), 교육·사업서비스업(-5.1만 명), 준전문가(-4.4만 명)에서 감소하였다. 반면, 중장년층은 상용직(47.5만 명), 제조업(5.3만 명)·교육·사업서비스업(20.6만 명), 전문가(18.7만 명)·사무직(24.9만 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표 II-13> 참조).

<표 II-13>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 증감 비교

(단위: 천명)

구분	청년층(15-29세)			중장년층(30세 이상)		
	07.2/4	08.2/4	증감	07.2/4	08.2/4	증감
상용직	2,193	2,166	-27	6,340	6,815	475
임시직	1,339	1,263	-76	3,898	3,878	-20
일용직	346	366	20	1,945	1,862	-83

자료: 기획재정부 외(2008). 청년고용촉진대책. p.2.

또한 지표상 청년층의 실업률은 낮으나 취업 애로층이 증가하고 있다. 실업자를 포함한 취업준비자·유휴인력 등 취업애로층은 1백만 명을 상회하여 체

감 실업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이는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청년층이 크게 늘어 고용 부진 속에서도 실업자수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II-14> 참조).

<표 II-14> 청년 취업 애로층 추이

구 분	'03	'04	'05	'06	'07		'08			
					1/4 분기	2/4 분기	상반 기	1/4 분기	2/4 분기	
실업자(A)	401	412	387	364	328	346	330	328	328	328
구직단념자(B)	31	30	32	33	30	37	29	32	32	32
취업준비자(C)	268	297	351	413	417	409	435	477	470	484
쉬었음(D)	225	258	278	258	245	265	228	245	272	219
취업애로층 (A+B+C+D)	906	978	1,025	1,043	996	1,032	993	1,055	1,075	1,039

자료: 기획재정부 외(2008). 청년고용촉진대책. p.2.

학력별로도 구직양태 등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졸이상은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경우 실업 상태보다는 취업준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졸 취업준비자는 08.2/4분기 현재 31만 명으로 취업준비자의 64.5%, 대졸 비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표 II-15> 참조).

<표 II-15> 대졸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비중 추이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년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33.7	38.4	45.5	46.4	45.6	44.8

주: 대졸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비중 - 취업준비자(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 포함)/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자료: 기획재정부 외(2008). 청년고용촉진대책. p.2.

반면 고졸이하는 청년 유휴 비경활인구의 4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과 비경활, 임시·일용직을 반복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청년 취업 애로층의 학력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II-16> 참조), 졸업 후 첫 직장을 갖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학력 수준이 낮아질수록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II-16> 청년 취업 애로층의 학력별 구분(2008년 2/4분기)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고졸이하	대학재학 및 휴학	대졸이상
실업자	328 (100.0)	110 (33.5)	53 (16.2)	164 (50.0)
구직단념자	32 (100.0)	9 (28.2)	2 (6.2)	21 (65.6)
취업준비 비경활	484 (100.0)	85 (17.6)	87 (18.0)	312 (64.5)
유휴 비경활	220 (100.0)	104 (47.3)	54 (24.6)	62 (28.2)
총계(비중)	1,063 (100.0)	308 (29.0)	196 (18.4)	559 (52.6)

제 3 장 청소년 진로개발 현황 분석

제1절 청소년 진로개발의 개념과 특징

1. 진로 및 진로개발의 개념 및 특징

진로(career)란 개인의 생애전반(life-span)에 걸쳐 추구하는 일의 총체(totality of work)로서 입학, 졸업, 진학, 취업, 직업전환, 결혼, 이혼, 여가활동 등 연속성으로 진행되는 인생전반의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Osipow, 1996; Zunker, 1997; 이지연, 2000). 이러한 ‘진로’의 개념은 상급학교 진학·졸업·취업·직장적응·직업전환·은퇴준비 등 생애전반에 걸친 객관적 일(work)을 의미하는 동시에 개인의 주관적인 요소, 즉, 일에 대한 열망, 기대, 가치, 요구(needs) 등과 생애역할(Super, 1990)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지연 외, 2005).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은 초기 심리학자들이 인간발달의 한 특수영역으로 진로에 대한 자아개념, 혹은 직업에 대한 선호도나 흥미, 적성의 발달 등으로 개인의 변화과정에 관심을 기울여,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등 심리적 지원방법을 개발하는 가운데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심리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학자들은 진로발달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이라는 광범위한 진로지도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진로개발은 개인적, 심리적 과정으로서의 발달이라는 개념보다 사회적,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진로상담 뿐 아니라 기타 다양한 지원방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Issacson & Brown, 2001). 일반적으로 진로발달이 개인과 사회 간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개인의 진로발달은 심리적 자동성과 개인 내적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뉘앙스를 갖게 하는 심리학적 진로발달의 개념보다는, 사회적·정책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활동으로서의 진로개발의 관점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보인다(Krumboltz, 1998).

이지연 외(2005)는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이란 인생전반에 걸쳐 추구하는 일의 총체들이 개인의 생애목표와 균형을 이루면서 외부환경과 자신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정의는 Osipow(1996)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진로발달에 대한 지원의 의미로서 진로개발에 관련된 가장 체계적인 개념 정의는 미국중앙직업정보조정위원회(National Occupational 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진로개발지침(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에서 찾을 수 있다. NCDG에 따르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진로개발은 사람이 일의 세계와 관련하여 자신을 배워나가는 전 생애 걸친 과정이며, 개인이 정보를 찾고 활용하여 자신의 삶에 있어 시의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즉, 개인 생애에 걸친 학습의 과정이 진로개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므로 진로개발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해 알게 하고, 자신의 가치관, 흥미, 재능, 기술 등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한 교육적·직업적 기회에 대하여 탐색하도록 지원하고, 일터의 현실에 대하여 알고, 그 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진미석 외, 2006).

2. 청소년기의 진로발달 특징

가. 진로발달 이론에 따른 특징

청소년기의 진로발달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로발달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Ginzberg 외(1951)의 진로발달 이론에서는 진로발달의 단계를 환상적 단계(fantasy period), 시험적 단계(tentative period), 현실적 단계(realistic period)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때 환상적 단계는 6~11세, 시험적 단계는 11~17세, 현실적 단계를 17세 이후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의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시험적 단계와 현실적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험적 단계는 청소년 초기 단계로서 직업선택 과정에서의 흥미, 능력, 가치가 고려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현실적 단계는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기회 뿐만 아니라 직업의 요구조건, 교육기회, 개인적 요인 등과 같은 현실요인을 고려하고 타협해서 결정에 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시험적 단계는 흥미단계(interest stage, 11~12세), 능력단계(capacity, 12~14세), 가치단계(value stage, 15~16세), 전환단계(transition stage, 17~18세)로 구분된다.

Super(1969)의 진로발달 이론에서는 일련의 생애단계를 성장기(growth), 탐색기(exploration), 확립기(establishment), 유지기(maintenance), 쇠퇴기(decline)의 과정으로 특징 짓는다. 이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단계를 탐색기라 할 수 있으며, 15~24세가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개인은 학교활동, 여가활동, 시간제 일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자아검증, 역할시행, 직업적 탐색 등을 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탐색기는 구체적으로 잠정기(tentative substage, 15~17세), 전환기(transition substage, 18~21세), 시행기(trial substage, 22~24세)로 나누어진다. Tiedeman과 O'hara(1963)는 진로발달의 단계를 예상기(anticipation period)와 실천기(implementation period)로 구분하였고, 예상기는 구체적으로 탐색기, 구체화기, 선택기, 명료화기로 구분하였으며, 적응기는 다시 순응기, 개혁기, 통합기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청소년 시

기에 해당하는 것은 예상기라고 할 수 있다. Tuckman(1974)은 진로발달을 ① 일반적 의존성의 단계, ② 자아주장의 단계, ③ 조건적 의존성의 단계, ④ 독립성의 단계, ⑤ 외부지원의 단계, ⑥ 자기결정의 단계, ⑦ 상호관계의 단계, ⑧ 자율성의 단계로 8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중 청소년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6, 7, 8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자기결정의 단계는 중 1~2시기, 상호관계의 단계는 중 3~고 1시기, 자율성의 단계는 고 2~3시기에 해당한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진로발달과 관련된 이론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표 III-1>과 같다. 대부분의 진로발달 이론들이 청소년기에는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기반으로 자신의 진로를 잠정적으로 선택한 후, 이를 구체화하고 특수화시키는 과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표 III-1> 청소년기의 진로발달 특징

학자	청소년기의 발달단계	해당 연령	특징
Ginzberg 외 (1951)	가치	15~16	특수한 직업선호와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알아보며, 자신의 가치관 및 목표와 비교
	전환	17~18	주관적인 요소에서 현실적인 외적 요인들로 관심을 돌림
	탐색	18~22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함
	구체화	18~22	직업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결정에 관련된 내·외적 요소를 종합함
	특수화	18~22	결정을 구체화 시키고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함
Super (1969)	잠정기	15~17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며,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그것을 환상, 토의, 일, 경험을 통해 시행
	전환기	18~21	취업을 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개념을 실천하려고 함에 따라 현실적 요인을 중요시하게 됨
	시행기	22~24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선택해서 최초로 직업을 가지게 됨

<표 계속>

학자	청소년기의 발달단계	해당 연령	특징
Tiedman & O'Hara (1963)	탐색기	직업을 가지기 이전	자신의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탐색해 보며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 예비 평가 함
	구체화기		가치관과 목표 가능한 보수나 보상 등을 고려하면서 개인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기 시작
	선택기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며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임함
	명료화기		이미 내린 의사결정을 신중히 분석 및 검토 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
Tuckman (1974)	자기결정	중1~2	자신의 규칙과 규범을 설정하고 자아인식을 위해 노력하며, 직업군을 탐색함
	상호관계	중3~고1	또래 문화와 교우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진로선택을 함
	자율성	고2~3	직업에 대한 탐색과 아울러 자기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함

나. 학교급별 진로발달

1) 초등학교의 진로발달

초등학교의 진로발달 영역은 자기의 이해, 직업 세계의 이해,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및 태도 형성, 의사결정, 일의 교육적 가치, 일의 경제적 가치, 인간관계 기술 등으로 구분되며(서우석·도경순, 2002; 정철영 외, 2004), 각 영역별로 초등학교 수준에서 달성해야 하는 진로발달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영역 및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자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 - 자아에 관련된 제 개념 발전 - 자아 개념 명료화 -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직업 역할 인식 - 일의 세계에 관련된 제 개념 이해 - 사회 속의 직업 세계의 구조와 상호 관계 이해 - 진로 목표에 적합한 계획 수립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직업에 대한 존경심 -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 발전 - 가치 있고 지속적인 사회 제도로서의 일에 대한 이해 - 일에 대한 가치를 이해
의사 결정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결정 기술의 기본 원리 인식 - 의사 결정 기술 발전 - 개인적인 탐구 기술 및 문제 해결 기술 발전 - 문제 해결 기술 적용
일과 직업의 경제적 측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양식과 직업 역할 관계 인식 - 다양한 직업과 연합된 경제적 이점 이해 - 진로와 연합된 경제 체제와의 관계 이해 - 직업 세계의 구조와 경제 구조와의 관계 이해
일과 직업의 교육적 측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사회에서의 교육의 계속성 인식 - 진로 발달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적 경험 이해 - 다양한 진로와 연결된 다양한 교육적 준비의 요구 이해 - 진로 목적 성취의 수단으로서 교육의 중요성 이해
인간관계의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적인 사회적 행동 습득 -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 발전 - 성숙한 사회적 관계 발전 - 직업 사태에서 집단행동의 역동성 이해

자료: 정철영 외(2004).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서 개발.

이와 같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진로발달 수준에 따라 진로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하고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초등학교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중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

을 가진다’는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중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을 초등학교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를 밝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표로 진로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중학생의 진로발달

중학생 시기는 성적인 성숙을 동반하는 급격한 신체 발달과 함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역동적인 해답을 얻으려는 자아 정체성(identity)의 확립과 독립의 요구에 따른 ‘심리적 이유기’의 특성을 보여준다. 중학교 시기는 진로 발달에 있어서 보통 탐색 단계로 여겨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중학교 시기의 진로발달 영역 및 주요내용을 자아 이해, 일과 직업세계,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와 습관 형성, 일과 학습, 진로계획에 따라 살펴보면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중학생의 진로발달영역 및 주요 내용

구분	진로교육 목표
자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 특성의 장·단점 탐색 - 주변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기능 탐색 - 자신의 성격, 적성, 흥미의 탐색과 개발
일과 직업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의 종류와 특성 이해 - 사회의 변화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 이해 - 진로정보의 탐색 및 활용 기능 탐색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와 습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직업에 관한 생산적 가치관 및 태도의 탐색 - 실천과 실습을 통한 일의 습관 탐색 - 변화하는 성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
일과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세계와 관련한 학교 학습의 중요성 이해 -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한 직업기초 기능의 경험과 응용 - 자신의 자질 특성과 직업 세계와의 관계 탐색
진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특성에 기초한 진로목표의 탐색 - 합리적 의사결정 기능의 탐색과 개발 - 적성과 능력에 기초한 진로계획의 탐색과 실천

자료: 장석민 외(2001).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화 연구.

3)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고등학교 단계의 진로발달영역 및 주요 내용은 <표 III-4>와 같다. 우선, 자아이해로서 자아이해의 중요성은 그것이 단지 진로선택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자체로 독자적인 목표로서 가치를 갖는다. 흔히 자아이해라 함은 적성, 흥미, 성격 등의 심리검사를 통하여 지도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아이해가 포함하는 범위 및 방법은 그보다 훨씬 넓다. 자아이해를 하는 목적은 단지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무엇이라는 자기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는 다른 자신의 독특함에 대해서 앎과 동시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이 더 중요하다.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러므로 포기하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자율적 자기개발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꿈을 키워 가고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힘인 자유적 진로개발의 의지가 여기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직업 및 교육 탐색의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진학할 학교나 또는 학과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과 관련된 학과, 그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나 선수 학습해야 할 내용, 졸업 후의 진로 등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각자 자신의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변화하는 직업세계의 흐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직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직업체험의 기회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진로계획은 흔히 진로교육의 주된 목표를 합리적인 진로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진로선택이 중요하고

합리적 진로선택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진로계획의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진로교육의 목표로서 타당할 것이다.

즉,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목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와 습관 형성이 필요하며, 자아이해를 위한 지속적인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하고, 자신의 진로탐색을 위하여 다양한 직업세계 및 미래 세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이 나름대로 설정한 진로계획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재량활동 시간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 및 그를 위한 구체적인 경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표 III-4>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영역 및 주요 내용

영역	목표
자아이해	1-1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1-2 사회생활에서 타인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기능개발 1-3 직업과 관련된 적성, 흥미, 가치관의 적극적 개발
일과 직업의 세계	2-1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여러 가지 직업 분류체계이해 2-2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 이해 2-3 진로정보의 탐색, 평가, 해석 능력 개발 2-4 구직 또는 직장 생활, 직업 전환에 필요한 기능 습득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와 습관형성	3-1 일과 직업에 대한 적극적 가치관의 경험과 태도 형성 3-2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일의 습관 형성 3-3 변화하는 성 역할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 예측
일과 학습	4-1 진학과 취업을 위한 학교학습의 선택과 활용 4-2 미래의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직업 능력의 학습 4-3 적성과 자질에 기초한 관련 자격증에 대한 탐색과 준비
진로계획	5-1 일과 직업에 관련된 진로 목표의 설정과 준비 5-2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의 이해와 응용 5-3 진학과 취업을 위한 장단기 진로계획의 수립과 실천

자료: 장석민 외(2001).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화 연구.

4) 학교급별 진로발달 종합

초·중·고등학생의 진로발달 영역을 종합하면(<표 III-5> 참조), 자아인식, 학업발달, 직업발달, 진로계획, 직업생활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아인식 영역은 자신에 대한 이해, 긍정적인 자아개념,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구분되며, 학업발달 영역은 일과 학습, 진로·취업을 위한 학습, 학습기술로 구분된다. 직업발달 영역은 직업의 세계, 진로정보의 수집 및 활용, 바람직한 직업가치관으로 구분되며, 진로계획 영역은 의사결정의 방법 및 기술, 계획수립 능력, 진로계획 수립으로 구분된다. 직업생활 영역은 바람직한 일의 습관, 대인관계 기술, 평생학습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초·중·고등학생별 수준에 맞는 진로발달 내용이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III-5> 학교급별 진로발달 종합

목표영역		수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아인식	자신에 대한 이해	- 자신의 기본적인 특성을 인식한다.	- 자신의 성격, 적성, 흥미 등 구체적인 특성을 탐색한다.	-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탐색한다.
	긍정적인 자아개념	- 자아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 내가 생각하는 자신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인식한다.	-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한다.	-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	-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학업발달	일과 학습	- 일과 학습의 관계를 인식한다.	- 직업생활과 관련된 학습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 미래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직업능력을 안다.
	진로·취업을 위한 학습	- 자신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학습의 이점을 안다.	- 직업생활을 위한 기초 지식 및 기능을 획득한다.	- 진학 및 취업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선택한다.
	학습기술	- 기초적인 학습기술을 습득한다.	- 효과적인 학습기술을 습득한다.	- 자신에게 맞는 학습양식을 습득한다.

<표 계속>

목표영역		수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직업 발달	직업의 세계	-	일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일의 사회경제적인 기능 및 필요성을 이해한다.	일의 세계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한다.
	진로정보의 수집 및 활용	-	진로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다양한 진로정보 수집 경로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	확정한 진로정보를 해석·평가할 수 있다.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안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다양성을 안다.	바람직한 직업가치관의 중요성을 안다.
진로 계획	의사결정의 방법 및 기술	-	의사결정에 대한 기본 지식을 획득한다.	의사결정 기술 및 과정을 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기술을 안다.
	계획수립 능력	-	계획적인 생활습관을 갖는다.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장기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진로계획 수립	-	계획적인 진로설계의 필요성을 안다.	자신의 특성에 따른 잠정적 진로를 선택한다.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직업 생활	바람직한 일의 습관	-	바람직한 습관의 중요성을 안다.	직업생활에서의 습관의 중요성을 안다.	바람직한 일 습관을 알고, 이에 따라 자신을 개발한다.
	대인관계 기술	-	다른 사람과 협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	타인들과 관계하는 여러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자신이 선정한 진로에 요구되는 대인관계기술을 개발한다.
	평생학습	-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안다.	자신에게 평생학습이 필요한 이유를 인식한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한 평생학습이 무엇인지 안다.

자료: 정철영 외(2004).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서 개발.

제2절 국내의 청소년 진로개발 현황 분석

1.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관련 법령 및 행정체계

가.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관련 법령

청소년의 진로개발 지원은 교육 관련법에서 청소년의 진로개발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의 진로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개발과 관련이 있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교육기본법에서의 진로개발

교육기본법에서 진로개발과 관련된 조항은 제2조, 제3조, 제21조 등을 들 수 있다. 제2조에서는 교육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목적을 세우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학습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진로교육이 진학이나 졸업 후의 진로선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전 생애 걸친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을 추구하여 지속적인 고용가능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과 맥락을 함께 한다(진미석 외, 2006). 그리고 제21조의 직업교육에 관한 조항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제2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의 진흥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업에 대한 소양 계발을 위한 교육이 진로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최동선 외, 2005).

2) 초·중등교육법에서의 진로개발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서는 학교 및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 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과거의 교도교사 양성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선 학교에서의 학생상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2004년 2월 17일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등학교와 함께 초등학교에서도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진미석 외, 2006; 최동선 외, 2005).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지도 등을 위하여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한 자료인 학생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제25조),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개인적 필요와 작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 및 교육내용이 정해져야 한다고 제48조에 규정하고 있다.

3)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서의 진로개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교육 관련 법령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진로교육(또는 진로지도)’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령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법률 제3조에 의한 진로지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는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 진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및 배치, 진로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 진로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진로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등의 비교적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 법령을 교육관련 법령 가운데 진로교육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이라는 산업교육의 테두리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법령에서는 산업교육을 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또는 과

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이 학생에 대하여 농업, 수산업, 해운업, 공업, 상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외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등의 진로교육에 관한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진미석 외, 2006).

4)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을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에서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지도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의 국가적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학생 및 근로자에게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진로교육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행정체계

우리나라의 청소년 진로개발과 관련된 행정은 다부처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부처적인 접근은 형평성 미흡의 문제, 업무 중복에 대한 총괄·조율장치의 미비, 상호 이익 추구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기반 열악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최동선 외, 2008). 진로교육과 관련된 정부부처들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국방부 등이 있으며, 담당 부서와 담당업무는 <표 III-6>과 같다.

<표 III-6> 정부 부처의 진로교육 관련 업무 분장 내역

부처	담당 부서	관련 담당업무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진로취업지원과	• 진로교육, 우수인력 양성대학 지원
		산업인력양성과	•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계약학과 운영 • 혁신인력양성
		과학기술인력과	•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기본시책 수립·추진 • 국내외 과기인력교류, 기타 인력정책
	평생직업교육국	잠재인력정책과	• 지역인적자원개발 •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양성평등교육 •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 여성, WISE, WIE, 특화진로, 군
		전문대학지원과	• 전문대학 특성화 • 전문대생 해외 인턴십 • 전문대근로장학생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진흥 • 지자체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학습축제
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	• 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 민간위탁, 한국 고용정보원 관리, 고용지원센터 홍보 • 취업지원업무내실화, 직업진로지도	
	고용정책실	청년고용대책과	• 청년고용정책수립 및 보완 • 청년실업종합대책 및 추진 • 청년층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YES) 계획수립·시행 •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관련 사업 등 청년취업 지원 • 해외취업 지도·감독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활동정책실	아동청소년권리과	• 청소년 취업, 창업 지원(사이버멘토링, 진로상담) • 진로지도와 실업해소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 위기(가능)청소년 사회진출을 위한 연결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 인턴취업 및 직업 체험프로그램 등 진로지도 및 실업해소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노인지원과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 및 관리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 시니어클럽 육성 및 지원

<표 계속>

부처	담당 부서		관련 담당업무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정책국	장애인소득 보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산업기술기반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기술인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 엔지니어링 인력양성 등
		소프트웨어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및 통계관리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인력육성
		부품소재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재 기반구축(인력양성, 신뢰성평가기반 등)
		디자인브랜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인력양성
	에너지 자원실	에너지기술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인력양성 사업
자원개발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개발 인력양성, 자원개발 R&D사업 관리 	
여성부	여성정책국	인력개발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경력개발·취업촉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국방부	인사복지실	전직지원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직업보도 업무

자료: 최동선(2008), 학생의 소질 및 적성 관련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초·중등학교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이 밖에 청소년 진로개발에 대한 지원 체제로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전담 부서를 들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단위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도교육청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하고 체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진로교육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지역진로정보센터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16개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지원 활동에 대해 종합하면 <표 III-7>과 같다.

<표 III-7> 16개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지원 활동

(단위: 천원, 명)

시도	예산		전담부서			
	2007	2008	시도 교육청	교육연구 정보원	교육 연수원	지역 교육청
서울	1,075,562	1,085,698	3	2	1	-
부산	168,080	291,894.6	1	2	1	11
대구	283,045	290,330	4	-	1	-
인천	94,200	110,214	1	2	-	5
광주	82,999	345,953	3	1	1	4
대전	193,589	240,122	11	4		4
울산	122,960	130,224	1	1	1	4
경기	1,243,250	1,840,550	4	1	-	-
강원	973,386	999,885	5	2	-	-
충북	21,590	34,410	7	3	-	38
충남	363,439	420,064	3	2	1	15
전북	75,400	242,960	5	1	1	-
전남	148,018	389,953	2	1	-	-
경북	644,985	751,425	4	2	1	-
경남	186,220	125,110	3	-	-	-
제주	7,750	8,750	1	-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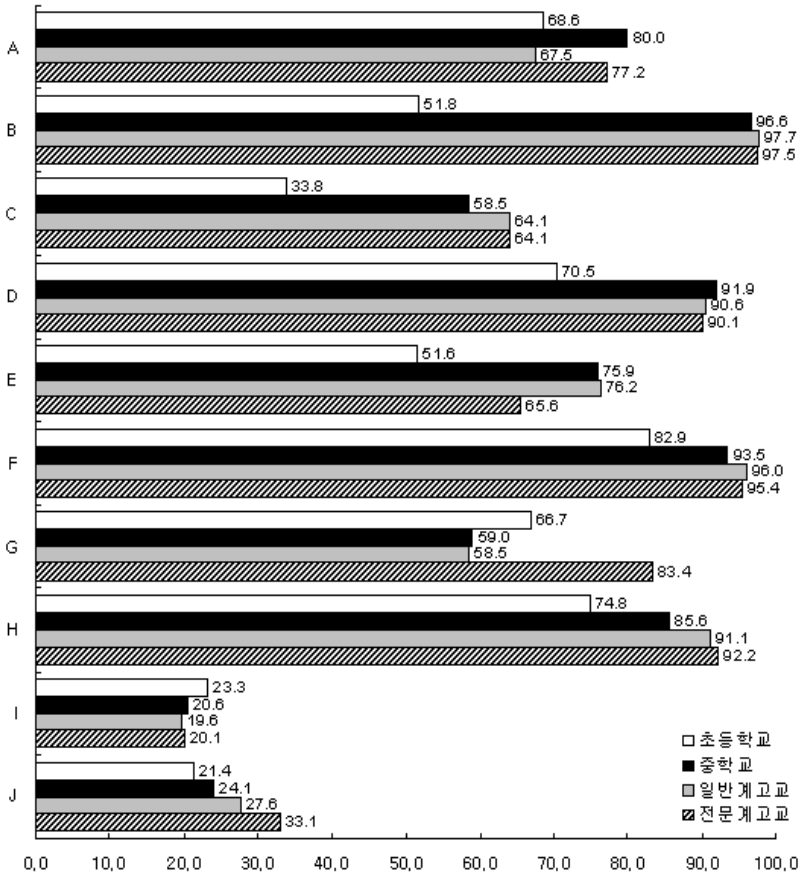
자료: 최동선(2008). 학생의 소질 및 적성 관련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초·중등학교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2. 학교교육에서의 진로개발 현황

학교 차원에서의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1976년 대통령 연두 순시에서 지적된 문교행정의 '재수생' 문제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은 1982년 유니세프지원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되는 보고서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렀다(김중기, 1992; 장석민, 1999; 이지연 외, 2005, 1999).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의 특징은 심리검사와 진로정보 등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정보 제공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진로관련 심리검사 실시, 오프라인에서의 진로정보 제공, 상급학교 진학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온라인

에서의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현장 진로체험 실시,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커리어 포트폴리오의 운영 등을 실시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최동선 외, 2008).

[그림 III-1]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진로교육 유형



주: A=진로 관련 행사나 활동 운영 B=진로 관련 심리검사의 실시
 C=사이버 진로상담의 실시 D=오프라인에서의 진로정보 제공
 E=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실시 F=상급학교 진학정보 제공
 G=현장체험시 진로체험 실시 H=학교 및 학생의 특성 고려한 진로정보 제공
 I=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실시 J=커리어 포트폴리오 운영

자료: 최동선(2008). 학생의 소질 및 적성 관련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초·중등학교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가.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개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할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방침과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구성 방향 및 목표에 있어서 진로교육은 나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처럼 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구성 방향, 그리고 학교급별 교육목표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일관성 있게 강조되고 있으며, 이전에 비하여 단위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는 평가(장석민, 2001)를 받고 있지만, 교육과정 편제나 운영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송병국, 2002)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적과 아쉬움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으나 2007년 개정에서도 제7차 교육과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 또한 여전하다(최동선 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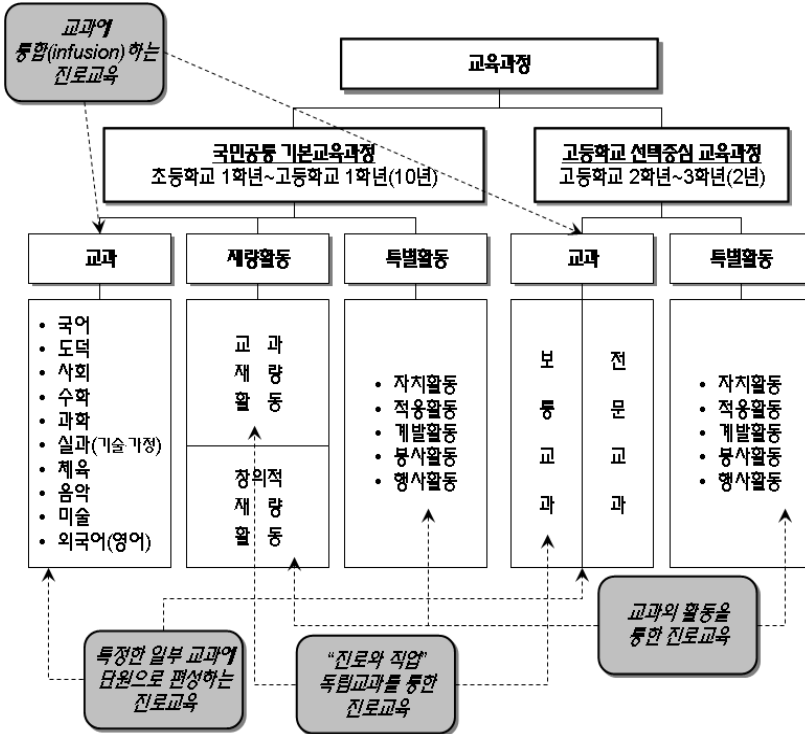
<표 III-8> 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목표에서의 진로교육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목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 폭 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 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 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 하는 경험을 가진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자료: 최동선(2008). 학생의 소질 및 적성 관련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초·중등학교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구성되며,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와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편제에서 진로교육은 ① 독립된 교과를 통한 방법, ② 특정한 몇 개의 교과에 단원으로 편성하는 방법, ③ 교과에 통합(infusion)하는 방법, ④ 교과 외 활동을 통한 방법 등이 혼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III-2] 참조).

[그림 III-2] 7차 교육과정의 편제와 진로교육 운영 방안



자료: 최동선 외(2008).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와 추진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 밖에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은 독립된 교과 즉, ‘진로와 직업’을 통해 실시하는 방법과 일부 교과의 단원에 포함시키는 방법, 보통교과에 통합하는 방법, 교과 외 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진로교육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표 III-9>와 같다.

<표 III-9>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을 운영한 방법에 따른 장점과 단점

구분	장 점	단 점
독립된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에 관한 집중적인 학습 가능 초·중등 진로교육의 독자적인 정체성 확보 보다 전문적인 지도가 가능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이 가능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과의 연계를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의 내용이 진로선택 등에 한정되어, 다양한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에 제약이 나타날 우려 진로교육의 전문성이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될 가능성 팀 티칭의 장점 활용 곤란
일부 교과의 단원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수준의 전문성 보장 경우에 따라서는 팀 티칭의 장점을 활용 지속적인 진로교육이 가능 국민공통기본교과에 포함되는 경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이며 집중적인 진로교육이 어려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데 시간적인 제약
보통 교과에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상황에서 진로·직업적인 요소를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개발 동기를 유발 교육과 직업세계를 연결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 보통교과의 학습동기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단편적인 지식의 제공에 그칠 우려 일관된 진로교육의 어려움 각 교과와의 치밀한 사전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융두사미에 그칠 가능성
교과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체험, 탐구학습, 소집단활동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이 가능 학교의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운영 가능 학생들의 요구에 즉각 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단편적이며 일회적인 활동으로 그칠 가능성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움

자료: 최동선 외(2005).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페이퍼.

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을 통한 진로개발

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의 진로교육은 교과 이외에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표 III-10> 참조). 초등학교의 경우 재량활동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의 하나로서 진로교육을 선택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창의적 재량활동과 교과재량활동을 통한 직업 진로교육이 가능하다. 전체 중학교 중 창의적 재량활동의 하나로 직업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47.0%이나, 학교별로 할애하는 시간은 매우 다양하다. 한편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교의 29.3%가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하여 직업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재량활동에 포함된 경우는 29.2%이다(임언, 2005).

<표 III-10> 초중등학교에서 재량 및 특별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학교 급별	영역	운영 내역	비고
초등 학교	재량 활동	• 범교과 학습 주제로 선정	60~68시간
	특별 활동	• 5개 영역 중 관련 영역 활동 포함	30~68시간
중 학 교	재량 활동	• 창의적 재량활동: 범교과 학습 주제로 선정 ※ 전체 학교의 47.0%	34시간
		• 교과 재량활동: 선택과목으로 개설 가능 ※ 개설 학교는 거의 없음	102시간
	특별 활동	• 5개 영역 중 관련 영역 활동에 포함	68시간
고등 학교	재량 활동	• 창의적 재량활동: 범교과 학습 주제로 선정 ※ 전체 학교의 29.3%	34시간
		• 교과재량활동: 선택과목 개설(진로와 직업) ※ 전체 학교의 29.2%	68~102시간
	특별 활동	• 5개 영역 중 관련 영역 활동에 포함	68시간

참고: 특별활동 5개 영역 중 관련 영역 및 세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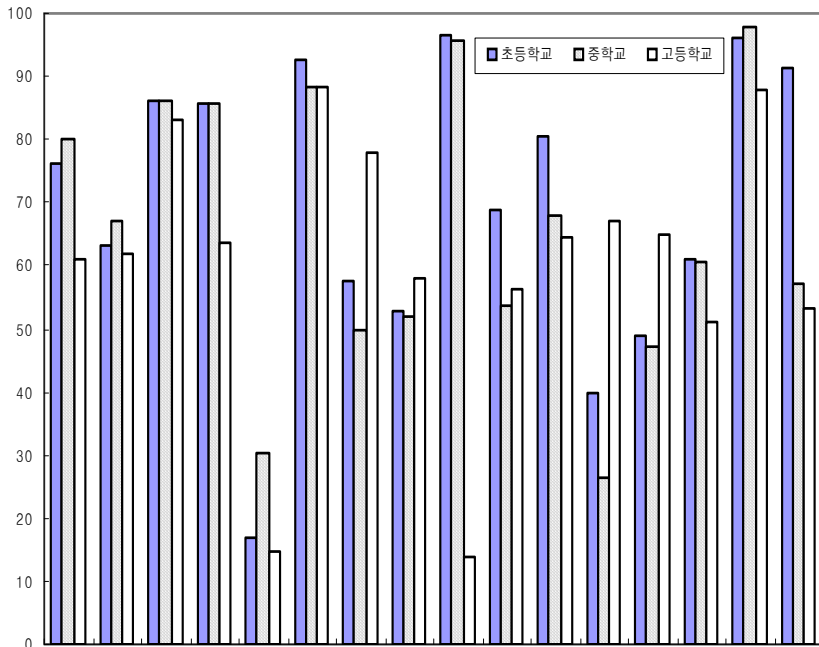
- 적응활동: 상담활동, 진로활동, 정체성 확립 활동 등
- 계발활동: 실습노작 활동, 여가 문화 활동 등
- 봉사활동: 일손돕기 활동 등
- 행사활동: 학예행사 활동 등

자료: 임언(2005). 직업진로교육의 실태 및 과제. 재구성.

한편 이지연 외(2005)의 조사결과 중·고등학교의 50% 정도가 교과활동 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시간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최근에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진로교육 운영을 위한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최동선 외, 2008).

[그림 III-3] 각 시도별 창의지도 시간내 진로교육 운영 비율(2007)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참고: 시도별로 '창의지도'의 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다르다는 점이 결과 해석에 고려되어야 함.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창의적 재량활동의 50%를 ICT 교육에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창의적 재량 활동 가운데 3~6시간 정도만 진로교육에 활용할 뿐임. 따라서 '창의지도'의 개념에 따른 시도별 데이터가 다르게 구성되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함

자료: 최동선 외(2008).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와 추진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다. 진로교육 담당 인력 현황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가 진로교육을 담당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 진로교육 참여 형태에 따라 학교 내부 인력, 학교 외부 인력, 학교 진로교육 지원 인력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사 인력으로 진로상담부장과 전문상담교사가 있다(이지연·이양구, 2001; 이지연·최동선·정일동, 2005). 학교 밖에서 진로 및 직업 관련 상담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학교 진로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상담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시·도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 등에서 지원하는 교육전문직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가운데 학교 진로교육 역량 확충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내부 인력, 즉 진로상담부장과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순회교사 포함)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진로상담부장

진로상담부장은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상담, 학생 이해를 위한 검사 및 진로 지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학교의 진로상담부가 추진하는 진로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직교사이다.¹⁾ 진로상담부장은 당해 연도 학교 교육계획에서 진로상담부가 추진하는 진로체험의 날 운영, 진로정보 자료실 운영, 진로시간 운영, 학년별 진로탐색장 작성, 진로표준화검사(진로탐색검사, 진로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등) 실시, 진로정보 자료 게시 등의 진로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학생들의 소질·적성 계발을 위한 진로탐색활동 계획, 교과교육 및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과 연계한 진로지도 계획, 연간 진로상담 운

1) 전국적으로 진로상담부장의 활용 현황에 대한 논의는 공개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일부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04년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서는 중학교의 72.9%, 일반계고교의 91.1%, 전문계고교의 90.9%가 진로상담부(실)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학교에서 이러한 조직이나 공간을 담당하는 진로상담부장이 배치·활용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영 계획 등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진로교육을 수행한다. 학교 진로교육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진로상담부에서는 진로교육 업무 이외에 인성교육에 관련된 업무도 함께 담당하기도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진로상담부장과 같은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진로상담부장을 포함한 이들 보직교사의 명칭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그리고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와 이들의 업무 분장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²⁾ 이에 따라 진로상담부장을 포함하여 이들 보직교사의 임용은 해당 부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학교의 학교장이 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임용하며, 학교별로 진로상담부장 혹은 학생복지부장, 상담부장 등 종류가 다양하다.

현재 진로상담부장 보직제도가 진로교육 운영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지적되고 있다(최동선 외, 2005). 첫째, 진로상담부장이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여타 보직교사들처럼 진로상담부장은 주당 16~18시간 정도의 수업과 행정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상담할 시간과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진로상담부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³⁾ 보직교사 임명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정에 해당함에 따라 연령이 높거나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를 임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진로상담부장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춘 진로상담부장까지 그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

2) 이들 진로상담부장의 배치 기준은 「교육법시행령」에서, 그리고 자격 및 역할은 「주임교사임용규정(1997. 4. 22 폐지)」에 의거하였으나 학교에 대한 자율성 부여로 현재 교육법령에서는 이들에 대한 자격요건은 폐지되었음. 또한 2008년 4월에 발표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된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교육규칙으로 이양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3) 2003년 8월 21일에 제정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41호)」 제34조에서는 “임용권자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의 2004년 5월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학급담임 배정이나 보직교사 임명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학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학교장이 모든 교사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는 조항에 비춰볼 때, 최근의 보직교사 임명 과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이나 경력을 고려하려는 경향이 증가할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단체협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도 높다는 현실에 비춰볼 때, 모든 학교에서의 공통된 의견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음

다. 셋째, 교사들은 학교를 이동하거나 담당학년이 바뀔 때마다 보직이 변경되기 때문에 진로상담부장이라는 보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진로교육과 상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의 축적이 어렵다는 것이다.

2) 전문상담교사

일선 학교에서의 전문적인 진로교육 운영의 주체로 과거의 교도교사 제도를 보완하고 학교에서의 학생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전문상담교사’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2004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②항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 필수이수 과목으로 진로상담이 지정되어 있으며, 선택이수 과목에는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하는 역할의 하나로 진로 및 직업에 관한 사항을 꼽는데, 많은 연구에서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금명자, 2007; 김희대, 2006; 박영숙 외, 2007).

전문상담교사의 양성·활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일선 학교에의 배치 및 활용에서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상담교사는 매년 2~3천 명이 배출되는 등 다수의 자격 소지자를 배출하고 있으나, 2007년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197명에 불과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5년에 308명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지역교육청에 배치하였고, 2009년까지 학교당 1명의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정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오호영 등(2007)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진로교육 전담 전문상담교사를 보유한 비율이 중·고교의 경우 5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I-4] 참조). 이는 지금까지 다수의 전문상담교사가 양성되었으나 현직 교사가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소지하면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제도가 기대와 달리 일선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III-11> 전문상담교사 과정 이수 교사

(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합계
2000	1,567	1,611	158	3,336
2001	1,947	1,609	118	3,674
2002	1,958	1,757	17	3,732
2003	1,551	1,296	9	2,856
2004	-	-	-	2,766
계	7,023	6,273	302	16,363

주: 1) 교육대학원에서 18학점 이상 이수

2) 2004년도 8월부터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의 초등/중등 구분이 없어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등 7개 부처(2005). p.54.

<표 III-12> 학교급별 전문상담교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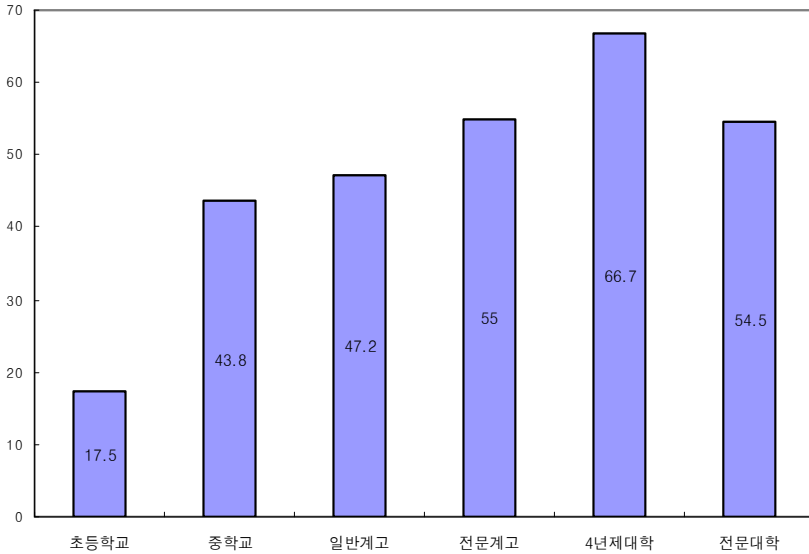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교	전문계고교	계
2004	8	3	26	13	50
2005	1	22	13	12	48
2006	-	6	8	3	17
2007	4	57	28	108	197

주: 교육통계연보(각연도)의 학교급별 직위별 교원 현황을 근거로 한 것임

[그림 III-4] 학교 내 진로교육 전담 전문상담교사의 보유 비율

(단위: %)



자료: 오호영·이지연·윤형한(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pp. 165-167.

전문상담교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과정에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⁴⁾ 여기에는 진로나 진학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전문상담교사가 단위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전담’할 인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관된다. 즉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등 학생들의 비행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로 강조되고 있고, 진로교육이 전문상담교사 역할의 일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인해, 전문상담교사 개인의 취향이나 해당 학교 경영진의 시각 등에 따라서 진로교육의 적극성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전문상담교사의 진로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진로’와 관련한 사항은 필수과목의 하나로 진로상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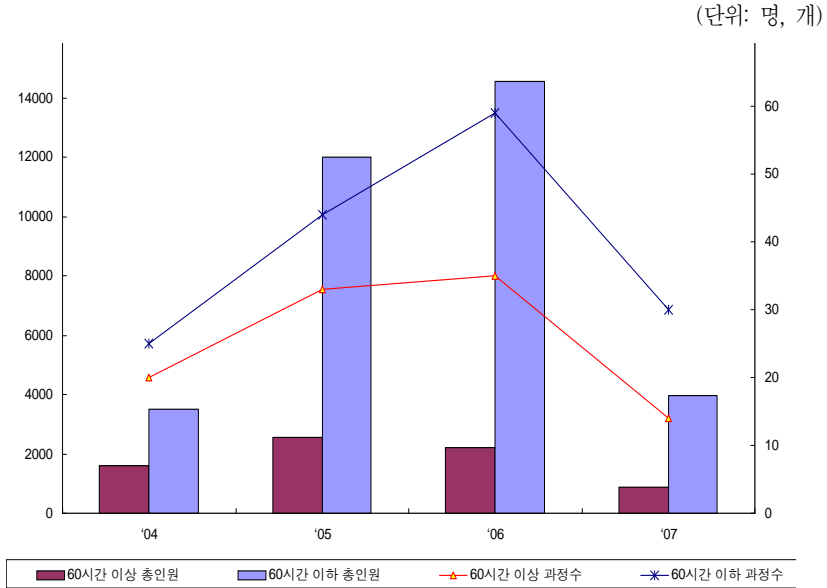
4) 김희대(2007: 박영숙 외(2007)에서 재인용)는 학교상담교사의 직무가 ① 상담 영역(개인상담, 집단상담, 매체상담, 심리검사), ② 교육 영역(생활지도, 연수), ③ 상담행정 영역(연간계획 수립개발평가), ④ 조정(co-ordination) 영역, ⑤ 자문 영역 등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지정되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전문상담순회교사의 경우 활발한 연수활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김희대, 2006), 이는 전문상담교사의 진로교육과 관련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전문상담교사가 단위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양성 및 재교육 과정에서의 진로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약한 현실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진로교육 관련 연수 및 재교육

우리 사회에서 진로교육 ‘전담’ 교사는 다른 교과는 담당하지 않고 진로교육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전담하거나 일부 교과 수업을 담당하긴 하지만 진로교육 업무를 주로 전문적으로 담당하기보다는, 교과 수업을 주로 담당하면서 공문 처리와 같은 진로교육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일부 시간을 할애하는 교사의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학교 내의 진로교육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연수 및 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는 교사 대상의 진로교육 연수를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는 진로교육 관련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자격연수 과정 등에 2~4시간 정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을 뿐, 60시간 정도의 비교적 장기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4년간 직무연수 과정수를 보면 2004년 60시간 이하 과정은 25개, 60시간 이상 과정은 20개 과정이 제공되었고, 2006년 각각 59개와 35개로 증가하였다가 2007년에는 30개와 14개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이와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그림 III-5] 참조). 이에 따라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자격연수나 일반연수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교육과학기술부 진로취업지원과, 2008), 단위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인력의 역할 및 요구되는 역량의 모호성, 현장에서의 활용을 전제로 하지 못하는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하여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림 III-5] 진로교육 직무연수 참가 인원 및 과정 수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08)

최근 진로지도 전문가 과정 개설 확대, 교장·교감·교육전문직 대상 진로 교육 연수 강화,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진로지도 역할 강화 등이 모색되고 있으나, 여전히 단위 학교에서의 활용을 전제로, 진로교육 관련 인력의 특성 및 역할에 따른 차별화된 연수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및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은 유효하다.

3. 기타 진로개발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가. 사회교육기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들 중에 학원과 같은 사설교육기관도 있다. 이들 사설교육기관에서는 주로 대학진학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지만, 그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도 일부 하고 있다(진미석 외, 1998). 이에 대해 이들 기관의 지원 활동의 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사설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설교육기관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협의회 등 지역사회에 기반한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도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대체로 학교와 연계하거나 학교의 의뢰를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진미석 외, 2006).

나. 진로정보센터

각 시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지역진로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학교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 상의 진로정보 및 진로상담은 담당 인력이나 예산 규모 면에서 지역의 진로교육을 주도할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콘텐츠를 링크하는 수준이거나 교수학습센터의 하위 요소로서 교육 자료를 탑재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임언 외, 2005; 진미석 외, 2006).

<표 III-13> 지역별 진로정보센터 운영 내용

설치 기관	On/Off line	제공서비스
서울시 교육연구원	On/Off line	• 대입/고입진학정보, 직업정보, 자격정보, 체험학습장, 전문가와의 만남 등
부산시 교육연구정보원	On/Off line	• 초·중·고·교사·학부모에게 각종 진로정보 및 상호 정보교환, 사이버진로상담 등
인천시 교육과학연구원	On line	• 진로직업지도 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광주광역시교육청	On line	• 전문계고 홍보, 중학생 진로지도, 진학·취업정보, 진로상담
강원 교육과학연구원	On line	• 진로탐색
충북 교육과학연구원	On line	• 진로진학상담, 진로자료실 운영, 진로상담 관련 사이트 안내
충남 교육과학연구원	On line	• 진로정보 제공 • 사이버 상담
경남 교육과학연구원	On line	• 진로정보 제공 • 진로상담

자료: 정철영(2005).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찰. 재구성.

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심리검사와 직업 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개발하여 커리어넷 상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용 심리검사로는 직업흥미검사, 직업적성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가 있으며, 대학생용으로 진로개발 및 전공과 관련된 각종 검사가 탑재되어 있다. 심리검사와 다양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진로탐색 시스템을 시리즈로(아로 I, II, III, 아로플러스, 아로주니어) 개발하였으며,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책자 및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였다. 그 외에 진로상담을 위한 매뉴얼과 직업 및 학과 정보를 개발·보급하고 있다(임언, 2005).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청소년(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종합하면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연도	대상			
		초	중	고	대
진로지도 프로그램 아로 I	1998		○		
진로지도 프로그램 아로 II, III	1999		○	○	
아로플러스	2002		○	○	
진로캡슐(Career Capsule)	2001	○	○		
아로플러스를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2003		○	○	
커리어비전: 이공계학생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2004				○
아로주니어: 신나는 직업여행	2004	○			
직업흥미검사	1998		○	○	
직업적성·성숙도·가치관검사	2001		○	○	
진로개발준비도, 이공계전공적합도, 주요 능력효능감 검사	2004				○
중학생 진로탐색을 위한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	2001		○		
중학생 Plus 직업사전	1999		○	○	
미래의 직업세계(학과편) 미래의 직업세계(직업편) 미래의 직업세계 CD-ROM	2003, 2004		○	○	
IT, CT, ET 직업의 세계	2002-2004		○	○	
땀방울에 비친 그녀들의 이야기	1999		○	○	

자료: 임연(2005), 직업진로교육의 실태 및 과제, 재구성.

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전 중앙고용정보원)에서도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심리검사(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 청소년용 직업적성검사), 진로와 직업 교과서(초·중·고교용), 초·중등학생 및 대학생용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업 및 학교정보(직업사전, 직업전망서, 이공계전공안내서)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하였다. 그동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유형으로 직업검사(적성검사, 선호도검사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성취, CAP, 연

수/교육(초·중등교사, 대학실무자, 직업상담원 등), 직업정보(한국직업정보시스템,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직업정보시리즈 등)로 구분할 수 있으며(임원, 2005),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종합하면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명	연도	대상	형태
직업 심리검사	직업흥미검사	2002	청소년	1, 2
	적성검사	2002	청소년	1,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오프라인)	청년층취업지도프로그램 (CAP)	2002	청년	1
	직업체험프로그램 (Job School)	2003	청소년	1
관련 프로그램	직업 찾기 게임 (Job Game)	2003	청소년	2
	직업관련 동영상	1995~	공용	2, 4
교과서	(초등학교) 진로와 직업	2004	청소년	2
	(중학교) 진로와 직업	2003	청소년	2
직업정보시스템	한국직업정보시스템 (노우)	2003	청소년	2
한국 직업전망	한국직업전망서	1999	공용	1, 2
	정보통신직업전망	2001	공용	1, 2
	한국직업전망	2005	공용	1, 2
	미국직업전망	2004	공용	1, 2
	이공계학과 및 직업전망	2003	청소년	1
한국 직업사전	한국직업사전 (1판)	1986	공용	1, 2
	한국직업사전 (2판)	1995	공용	1, 2
	한국직업사전 (3판)	2003	공용	1, 2
직업정보 시리즈	영화로 보는 직업이야기	2001	공용	1
	남과 북의 직업	2001	공용	1
	유망직업 33선	2002	공용	1
	학과정보	2004	청소년	1, 2
	직업지도 (Job Map)	2004	공용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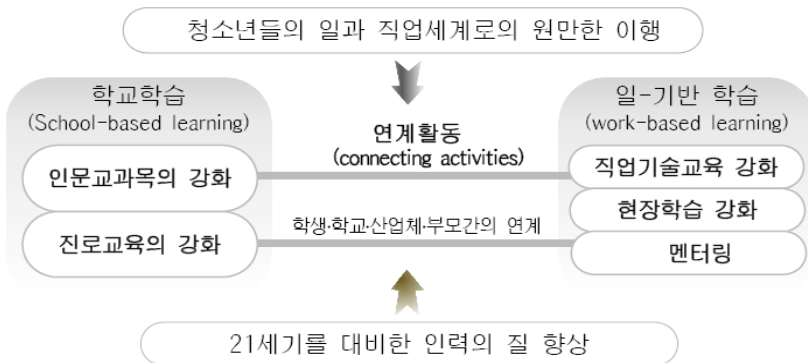
자료: 임원(2005). 직업진로교육의 실태 및 과제. 재구성.

제3절 국외의 청소년 진로개발 현황 분석

1. 미국의 진로개발

미국의 청소년 진로개발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학교에서 일의 세계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STWOA(School-to-Work Transition Opportunity Act)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STWOA는 기존의 교육개혁안과 연계를 맺으며 학교와 일터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교육개혁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 역시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for all students)들을 대상으로 하되, 취약계층의 학생들에 부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STWOA에서는 이 정책이 포괄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교학습의 개선(schoolbased learning), 일-기반학습 강화(work-based learning), 그리고 연계활동(connecting activities)의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진미석 외, 2006). 이 중에서 학교학습에서 진로교육의 강화를 주요 요소로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개발에 관한 정책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III-6] 참조).

[그림 III-6] School-to-Work Opportunity Act의 교육요소 구성



자료: 진미석 외(2006). 직업진로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진로개발지원 정책.

가. 중앙정부 차원의 진로개발 지원체제

정부에서는 진로개발 지원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구심체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변동하는 노동시장에 따라 변화하는 고용 상황과 관한 정보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가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1976년 중앙직업정보 조정위원회 NOICC(National Occupational 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NOICC의 기능은 크게 직업 및 진로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Career Information Delivery System) 구축을 지원하고 국가적 진로개발에 관련된 정책방향과 지침(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 NCDG)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NCDG는 학교, 고용 및 훈련 서비스 센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일터로의 전환(STOW) 프로그램들의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 이 지침들은 40개 이상의 주정부의 One-Stop Career Centers와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NCDG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양한 수준의 종합적인 능력기반(Competency-based)을 계획하고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준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NOICC는 부설 CDTI(Career Development Training Institute)를 통해 직업훈련이나 진로지도 서비스 관련 영역의 직원들의 연수와 훈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및 운영

직업 및 진로지도를 위해 지역주민이 쉽고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서비스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지원을 위하여 Career center 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성인 대상으로는 Employment center 체계로 양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이 쉽게 정보와 진로 지도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지역 진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진로지도센터는 대상별로 대체로 이분화되어 있는 데, 청소년을 위한

진로센터로서 Career Services 혹은 Career Center를 구축하고 있고, 성인을 위한 센터로는 고용센터 Employment Center 혹은 Employment Service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의 개념이 점차 강화되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이 두 개념을 통합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즉, 청소년을 위한 진학, 진로지도와 성인을 위한 고용, 직업지도는 개인의 생애개발이라는 관점과 평생 학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연계되어야 하는 요소라는 관점이 힘을 얻으면서 이들 체제를 통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One-Stop Career Center의 개념에는 전 연령과 발달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개발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다. 수요자 중심 직업진로정보망 구축 및 운영

최근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산화된 진로정보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LX(America's Learning Exchange), 각 주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로 정보전산 시스템(Computerized Career Information Delivery System)'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진로정보망 구축에서 볼 수 있는 경향은 수요자 중심에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정보망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종 수요자를 위한 것이므로 이들이 보다 쉽게,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진로개발을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의 기회에 관한 정보, 그리고 직업 및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이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정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관리되어야 하고, 일종의 정보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정보 제공과 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다양한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대중적인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컴퓨터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한정된 전문상담인력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 전문상담인력의 보조도

구로써 또한 인터넷을 통한 수요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 등으로 수혜 계층을 넓힐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빠르게 발전되어 왔다. 1976년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s)에서 Systems of Interactive Guidance and Information을 개발한 이후 1980년도의 DISCOVER plus, 대부분의 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주직업정보시스템(State Occupational Information System) 등 다수의 성인들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컴퓨터 활용 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더 나아가 전문상담 인력의 보조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영국의 진로개발

가. 영국의 진로지도 관련 법규

영국 정부의 진로지도 실시 의무는 1973년 고용훈련법(Employment Training Act)에 ‘교육고용부로 하여금 중등,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진로지도와 정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특히, 1997년에 개정된 교육법(Education Act)은 학교가 학생들이 학교와 직업세계와의 원활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진로지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1997년 교육법에 포함된 진로지도 관련조항은 43조, 44조, 45조 세 조항이다.

43조에서는 진로교육의 개념규정과 아울러 학교의 의무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진로교육을 사람들을 자신의 진로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와 같은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규정하면서, 특수학교를 비롯한 모든 독립학교, 시립기술학교, 기타교육시설(pupil referral units)은 의무교육의 마지막 3년간 동안 학생들에게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3조의 구성은 <표 III-16>과 같다. 44조에서는 진로상담가(career adviser)에게 정보접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진로상담가의

개념규정을 내려주고 있다. 진로상담가는 관련되는 학생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 받아야 하고, 이것이 부모의 주소와 다를 경우, 부모의 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 관해 학교가 가진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나 18세 이상의 학생들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진로상담가들은 진로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개인적으로나 혹은 집단적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44조에서는 진로상담가를 Employment and Training Act 1973 10조 아래 규정된 방향이나 정책을 추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의해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학교나 대학에 의해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청(LEA)과 계약을 맺은 회사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45조에서는 진로도서실 구비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학생들은 최근작의 다양한 참고 자료와 지도/정보(guidance information)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일선학교는 그와 같은 정보를 학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충실한 진로정보자료실(library)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III-16> 영국 교육법 제 43조

영국 Education Act 제 43조 내용

- (1) 조항이 적용되는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의 교육기간 중 적절한 시기에 진로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2) 이 조항은
 - 일반 학교, voluntary schools
 - 기금 유지 학교
 -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이외의 maintained 혹은 grant-maintain 학교
 - 시립 기술대학, 예술적 기술을 위한 시립대학
 - pupil referral unit
- (3) 1항의 진로교육의 제공의무는
 - 위의 (a)에서 (c) 기관의 경우 학교의 이사회와 교장의 의무이며
 - 위의 (d)의 경우, 학교의 소유주와 교장의 의무이며
 - 위의 (e)의 경우 그 unit을 유지하는 지방교육청과 그것을 책임지는 교사의 의무로 둔다.
- (4) 1996년 496조와 497조(장관의 당연권)은 위 (3)항에서 부과된 의무와 관련하여, 496/497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을 언급하는 모든 사항은 (2) (d) 조항에 포함된 학교에도 적용되는 효력을 가진다.
- (5) 이 섹션의 목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의 적절한 단계란
 - (a) 학급 학생들 대부분의 나이가 14세가 되는 학년에 시작하여
 - (b) 학급 학생들 대부분이 나이가 16세가 되는 학년에 끝이 나는 시기를 의미한다.
- (6) 이 섹션에서
 - “진로”란 훈련, 고용, 직업 혹은 어떤 유형의 교육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 진로교육이란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하도록 준비시키거나, 그 결정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도록 계획된 교육을 의미한다.
 - 특정개인에 대비하여 “학급”이란
 - (a) 그가 정규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교수집단이거나
 - (b) 다양한 과목에 있어 다양한 집단으로 가르쳐진다면, 학교의 교장에 의해 지명되어진 집단 중의 하나이거나 학생 referral unit의 경우 그 unit 책임 교사에 의해 지명된 집단을 의미한다.

나. 학교의 진로지도 서비스 체제

진로지도 조직 영국의 경우 학교 내의 진로교육과 지도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책임교사는 진로지도조정자(Career Coordinator, 이하에서 CO라고 약함)인데, 거의 모든 학교에서 CO를 두고 있으며 명칭은 학교에 따라 진로담당부장(head of careers)등과 같은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며, 인성사회교육부(Personal Social Education)의 부장(head) 교사가 CO가 되기도 한다. 보통 CO의 행정적인 업무로는 첫째, CS와의 연계한다, 둘째, 외부 진로 상담가(Career Advisor)를 위해 프로그램을 조직한다, 셋째, 진로의 날 행사나 외부 인사들과 인터뷰 등과 같은 이벤트를 계획하고 조직한다, 넷째, 각 학년 교사들에 의해 사용되어질 교사용 자료 패키지를 활용한다, 다섯째, 진로정보영역의 유지하고 감독한다, 여섯째, 현장체험학습기회를 배정한다. 일곱째, 앞에서 본 CA가 방문하여 학교의 진로상담실이나 진로자료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상담이나 집단 상담활동을 하게 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첫째, 독자적으로 시간표를 가진 진로지도 시간이 있다. 둘째, 인성 및 사회교과(personal and social education PSE)내의 진로지도 시간으로 진로의사결정을 준비하고 진로에 관련된 면담, 현장경험, 이행 과정 등은 이와 같은 수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진로자료실에 대한 안내를 받기도 한다. 셋째, 통합 활동(integrated) 진로활동은 교과목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의 세계와 진로에 관련된 측면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 National Curriculum 교과목의 프로그램과 방법, 관점들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확대활동(extended activities) 현장학습이나 개인 상담 등은 학교교과시간 이외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이다.

영국의 학교들은 진로지도에 있어 산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강조되고 있으며 CO들은 연계 촉진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95%의 학교들은 지역산업체와 연계를 가지고 11학년 학생들에게 현장체험(work experience)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으며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기간은 1주에서부터 3주간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는 이와 같은 현장학습 사업체의 연계를 위하여 Education-Business Partnership이나 Project Trident와 같은 지원을 통하여 지역 컨소시엄을 활용하고 있었다. CO의 33%는 진로지도 관련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학교의 CO들은 진로지도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임무와 노력을 위해 일주일에 2시간 정도를 쓰고 있었다.

3. 일본의 진로개발

가. 문부과학성 산하 기관에서의 진로지도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74년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로지도 지침서를 간행하여 진로지도 담당자들에게 진로지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문부성, 1977). 학교에서는 진로지도위원회가 진로지도부를 설치하여 진로지도에 대한 기획조사, 정보 수집, 상담, 진학, 취직, 관찰 및 지도, 섭외 및 추후 지도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각 담당 부서에서는 필요한 계획을 세워 진로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고 학생들의 필요에 응하여 진학, 취직, 진로 상담에 관련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고교의 진로지도에 있어서는 학생이 사회인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몸에 익힘과 동시에 학교에서 배운 전문의 기초·기본을 살려서 졸업 후에라도 미래의 스페셜리스트를 목표로 여러 가지 장이나 기회를 붙잡아서 배움을 계속하려는 의욕이나 태도를 육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이나 사회인과 대화, 그러한 것에 기초를 둔 진로 학습을 입학 때부터 계획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행하여 학생이 미래에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직업이나 근로에 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지도하고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더 잘 적응하고 전문고교에서 배우는 의의를 이해하고 목적을 가지고 매일 매일의 학습이나 활동에 임하도록 입학 때부터 진로지도나 교육 상담을 충실

히 하고 입학 후 이른 시기에 직장 견학이나 직장 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나. 후생노동성 산하 기관에서의 진로지도

후생노동성 산하의 진로지도 기관으로는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와 공공 직업훈련 기관에서의 직업지도가 있다. 먼저 직업안정기관이 행하는 직업지도는 그 법적 근거로서 우선 일본헌법은 「어떤 사람도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다」(제2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제2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의 확립을 구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법이 소화 22년(1947년)에 제정되었던 것이다. 직업안정법의 목적은, 고용대책법(소화 41년)과 서로 어울려서, 공공에 봉사하는 공공직업안정소, 기타 직업안정기관이 관계행정관청 또는 관계단체의 협력을 얻어서 각 개인에게 그가 소유한 능력에 적당한 직업에 취업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업과 기타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하고, 선택한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제 부흥에 기여하는 것이다. 고용대책법은 일본 고용대책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서 195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발전해온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노동력부족 현상의 정착화 상황에서 현저해진 지역, 산업, 연령에 의한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하여 고용정책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기 위하여 소화 41년(1966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이것에 의하여 노동자의 직업안정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완전고용의 달성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지도는 昭和 33년(1958년)에 직업훈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적인 직업훈련제도가 발족하고, 직업훈련과 기능검정을 축으로 하여 기능노동자의 양성과 노동자의 기능 향상을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행의 직업훈련법의 목적은 노동자의 직업에 필요한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그 내용의 충실 강화와 그 실시의 원활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

고, 직업훈련 및 기능검정을 보급 진흥하고, 직업의 안정과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과 함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기본이념으로서 직업훈련은 노동자의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해 단계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기능검정은 직업에 필요한 노동자의 능력에 대하여 그 도달 수준의 평가를 적정히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직업훈련은 구체적으로 양성훈련, 향상훈련, 능력재개발훈련으로 구분된다. 이 직업훈련은 청소년에서 성인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성훈련은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향상훈련 및 능력재개발훈련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에 근무하면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노동계 기관의 직업지도는 노동관계법규의 원칙이나 기준에 기초하여 각종 노동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는 생애발달심리학, 생애학습의 관점에서 학교에서의 진로지도와 노동계·산업계에서의 직업지도의 협력, 연휴를 유지하면서, 진로지도, 직업지도의 충실·발전을 한층 촉진시키는 일이 요구된다.

4. 프랑스의 진로개발

가. 진로개발 관련 법령

프랑스는 교육기본법상(Droit Conseil d'Orientation)에 진로지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919년 이래로 프랑스에서는 진로지도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규정이 있어왔지만, 개개인의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도록 학습과 직업, 자격 획득을 위한 진로지도와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를 교육받을 권리로 명시한 것은 1989년 교육기본법에서라고 할 수 있다. 진로지도 관련 법령의 문구에서 진로지도에 관한 개념들이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985년: “학생들이 책임 있고 자율적 선택을 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
- 1989년: “학생들은 진로설정계획을 열망(희망)과 능력에 따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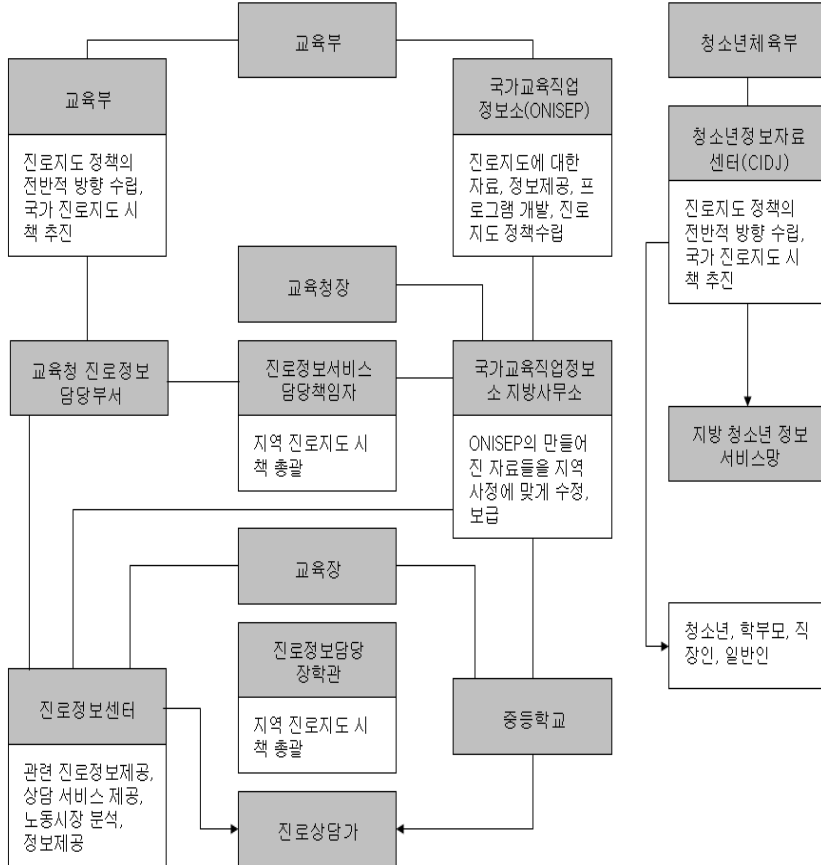
- 1990년: “진로설정은 중학생, 그리고 그 후 고등학생이 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이끌어 가는 사회적이고 직업적인 형성과 편입에 관한 개인적 계획을 설정하고 현실화하는 지속적인 과정의 결과이다. 그 누구도 대신하여 결정할 수 없다”
- 1994년: “진로설정의 준비는 학교의 완전한 임무가 된다. 그 준비는 제5학년 과정의 수업시간에 자리잡는다.”
- 1996년: “진로교육, 진로설정에 관한 개인적 계획의 작성은 지속적인 발전과 적응이 될 수 있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그것은 교육공동체의 중심에서 준비된다.”

관련 법령에서 진로교육의 개념의 변화와 확장을 볼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 진로지도가 진지하고 실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교육활동으로 다루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관계 법령에서 제시된 진로지도 개념을 보면, 진로교육(L'éducation à l'orientation)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에 능동적 주체(acteurs de leur avenir)가 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방법과 지식을 제공하며 이것은 완전히 학교에 부여된 임무가 되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로설정(orientation)의 과정은 진로설정은 중학생, 그리고 그 후 고등학생이 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이끌어 가는 사회적이고 직업적인 준비와 편입에 관한 개인적 계획을 설정하고 현실화하는 지속적인 과정의 결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로지도가 개인의 희망과 능력을 중시하며 직업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현실화하는 지속적인 과정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속에 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은 진로선택과 개척에 있어 개개인의 주체성과 직업성취에 있어서의 평등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진미석, 2000).

나. 진로개발 지원 체계

프랑스 국내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에 해당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진로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진로지도 담당장학관이 담당을 맡고 있다. 진로정보센터는 교육부 관할의 공공기관으로 각 지역의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며, 대학을 비롯하여 교육행정 구역별로 1~2개씩 설치되어 있는 등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진로정보센터는 중고생, 대학생,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담당구역의 학생들에 대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국가교육직업정보소(ONISEP, office national d'information sur les enseignements et les professions)는 교육부 출연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망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의 진로지도 담당은 학교교육실(Direction de l'enseignement scolaire) 내의 진로담당관(Mission de l'orientation)이 관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진로지도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국가의 진로지도 시책을 추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광역교육청에도 진로지도 담당관 SAIO(service academique des l'information et de l'orientation)가 있는데 이 장학관이 그 지역 진로지도 시책을 총괄하게 된다. 시·군·구 단위의 진로지도 행정은 inspecteur de l'Education Nationale/Information Orientation(IEN/IO)이 담당하게 되어 있고 지역교육청내 진로정보센터(CIO)를 관장하게 된다. 지역진로정보센터(CIO)는 지방교육청 소속으로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구가 CIO이다. 진로정보센터는 학교와는 별도의 기관으로 대부분이 지방교육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실 진로정보센터를 제외하고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센터의 수는 전국에 걸쳐 518개소이다. 고등학교 1~3개마다 하나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셈이다(진미석, 2000).

[그림 III-7] 프랑스의 진로개발 업무 체계



자료: 이지연 외(2003). 생애단계별 진로지도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방안.

다. 학교에서의 진로개발 체제

프랑스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학년위원회(Conseils de classe)이다. 이 위원회는 학생들의 진로 뿐만 아니라 유급여부도 결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사,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그리고 경우에 따라 진로상담가(conseil d'orientation

Psychologique) 등으로 구성된다.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학년위원회가 권위적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였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보장되었다.

중등학교의 진로지도는 교과활동에서부터 시작된다. 학생들이 진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경제 환경, 직업세계, 직업활동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은 프랑스어, 역사·지리, 기술, 물리, 생물·지학 등의 관련교과에서 다루어진다. 각 교과목별로 관련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각 교과 담당교사들은 학년 초에 진로상담가들의 도움을 받아 그 학년에서 다룰 주제들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각 교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교과활동 이외에 각 학교는 보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예를 들면 진로결정 시기에 임박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가, 외부로부터 직업세계 관련 전문가를 초대한다는가, 기업체와 연계하여 도움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장의 권한으로 실시된다.

프랑스의 모든 중등학교에는 정보자료센터(CDI:Centre de Documentation et d'Information)가 있다. 이 센터는 종래의 학교 도서관 기능을 확대 개편한 것인데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각종 학습자료와 진로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정보상담가들(documentalistes)이 있어 학생들의 정보탐색을 도와준다. 원하는 정보를 센터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 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학교 정보자료센터에서는 ONISEP, DRONISEP, 청소년정보문서센터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나온 진로관련정보를 비치하고 학생들이 쉽게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한다.

제4절 뇌의 발달과 청소년 적기적성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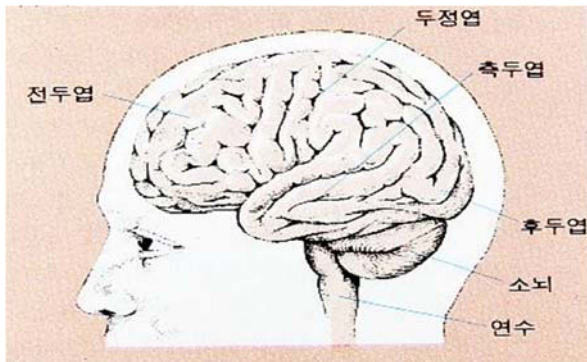
인간의 복잡한 행동을 주관하는 뇌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된 후 약 3주 경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는 처음에는 텅 비어 있는 관의 모양으로 시작되지만 발달하는 동안 관이 길어지고 관 주위의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주름과 홈이 생긴다. 길어진 관은 세 개의 상호 연결된 방을 이루게 되며, 각 방 주위의 조직들은 뇌의 주요한 세 부위인 전뇌, 중뇌, 후뇌를 형성한다. 뇌세포인 뉴런이 되는 세포들은 관의 안쪽 표면에 묻혀 있으며 뉴런으로 분화되어 중심에서부터 방사형으로 이동한다. 뉴런은 방사교세포라고 불리는 특수 섬유를 따라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특정의 위치로 이동한 후 다른 세포들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신체의 다른 세포들과 달리 뇌세포인 뉴런은 한번 죽으면 다시 생산이 되지 않으므로 뉴런의 과잉 생성은 당연하며,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 역시 과잉 생성된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과잉 생산된 뉴런과 시냅스는 인간의 발달과정 동안 선택적인 가지치기를 통하여 정리가 된다(우남희, 2004).

인간의 뇌 성장에는 기본적으로 20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인간의 뇌 발달 과정을 특징에 따라 구분해보면, 크게 0~3세, 3~6세, 6~12세, 12~15세, 15세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태어나서 3세까지의 뇌 발달 특징은 지의 뇌와 감정의 내 발달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지의 뇌는 균형 있는 기본 회로가 발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오감을 통한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감정의 뇌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같은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 특히 2세까지 대뇌피질의 회백질과 백질 용적이 빠르게 커진다. 이 시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과잉 선행 학습으로 인한 감정의 뇌 발달 장애(애착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3세 이후의 뇌 발달을 살펴보면 3~6세의 시기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성과 도덕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6~12세의 시기에는 측두엽과 두정엽 발달이 이루어진다. 측두엽은 언어의 뇌라고 할 수 있

으며, 이때 국어, 영어 등의 교육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제1언어 교육의 효율성이 12세 전후에 크게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반면 두정엽은 과학의 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입체 및 공간 등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한편, 12~15세의 시기는 후두엽(시각피질)이 발달하는 시기로 자기 정체성과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감성이 발달한다. 15세 이후에는 인지적 성숙과 유연성, 다양한 사고가 이루어진다. 기본적인 뇌 발달 후 적성 및 소질을 나타내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뇌의 발달은 개인마다 모두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발달 시기 및 정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뇌의 발달과 관련된 적기적성 교육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뇌 발달 과정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사람마다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등 발달 정도의 차이를 바탕으로 적성 분야를 찾아 교육시켜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림 III-8] 인간 뇌의 구조



제 4 장

특성화 학교 교육 현황 분석

제1절 특성화 학교 현황

1. 특수목적학교

특수목적고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 교육감이 ① 기계·전기·전자·건설 등의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② 농업 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③ 수산 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④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⑤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⑥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⑦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⑧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중에서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특수목적고는 1974년 예체능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예술고와 체육고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창의성 계발 및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이 설립되었다. 이 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교육감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목적

으로 특수목적고를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학고는 1987년부터 특수목적고로 인가를 받았고, 외국어고와 예술고는 1992년부터 특수목적고로 인가를 받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공업고를 포함한 일부 전문계고가 특수목적고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왔다(김영철, 2007).

특수목적고는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 자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범위는 전국 단위의 학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이 가능), 납입금 책정의 자율(사립 외국어고, 예술고에 해당) 등이다. 특수목적고(전문계 특수목적고 제외)는 2007년 3월을 기준으로, 과학고 19개교, 외국어고 29개교, 예술고 24개교, 체육고 15개교, 국제고 2개교 등 총 89개교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특수목적고 학생수는 과학고 3,724명, 외국어고 23,776명, 예술고 15,804명, 체육고 3,601명, 국제고 650명 등 총 47,555명이 재학 중이다(<표 IV-1> 참조).

<표 IV-1> 특수목적고 현황(2007년 3월 기준)

구분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계
학교수	계	19	29	24	15	2	89
	국립	-	-	1	-	-	1
	공립	19	11	6	14	1	51
	사립	-	18	17	1	1	37
학생수		3,724	23,776	15,804	3,601	650	47,555

주: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전문계고(공업, 상업, 수산, 해양) 제외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에서 재구성.

한편 특수목적중학교는 체육중과 예술중이 설립되어 있다. 체육중학교는 모두 공립학교로, 서울,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지역에 1개 학교씩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체육중학교의 총 학급수는 26개 학급으로, 77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78명의 교원이 재직하고 있다. 예술중학교는 모두 사립학교로, 부산 지역에 2개 학교, 전북지역에 1개 학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예술중학교의 총 학급수는 22개 학급으로, 56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41명의 교원이 재직하고 있다(<표 IV-2> 참조).

<표 IV-2> 특수목적중 현황(2008년 기준)

구분	체육중	예술중	계
학교수	7(공립)	3(사립)	10
학급수	26	22	48
학생수	772	565	1,337
교원수	78	41	119

자료: 국가교육통계 정보센터(2008). 교육통계연보.

2. 특성화고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이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특성화고는 크게 직업교육 분야 특성화고와 대안교육 분야의 특성화고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직업교육 분야 특성화고는 다양한 학생들의 능력·적성·흥미·요구에 맞는 특정 분야에서 집중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직업 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기 위한 학교이다. 특성화고는 일련의 도입과정을 거쳐 1998년 3월에 처음으로 부산디자인고가 특성화고로 개교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아래와 같이 2008년 4월 현재 170개교에 이르고 있다(<표 IV-3> 참조). 이는 전체 고등학교(2,144개교)의 7.9%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1998년 1개교, 1999년 8개교, 2000년 13개교, 2001년 5개교, 2002년 21개교, 2003년 6개교, 2004년 10개교, 2005년 10개교, 2006년도 17개교, 2007년도 79개교가 특성화고로 신설 또는 개편되었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성화고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 2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특성화고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강경중 외, 2007).

<표 IV-3> 특성화고 현황(2008년 4월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98		1															1
'99		3		1				1		1		1				1	8
'00		2	1					3	1		1			2	1	2	13
'01	1	2												2			5
'02		3		1	3	1		2		1	5	2	1		2		21
'03			1				1		1	1			1		1		6
'04		1	1		3	1				1	1	1		1			10
'05	4		1		1				3						1		10
'06	2		3	1				2	2			3	3		1		17
'07	12	7	7	4	2	4	4	5	5	4	5	3	6	8	1	2	79
계	19	19	14	7	9	6	5	13	12	8	12	10	11	13	7	5	17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8). 2008년 특성화고 현황.

한편 대안교육 분야의 특성화고는 정규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노작교육 등 자연친화적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는 1998년 6개교가 특성화고로 지정·고시된 이래 2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3. 자율학교

자율학교는 탈규제학교로서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한 학교이다.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학교 교육의 획일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등교육의 다양화·특성화 정책과 함께 학교운영의 자율성 신장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실험적 학교운영방안으로서 “탈규제학교(regulation-free school)”의 도입을 모색하여, 1998년 8월에 자율학교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999년 3월부터 자율학교의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을 기준으로 자율학교는 전국적으로 100여개 학교가 지정·운영되고 있다(김영철, 2007).

제2절 특성화 학교 운영 체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과 같은 고등학교들은 고등학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며, 자율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는 고등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고, 자율학교는 학교 운영을 자율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화 학교의 자율성 정도를 비교하면(<표 IV-4> 참조),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학교가 비교적 모두 자율성이 부여된 상황이며, 교원 임용권은 특수목적고는 자율성이 없는 반면 특성화고와 자율학교는 자율성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납입금 책정은 일부 제한적으로 자율성이 부과된 상황이다.

<표 IV-4> 특성화 학교의 자율성 정도 비교

구분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 임용권	납입금 책정	기타
특수목적고	O	O	X	△ (외국, 예술고만 자율)	
특성화고	O	O	△	△ (교육감지정 사립고교)	
자율학교	O	O	O (교장임용 자율)	△ (교육부장관 지정 학교)	법령상으로 교감자격, 학기제, 학년제, 수업연한 등도 자율

주: O는 비교적 자율성이 많은 경우이고, △는 자율성이 제한적으로 부여된 경우이며, X는 자율성이 없는 경우임

자료: 김영철(2007). 교교 시스템의 개선 방안.

또한 특성화 학교와 일반계고, 전문계고를 비교한 고등학교 유형별 성격을 살펴보면(<표 IV-5> 참조), 일반계고는 일반교육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국민기초교육으로서의 일반교과를 주요 교육내용으로 하며,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선발은 학군별로 내신 성적과 선발고사를 병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진로는 대체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형태이다. 전문계고는 농업고, 공업고, 상업고, 수산고, 해양고 등이며, 일반적인 산업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을 위한 학교 형태로, 일반교과와 전문교과를 병행하고 있다. 학생선발은 시도별로 주로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학생 진로는 취업 또는 진학을 하고 있는 형태이다. 특수목적고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이며, 특수 분야 전문교육과 특정분야 영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형태이다. 교육대상은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할 학생 또는 예체능, 과학, 외국어 등에 재능을 보유하고 심화교육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자율 편성 운영이 가능하며, 학생선발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선발하고 있다. 특성화고는 특정 전문교육과 대안교육을 위한 학교로, 특정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과 제도교육에 부적응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형태로, 교육과정은 자율 편성 운영이 가능하다. 학생선발은 전국단위로 선

발하며, 산학겸임교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율학교는 자율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감자격, 학기제,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자율성이 많이 부과된 학교형태이다.

<표 IV-5> 고등학교 유형별 성격 비교

구분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일반 전문계고	자율학교	
학교유형	-일반계고	-정보고 -디자인고 -자동차고 -만화고 -대안학교 등	-전문계고(기계공고, 자연농고)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농업고 -공업고 -상업고 -수산고 -해양고 -가사·실업계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농어촌고 -통합형고	
교육성격	-일반 교육	-특정 전문교육 -대안교육	-특수분야 전문교육 -특정분야 영재교육	-취업준비 교육	-학교유형별 성격이 다름	
교육대상	-일반교육 희망학생 (실제로는 대입준비 희망 학생)	-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 -제도교육 부적응 학생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할 학생 -예체능, 과학, 외국어 등에 재능 보유하고 심화 교육을 원하는 학생	-일반적인 산업 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	-자율학교 재학생	
교육내용	-국민기초교육으로서의 일반교과	-특정분야의 집중교육 -인성 위주의 창의적, 자연 친화적 교육 내용	-일반계 및 전문계와 유사하나 보다 중점적으로 특수 분야에 치중	-일반교과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교과	-학교유형별로 다름	
교육과정 운영	-국가교육과정	-자율 편성 운영	-자율 편성 운영	-국가교육과정	-자율 편성 운영	
학생 선발	모집 단위	-학군별	-전국	-전국 또는 시도	-시도별	-전국
	모집 방법	-내신성적 -선발고사 병용	-학교별 전형 (필기시험 지양)	-학교별 전형 (필기시험 불가)	-주로 내신성적	-학교별 전형 (필기시험 불가)

<표 계속>

구분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일반 전문계고	자율학교
학생진로	-상급학교 진학	-취업 또는 상급학교 진학	-취업 또는 상급학교 진학	-취업 또는 상급학교 진학	-
교원	-일반교원	-산학겸임교사 제도 활용 가능	-일반교원	-전문교과 교원 -일반교원	-교장공모 -산학겸임교사 제도 활용 가능
지정권	-	-교육감	-교육감	-	-교육감 -5년 이내 지정 운영, 연장가능
법적근거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 89조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 91조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 90조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 58조, 제 80조, 제 89조 등	-초·중·등 교육법제 61조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 105조

주: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율편성운영이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외에 자율편성 운영을 의미함

제3절 정보의 특성화 관련 정책

1.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

특성화고 육성과 함께 중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향후 방향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이다. 마이스터고는 일찍부터 직업인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을 전문인으로 육성하는 학교로(교육과학기술부, 2008a), 애니메이션, 정보통신, 조리 등 특화된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체제로, 2011년까지 50개교의 마이스터고를 육성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는 [그림 IV-1]과 같은 마이스터 career path를 따르는 것으로, 마이스터고 졸업 후 우량기업 등 안정적인 취업과 중단 없는 경력개발을 통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진로시스템을 구축하며, 취업 시 ①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②4년제 대학진학 시에 준하는 기간 입대연

기, ③관련분야 군 특기병으로 복무하는 제도를 확립하려 하고 있으며, 군 복무 또는 취업 후에도 U-military, 사내대학·계약학과 등 일과 학위취득을 병행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 자격증 취득, 해외진출 등을 장려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전문인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IV-1] 마이스터고 Career Path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안). p.2.

또한 마이스터고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적성중심 학생을 선발한다. 중학교 내신 외에도 소질과 적성검사, 자격증, 대회입상경력 등 학교별로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학교장이 전국단위로 모집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둘째, 산업계 맞춤형 학교운영을 한다. 이를 위해 산업체·직능단체 등의 위탁운영 또는 학교운영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유망분야에 집중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하고 교원을 확충하는 것을 추진한다. 셋째,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전면 자율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교육과정 전면 자율화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2 감축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으며, 전문교과 교재(유인물, 전자파일 포함)는 상시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교장은 교원자격 없는 현장 마이스터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교장은 공모를 통하여 임용하고 책임경영을 보장하며, 기존 교원은 학교장의 인사(추천)권 보장, 역량제고 연수를 강화하며, 마이스터 교원은 5년 이상 현장 경력자 중 우수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실습동·기숙사 및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할 계획이다.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기술·기능 숙련을 위한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시설·기자재·인력 등을 기업·대학 등과 공동 활용, 연계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계획으로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에 마이스터고 선정과정을 거쳐 2009년에 10개교, 2010년에 20개교, 2011년에 35개교를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2012년부터 50개의 마이스터고를 운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표 IV-6> 참조).

<표 IV-6> 마이스터고 확대 계획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과정	도입	분석	정착	확대
마이스터고 수	10개교	20개교	35개교	50개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a).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안)에서 재구성.

2. 정부부처, 지자체 및 산업체 지원 특성화고 육성 사업

운영주체의 다원화 및 개방적 학교 운영으로 정부부처, 지자체,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고 체제로 개편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0년까지 특성화고 300개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부처 위탁 지원 특성화고 육성사업의 경우 2008년 현재 6개 부처별로 106개교가 선정되었으며(<표 IV-7> 참조), 특성화 교육과정을 도입·적용하고 있는 단계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표 IV-7> 정부부처 위탁 지원 특성화고 육성 사업 선정 현황

전 부처	국방부	산자부 노동부	중기청	농림부	해수부	정통부	문화부	특허청	계
현 부처	국방부	노동부/중기청		농림수산식품부		지경부	문체부	특허청	
학교수	10	36	30	10	9	5	2	4	106
예산 (억원)	35	155.5		31.6	28	15	6	12.4	283.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7). 내부자료 재구성.

관련 산업 소관부처에서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3억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여 국가기간 산업 중심의 기초인력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자체, 산업체 협약에 의한 특성화고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지역혁신 산업 및 분야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교를 특성화 분야로 육성하고, 지자체, 지역 산업계가 협력·지원하여 지역산업발전 필요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경쟁력 없는 학교는 일반고, 통합형고로 전환을 유도하여 '20년까지 500개교로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과도한 대학 진학(72.9%, '08년), 산업계와 연계 미흡, 학령인구 감소 예측('20년 현재의 25% 예측), 산업별 직업군 재조정 등으로 전문계고의 기능 조정 및 수요인력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산업사회 중심의 교육과정, 계열 구분을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제4절 특성화 학교 운영 성과 및 문제점

1. 특성화 학교 운영 성과

가. 특수목적고 운영 성과

특수목적고는 고등학교 평준화의 보완 정책으로서 추진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특수목적 고등학교란 특수 분야의 전문적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과학고는 과학영재양성, 외국어고는 어학영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다. 이러한 특수목적고의 운영 성과와 관련하여 김경선 외(2003)는 특수목적에 맞는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여부, 지적 수월성 신장의 효과 여부, 학업성취 면에서 우수한 인재양성 여부, 현행 특수목적 고교의 자립형 사립고교 기능 수행 여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였다. 특수목적에 맞는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여부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39.3%가 ‘아주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31.3%, ‘적합하지 않다’와 ‘전혀 적합하지 않다’가 29.4%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특수목적고는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적 수월성 신장 효과에 대한 응답결과는 56.0%가 ‘효과적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가 25.2%, ‘비효과적이다’가 18.8%로 나타나, 교육의 수월성 확보에는 비교적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취 측면에서 응답자의 60.1%가 우수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강영혜 외(2007)에서는 과학고의 경우 과학영재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로 설립되었지만 국가차원에서 특수목적고의 역할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학고를 둘러싼 외부의 정책 환경변화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과학고와 과학영재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에서 멀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어고 역시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목적보다는 단순한 명문고로서의 기능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특수목적고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사교육 심화, 학교 간 계층분리 및 학교서열화 문제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김영철(2003)은 “특수목적형고교체제연구”에서 현행 특수목적고 중에는 특수 분야 영재교육이라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일류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잘못 활용되는 경우를 문제로 지적하였다. 나아가 정책적 측면에서 직업 분야 특수목적고의 경우 98년에 도입된 특성화고교와 차별성이 없으며, 다양한 유형의 학교들이 당시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덧붙여져서 논리적 체계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나. 특성화고 운영 성과

특성화고의 운영 성과에 대해 송달용 외(2008)에서는 BSC(Balanced Score Card)를 활용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BSC를 활용하여 특성화고의 성과를 크게 ① 달성도 영역, ② 효과성 영역, ③ 만족도 영역, ④ 비용 영역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학교, 교사,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표 IV-8> 참조).

<표 IV-8> 송달용 외(2008)의 특성화고 성과분석 영역 및 항목

성과분석 영역	성과분석 항목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교육계획의 달성 ▶ 특성화 교육계획의 추진 의지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 ▶ 특성화 교수학습활동 개선 ▶ 특성화 분야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활용의 개선 ▶ 특성화 분야 현장학습의 개선 ▶ 학생선발의 개선 ▶ 특성화 분야 진로지도 및 상담의 개선 ▶ 특성화 분야 학습력 제고를 위한 노력의 개선 ▶ 교원확보 및 지원의 개선 ▶ 졸업 후 진출 및 적응의 개선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의 특성화 교육 만족도 ▶ 학부모의 특성화 교육 만족도 ▶ 교원의 특성화 교육 만족도 ▶ 졸업생의 특성화 교육 만족도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 특성화 분야 시설·설비 및 기자재 확보

영역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달성도 측면에서 특성화 교육계획의 달성 정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성화 교육계획의 추진의지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성 측면에서의 성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전문계고보다 개편된 특성화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육목표와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수학습에서는 학생참여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특성화 분야와 관련된 인정도서 혹은 수업 보조 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장실습은 특성화 전공교과와 관련하여 교육적인 측면에서 현장실습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 측면에서 특성화로 인한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났으며, 우수한 학생들이 특성화고로 입학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진로지도 및 상담과 관련하여 특성화고가 전문계고보다 진로지도 및 학생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를 위한 노력(동아리 활성화 지원, 장학금 확대, 우수학생 국외연수 지원 등)에서 특성화고가 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원 측면에서 특성화고는 산학겸임교사를 적극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었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지원을 강화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문계고 학생들보다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진로지도 및 학생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 학습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보다 소질과 적성 및 희망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였다.

만족도 측면에서의 성과를 살펴보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일반 전문계고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교과서 및 수업자료, 현장실습, 진로지도 프로그램, 학생 지원활동(동아리 활동 지원, 장학금 지급, 우수학생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교사의 지도능력과 열성,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만족도에서 일반 전문계고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과목 구성에 대한 만족도와 수업방법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학부모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자의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 특성화고 학생의 학부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학지도, 교사의

지도능력과 열성 등에서 일반 전문계고 학생의 학부모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교원 만족도 측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졸업생의 만족도 측면에서 교육내용, 수업방법, 교과서 및 수업자료, 현장실습(현장학습 및 체험학습 포함), 진학지도, 학생 지원활동(동아리 활동 지원, 장학금 지급, 우수학생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전문교과 교사의 지도능력 및 열성,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 등에서 일반 전문계고 졸업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졸업 후 능력 수준에 대해서도 일반 전문계고 학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용측면의 성과를 살펴보면, 특성화고가 예산 확보의 충실성,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 확보의 충실성 등에서 일반 전문계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영역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달성도 영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특성화 교육계획의 달성, 특성화 교육계획의 추진의지를 제시하였으며, 효과성 영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습활동,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활용, 현장실습, 학생선발, 진로지도 및 상담, 학습력 제고를 위한 노력, 교원 확보 및 지원, 졸업 후 진출 및 적응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만족도 영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재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교원 만족도, 졸업생 만족도 제고를 제시하였으며, 비용 영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특성화 관련 예산 관리 및 확충, 시설·설비 확보 및 관리를 제시하고 있었다.

다. 자율학교 운영 성과

자율학교의 운영 성과와 관련하여 최금진 외(2003)에서 자율학교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먼저 지식과 기술연마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조사한 결과 긍정반응 66.7%, 중립반응 28.0%, 부정반응 7.3%로 나타나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동기 및 의욕회복에 대한 교육적 효과에 대해 긍정반응 68.3%, 중립반응 29.3%, 부정반응 2.4%로 나타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역시 긍정반응이 76.9%, 중립반응 20.7%, 부정반응이 2.4%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대해서도 긍정반응이 7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율학교의 교육적 효과가 높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의 긴밀한 인간관계 45.6%,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22.7%, 교사의 투철한 교직원과 열정 16.5%, 학급당 적은 학생 수 10.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적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율권의 활용 부족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낮은 수준 29.3%, 행·재정적 지원 부족 27.6%, 교사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전문성 부족 10.3% 등으로 나타났다.

2. 특성화 학교 운영 문제점

가.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 진로

특수목적고의 설립취지에 관한 논란은 주로 졸업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와 외국어고 졸업생들이 의대와 법대 등 특정대학이나 명문대학 진학을 주로 하면서 특수목적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주요 통로로 인식되어 특수목적고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특수목적고의 교육과정도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에 충실하기보다는 의대와 법대 진학에 유리하도록 운영되고 있어서 당초의 특수목적고 설립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과학고와 외국어고는 대학 진학 시 전공 선택의 폭이 매우 넓고, 실제로 상당수의 졸업생이 고등학교에서의 전공계열과 다른 분야로 진학하고 있다. 외국어고 졸업생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표 IV-9> 참조), 어문계열로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30% 내외이며,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6학년도 대입에서도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대원, 대일, 명덕, 서울, 이화, 한영외고) 졸업생 중 어문계열에 진학한 학생은 3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국민일보, 2006.6.7일자).

<표 IV-9> 외국어고 졸업생 진학 현황(2002-2004년)

연도	어문계열	비어문계열	자연계열
2002	39.1%	51.2%	9.7%
2003	36.1%	53.5%	10.4%
2004	31.2%	55.9%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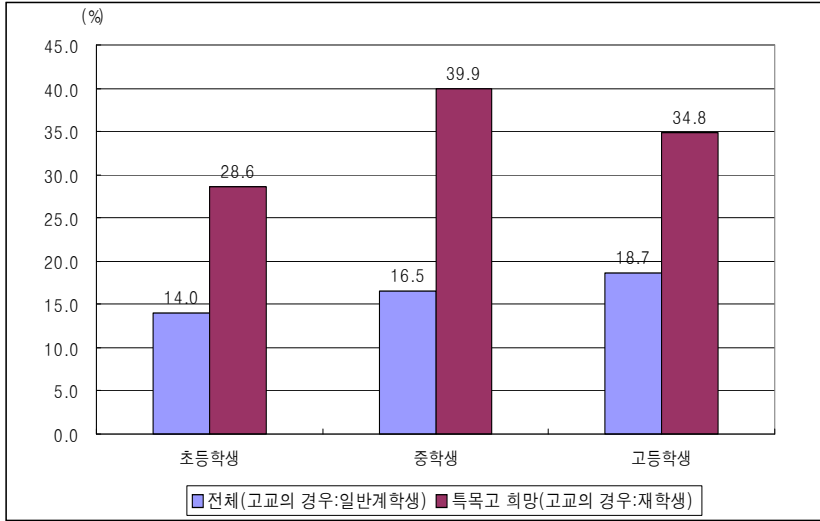
자료: 김영철(2004). 특수목적형 고교체제의 발전 과제.

나. 사교육비 증가

특수목적고의 선발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진학열기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개별 가정은 물론 국민 경제의 부담으로 여겨질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특수목적고 입학대비 사교육 참여자 수의 꾸준한 증가와 참가 연령의 하향화, 상대적으로 비싼 사교육비용으로 인한 계층 간 접근기회의 차이 등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한하여 사회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강영혜과 박소영(2007)이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 사이에 특수목적고 합격자와 학부모, 학원관계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그림 IV-2) 참조, 특수목적고를 대비하는 학생들은 사교육비 지출에서 일반학교 진학자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중, 고 모두에서 특수목적고 지망자의 고액 사교육 비율은 일반학교 진학자에 비해 두 배 전후로 높았지만, 특히 특수목적고 입학에 목전에 둔 중학생의 경우 그 차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특수목적고 선발시험이 명백히 중학생들에게 고입준비를 위한 과열과외의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V-2] 특수목적고 희망학생 및 일반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비율 차이



자료: 강영혜·박소영(2007). 특수목적고의 현주소와 특목고 정책의 향후 개선방안.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보고한 ‘2006년 신입생 학원수강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외국어고 신입생의 68%가 사설학원의 특수목적고 대비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어고 입학 후에도 여전히 사교육을 받은 1학년생의 비율이 86.4%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목적고 진학열기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문제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도입배경이 되었던 명문고 진학을 위한 중학생들의 과열과외와 중학교 교육의 입시중속 문제가 이제 특목고진학을 둘러싸고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과열 입학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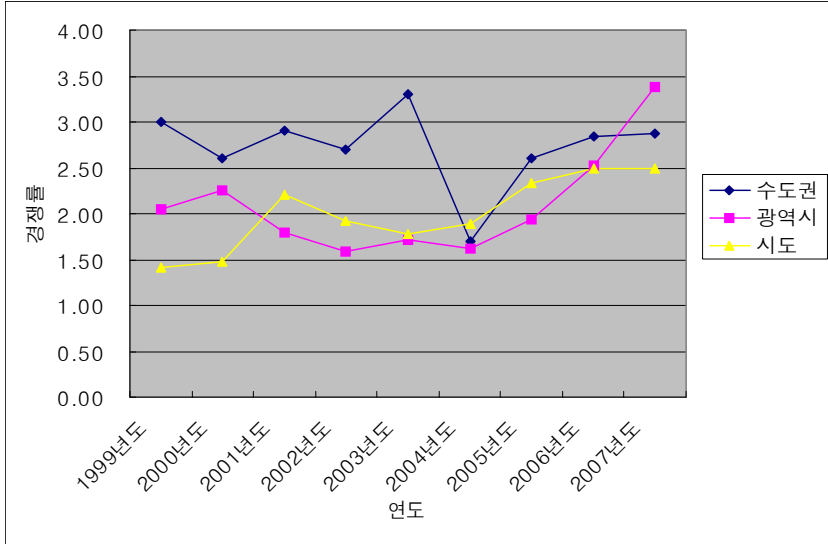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명문고 입학이 명문대 진학을 넘어 높은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고교학연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는 지름길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과학고와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는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발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수목적고의 설립취지에 부

합하지 않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영혜과 박소영(2007)은 1999학년도(학생선발은 전년도 가을에 이루어짐)부터 과학고의 입학경쟁률을 추적한 연구에서([그림 IV-3] 참조), 수도권지역 과학고와 비수도권 학교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98년 가을에는 2002 대입제도가 발표되었으며, 이 대입 안을 기초로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등에서 과학고와 외국어고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별전형들을 연이어 도입,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서울대 진학 시의 불리함은 아직 있지만 수도권 과학고의 입학경쟁률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동안 안정세를 보인다. 그러나 2004년 가을에 내신강화에 초점을 둔 2008대입제도가 발표되면서, 그해 가을에 실시되는 2005학년도 신입생 선발경쟁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특히 수도권에서 급락한다. 그러나 2005년 가을부터 입학경쟁률은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특히 특목고 열풍이 거세게 불어 닥친 2007년도 입학전형에서는 서울과 지방 모두에서 과학고 진학률이 상승됨을 알 수 있다. 이는 2005년 들어서 주요대학들이 논술강화를 발표하고,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주요대학에서 특기자 전형 비중을 꾸준히 늘린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과학영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고도 종결교육기관이 아닌 대입준비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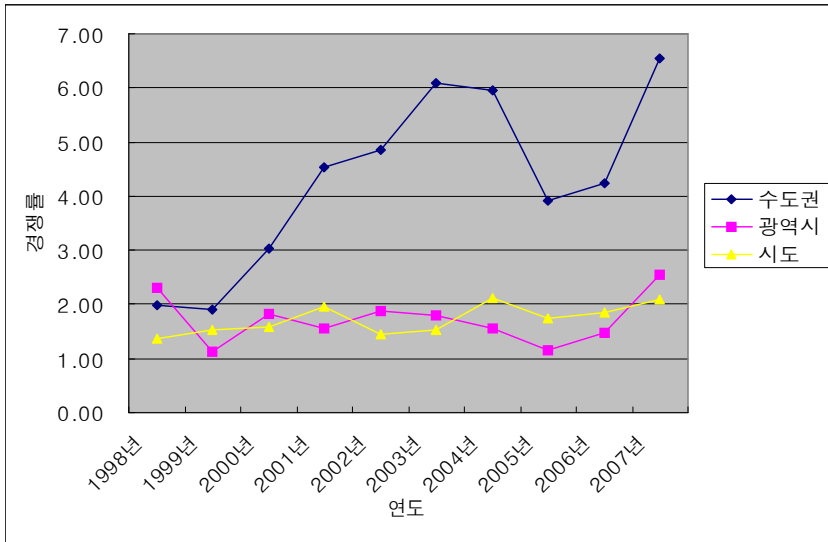
또한 외국어고의 경우([그림 IV-4] 참조), 비교내신제 폐지로 인한 특목고 파동을 겪던 97년 가을에 치러진 98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지방에서는 2:1 전후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쟁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외고의 경우 2000년 이후 해마다 경쟁률이 크게 상승하여 지방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상승세를 타던 수도권 외고의 진학경쟁률에 타격을 입힌 것은 2004년에 발표된 2008 대입제도였다. 내신의 상대평가와 내신비중의 강화가 포함된 대입개선안 발표가 있던 2004년 가을에 치러진 2005학년도 신입생 경쟁률은 급락한다. 그러나 다음해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데 이는 2005년 가을부터 주요 대학들이 논술 비중 강화를 발표하였고, 국제학부나 글로벌 전형 확대, 수능위주의 선발 등으로 내신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전형제도를 앞 다투어 내놓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3] 과학고 입학 경쟁률 변화 추이(1999-2007년)



자료: 강영혜·박소영(2007). 특수목적고의 현주소와 특목고 정책의 향후 개선방안.

[그림 IV-4] 외국어고 입학 경쟁률 변화 추이(1998-2007년)



자료: 강영혜·박소영(2007). 특수목적고의 현주소와 특목고 정책의 향후 개선방안.

라. 성적 위주의 학생선발

특수목적고는 예체능, 과학, 외국어 등에 재능을 보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생선발 방법의 필기시험을 불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목적고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성적우수자 중심의 명문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2007)의 특수목적고 점검결과에 따르면, 외국어고는 외국어분야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신입생 선발과 학사운영, 진로지도, 정규교육과정과 방과 후 교육과정 등에서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학사운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 외국어고들 가운데는 입학전형 시 학업적성검사(창의력·사고력) 문체에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외국어고 설립목적과는 달리 수리형 문제를 출제한 경우가 있었으며,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대학진학 실적 위주의 학교홍보와 비교육적인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특히,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선택과목 이동수업을 통해 실질적인 자연계 진학반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수도권 학교들에서 이 같은 학사운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겨레, 2007.9.5일자).

또한 외국어고를 비롯한 일반계 특수목적고는 이제 교육적 의제를 넘어서 정치적 의제로 진화해 왔다. 1990년 초의 특목고 확대 결정에 평준화 보완이라는 포장이라도 필요하였다면 특목고 설립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진 이후 특목고 설립은 최소한의 교육적 명분조차 필요 없는 정치적 품목으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공약으로 특목고 설립 확대를 내세우고, 특히 수도권에서 2003년 이후 특수목적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특목고 진학 열기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확산되어 왔다. 더 이상 특수목적고는 특별한 학생들이 가서 전문화된 교육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대학진학 준비를 위해 누구나 목표로 하는 우수학교로 다가오고 있다. 그 결과 특수목적고와 평준화 학교 간에는 과거의 일류고와 이류 학교의 서열관계가 광범위하게 재현되고 있으며, 특수목적고 안에서도 더 유명한 특수목적고를 향한 학생들의 진학 열기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5절 국외 특성화 학교 사례

국외 특성화 학교 사례는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 방안 제1차 포럼에서 논의되었다. 따라서 옥준필(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의 특성화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Career Magnet School 사례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유형의 미국 고등학교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학교가 Magnet school이다. Magnet school은 주로 도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매력(magnet)을 끌 수 있는 독특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소규모의 공립학교로서 일종의 대안학교이다. 즉, 학생들의 특별한 관심과 능력에 토대를 둔 교육적 경험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는 없는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반학교들과 구별되는 Magnet school만의 특징은 특정 분야의 과목들을 심도있게 다루거나 독특한 수업방법을 적용하는 등의 교육과정 및 수업방법의 혁신적인 시도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차별성이 일반학교에 흥미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교육구내의 학생들을 매력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본래 Magnet school은 강제 배정을 통한 통합방식이 아닌 자발적인 방식의 새로운 학교통합정책(school desegregation)의 일환으로 197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 교육개혁과정을 거치면서 교육과정 및 수업방식의 혁신과 학교선택의 보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로 높이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Magnet school의 유형은 학교 안의 학교 프로그램(schools within a school program) 유형, 과외 프로그램(add-on program) 유형, 독립학교(separate and unique schools) 유형, 센터 프로그램(cluster centers)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Blank., 1983).

학교 안의 학교 프로그램(school within a school program)은 학생들의 희

망에 따라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 다르게 제공된다. 특성화의 내용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일 경우에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이며, 참여 학생수는 사용공간이나 시설, 프로그램의 내용을 토대로 미리 결정된다. 이웃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마그네트학교의 수업을 받기 위해 마그네트학교로 이동하기도 한다.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제반 교육여건이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외 프로그램(add-on-program)은 정규수업과정에 첨가되는 유형이다. 학생들은 방과후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과외로 이수한다. 전체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대상에 포함되어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의 수업이 가능할 수 있고, 정규 교육과정은 집 근처의 학교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은 마그네트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특히 초등학교 수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의 유형이다.

독립학교(separate and unique schools) 유형은 독립된 마그네트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단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시간마다 분리된 건물과 실험실 등으로 이동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택하여 학교에 입학하므로 '선택학교(selective school)'라고도 불린다.

센터 프로그램(Cluster Centers) 유형은 학생들에게 일주일 중 정해진 며칠 동안을 특성화 교육환경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외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교육구나 시가지 중심에 센터들이 자리를 잡고, 각 센터들은 몇 개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들은 일주일에 삼일 정도는 특성화 수업을 위해 센터에서 실험실습이나 토론 등을 하면서 시청각 기자재, 실험 설비, 토론실 등을 사용한다.

Career magnet school은 공통적인 직업군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데, 학생들의 직업적 적성과 전공을 중심으로 하는 코스와 통합교육과정의 운영, 지역사회와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부응하고 있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과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

학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Career magnet school의 교육 특징은 다음과 같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1996).

-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학문적 능력과 기술 능력을 성취하고 있다.
- 학생들은 대학진학과 취업을 위한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다.
- 학생들은 진로나 다른 특별한 관심의 맥락에서 학습한다.
- 학생들은 교실, 직업현장, 지역사회 속에서 체험학습을 통해 배운다.
- 학교 안의 작은 학교(small schools-within a school)에서 교사와 더불어 활동한다.
- 지역사회 성인자원교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 직업과 대학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얻고 있다.
-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간의 강력한 연계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
-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Career magnet school은 시카고농업과학고등학교(Chicago High School for Agricultural Sciences), 게이트웨이과학기술고등학교(Gateway Institute of Technology), 뉴욕경제재정고등학교(High School of Economics and Finance New York), 서섹스기술고등학교(Sussex Technical High School), 윌리엄터너기술고등학교(William H. Turner Technical Arts High School) 등이 있는데, 이 학교들은 ‘새로운 미국고등학교(New American High Schools)⁵⁾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학교들 중에서 시카고농업과학고등학교와 윌리엄터너기술고등학교, 뉴욕항공고등학교(Aviation High School)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1996; Grubb, W. N., 1995; 임천순 외, 1996; CHSAS, 2005).

5) 미국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새로운 미국고등학교 선정사업(New American High School Initiative)’은 모든 학생들이 학업성취기준에 도달하고 대학진학과 직업세계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교육과정 및 수업방법을 시도하는 학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 시카고농업과학고등학교

시카고농업과학고등학교는 미국의 3대 도시인 시카고시 남서쪽의 마운트 그린우드(Mount Greenwood)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1985년에 설립되었다. 대도시에 농업고등학교를 설립한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카고농업과학고등학교는 농업분야가 훌륭한 교육적 주제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이에 초점을 둔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 지역사회 산업계 및 교육분야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교육부로부터 새로운 미국의 고등학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먼저, 이 학교의 성공 비결은 확고한 교육철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학교는 기존의 직업학교들과는 달리 학문적인 것과 직업적인 것을 어느 것에 편중됨이 없이 동시에 추구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르네상스적인 인간을 기르는 것을 기본 교육철학으로 하고 있다. 학교 이름에 ‘과학’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학교는 기존의 직업고등학교와는 달리 높은 수준의 수학과 과학을 강조하여 교육한다. 이 학교에서는 대수, 기하, 고급대수/삼각법, 미적분 등의 수학 교과목과 지구과학, 생물, 화학, 물리 등의 과학 교과목을 각각 1단위씩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교과로는 1학년에 농업진로와 리더십 I(Agricultural Careers & Leadership I), 농업과학 I(Agricultural Science I), 2학년에서는 농업식품과학 I(Agricultural & Food Science I), 3~4학년에서는 농업비즈니스 I·II(Agribusiness I·II)를 각각 1단위씩 공통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3학년부터는 농업재정경제(Agricultural Finance & Economics), 농업기계기술(Agricultural Mechanics & Technology), 동물과학(Animal Science), 식품과학기술(Food Science & Technology), 원예(Horticulture) 중에서 농업진로전공 I·II(Agricultural Career Pathway I·II)를 한 가지 선택하여 4학년까지 매년 2단위씩 4단위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에 농업관련 분야로의 취업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표 IV-10> 시카고농업과학고등학교의 교과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일반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1) • 지구과학(1) • 대수(1) • 컴퓨터과학(1) • 미술(1) • 체육(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문학(1) • 생물(1) • 기하(1) • 세계연구(1) • 불어(또는 스페인어) I (1) • 음악(또는 밴드)(1) • 체육(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문학(1) • 화학(1) • 고급대수/삼각법(1) • 미국사(1) • 불어(또는 스페인어) II(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문학(1) • 물리(1) • 미적분(1) • 소비자법(1) • 불어(또는 스페인어) III(1)
농업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로와 리더십 I (1) • 농업과학 I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식품과학 I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비즈니스 I (1) • 농업진로전공 I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재정경제 I - 농업기계기술 I - 동물과학 I - 식품과학기술 I - 원예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비즈니스 II(1) • 농업진로전공 II(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재정경제 II - 농업기계기술 II - 동물과학 II - 식품과학기술 II - 원예 II
이수 단위	8단위	8단위	8단위	8단위

* 주: 괄호안의 숫자는 과목별 이수 학점 단위(unit)수임.
 여기서 1단위(unit)는 1주일(5일)에 매일 1교시(50분)씩 1년 동안(18주로 된 학기를 2번) 이수하는 것을 의미함. 즉, 1단위(unit)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80시간임
 자료: CHSAS(2005). *Chicago High School for Agricultural Sciences: Where Agriculture and Classroom Instruction Come Together*. pp. 6-23.

두 번째로, 시카고농업과학고등학교는 높은 기대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일리노이주 전체의 최소 이수학점(20학점) 보다 훨씬 높은 32학점의 교과목을 이수하게끔 하여, 대학진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지속적인 진로개발을 돕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기대수준도 높다.

셋째, 이 학교는 교육과정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즉,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농업교과가 각 교과의 영역에 통합되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불어교과에서는 프랑스 농업을 배우고, 영어교과에서는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쓰고, 수학교과에서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표를 작성하여 분석한다. 농업적 접근으로 지리를 배우며, 과학교과에

서는 고기에 함량된 지방분을 지역식품회사의 사장과 협력하여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학교농장에서 토양유실에 대해 공부한다.

넷째, 시카고농업과학고등학교에서는 현장경험학습(work-based learning)을 중요시하고 있다. 30~35명 단위로 상급학년 학생들이 지역의 대학에서 교수와 같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함께 일을 하고 이를 통해 장학금을 받고, 그들의 경험일지를 작성하기도 한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모든 학생들이 현장경험교육에 참여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농장에서, 일부 학생들은 12~15명 단위로 조를 이루어 생산농장에서 현장경험교육을 받는다. 또, 일부 학생들은 농업산학협동교육(Agricultural Cooperation Education: ACE)을 통해 직업을 갖거나 인턴으로 일을 경험한다. 농업산학협동교육 중에 사탕공장에서의 현장실습의 연구조교로서, 학생은 우유의 지방함량, 초콜릿의 입자크기, 다양한 사탕의 수분함량 등을 조사하여 정부의 식품요구량에 맞추는 작업을 한다.

다섯째, 이 학교는 수평적·수직적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사회기업들과 직업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산학협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직업전문교원의 보충을 받는 등 다양한 연계를 맺고 있다. 또한 트루먼전문대학(Truman Junior College)과 '2+2' 연계 협정을 체결하여 학생들이 이중학점(dual credit)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 11~12학년에 취득한 학점을 연계대학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데일리전문대학(Daley Junior College)과는 원예분야에서 테크프렙(Tech-Prep) 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섯째, 시카고농업과학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의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사들이 각자의 전공교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농업과학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교사들이 학교 밖의 다양한 농업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그들의 현장경험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나. 윌리엄터너기술고등학교

윌리엄터너기술고등학교는 플로리다주 데이드카운티(Dade County, Florida)

북부의 도시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 학교는 데이드카운티 공립학교체제에 의해 운영되는 마그네트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학교 등교를 위해 1시간이나 1시간 30분이 걸리는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카운티의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윌리엄터너기술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정보소양능력과 평생학습기술을 습득시키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고, 이를 위해 학생들이 ‘1인 2증서(“two for one” diploma)’를 얻도록 하여 대학진학과 취업을 준비시키고 있다. 윌리엄터너기술고등학교의 교육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특징으로, 이 학교는 높은 학업 기준(academic standards)을 설정하고 있다. 이 학교는 전신(前身)인 데이드카운티농업고등학교를 지역사회 및 산업계의 요구에 맞게 재구조화하기 위해 농업과학 이외에 주택건설, 재정, 보건 등의 학부(academy)를 개설하고 학문기준과 기술기준, 졸업기준을 통합하여 높은 학문적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 학교건물 보수 및 최신의 기자재 확보, 교명개칭, 중학생 입학 자원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데이드카운티 공립학교 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2대 1이 넘는 입학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이 ‘1인 2증서’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1인 2증서’란 대학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장과 주(州)에서 보증하는 직업훈련 보장증서를 의미하며, 학생들이 졸업 후 이 두 가지 증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이 정보소양능력과 평생학습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학교 교육과정의 취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셋째, 7개의 학부(academy)에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 수업전략의 기초는 통합교육과정이다. 학생과 교사들은 농업과학, 응용비즈니스 기술, 재정, 보건, 산업기술, 공공서비스 및 텔레비전 생산, 주택건설 등 7개 학부 중의 하나에 배정된다. 교사들은 통합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각 학부 안에 있는 팀에서 활동하며, 학생들이 선택한 진로전공에 따라 효율적으로 주제를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건강인식수업을 통해 1, 2학년 학생들은 시력, 청력 검사를 시행하고, 혈압검사를 직접 실시해보는 경험을 한다. 즉, 암기보다는 숙달을 원칙으로 한다. 3학년생들은 보건과 관련된 직업에 펼

요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지방 보건센터나 병원에서 면접을 경험한다. 학생은 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를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필수 및 선택교과를 이수함으로써,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다. 예컨대, 보건학부 이수 시 학생들은 환자보호보조, 응급처치, 건강관리, 치과보조, 의학 실습실보조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다. 또한 모든 학생들은 현재의 이력 뿐만 아니라 각종 현장경험교육 경력 등을 기록하고 있는 진로카드(career portfolio)를 갖는다.

<표 IV-11> 윌리엄터너기술고등학교의 진로전공

학부	진로전공
농업과학	동물과학, 장식원예, 수의보조
응용비즈니스기술	비즈니스컴퓨터응용, 데스크탑출판, 보험, 국제비즈니스
보건	건강관리(Health Unit Coordinator), 응급처치(First Responder), 간호보조, 가정보건보조, 치과보조,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프보조(Electrocardiograph Aide)
산업기술	원료관리 및 유통, 디젤기계학, 건물유지
NAF/Fannie Mae 재정	
공공서비스 및 텔 레비전 생산	범죄재판, 교사보조, 법집행
주택건설	제도, 마감목공, 외형목공(Shell Carpentry), 석조건축

자료: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1995). *Reaching the Next Step: How School to Career Can Help Students Reach High Academic Standards and Prepare for Good Jobs*. p.40.

넷째, 직업현장경험(workplace experience)과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각 학부의 학생들은 실제 직업현장과 학교기업에서 다양한 현장경험에 참여한다. 교사와 학생 모두 다양한 직업에 대해 피고용자로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학생에게는 자신의 진로경로에 있어서 필요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고, 교사에게는 자신의 전공지식을 일의 세계에 효과적으로 융화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다. 3~4학년 과정 동안 학생들은 인턴십을 통해 현장에 투입되고, 현장의 고

용주들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한다. 몇몇 학부모들은 학교기업을 운영하여, 각종 시설에 대한 재정보호와 졸업생들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업과학학부의 경우 가축과 원예 생산물을 길러 이를 경매하고 있고, 주택건설학부의 경우에는 지방 건축업자와의 협작을 통해 주택 설계, 준공, 매매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 이 학교의 학생들은 특히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이다. 현대적인 기술의 적용과 헌신적인 교사들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들의 열정과 자부심이다. 윌리엄터너기술고등학교의 혁신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선택권을 부여하고 자신감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다. 뉴욕항공고등학교

뉴욕항공고등학교는 롱아일랜드시(Long Island City)에 위치하고 있고 5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항공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항공기계와 항공공학을 전공할 수 있고, 졸업시 졸업장과 더불어 연방항공행정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기체보수 및 발전보수 면허증이나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s: FCC)의 항공전자공학 면허증을 부여받는다. 이 면허증들은 학문적 기준에 부과하는 대학의 시험측정과는 달리 직업적이고 산업기술기준과 관련된 외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항공과 관련 기술분야로의 대학진학 뿐만 아니라 직업을 준비시키고 있다.

항공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대략 반은 FAA, FCC가 규정하는 산업기술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반은 대학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여지는 거의 없지만 법과목과 같은 약간의 과목은 선택할 수 있다. 이 학교는 이수해야 할 과목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엄격하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 가운데에는 중도탈락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일단 1학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 중도탈락률은 거의 줄

어든다.

이 항공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대단히 효율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인근의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communitry college)를 졸업하면 항공기체, 동력장치 면허증이 주어지는데 비해,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이러한 면허증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이 학교의 학생들은 졸업 후 항공관련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데 일반사무직이나 경리직에 비해 훨씬 높은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2. 영국의 Specialist School 사례

영국의 Specialist school은 특정분야를 특성화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영 중등학교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학교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에 따르며 학생들에게 폭넓고 균형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Specialist school은 1994년에 기술분야를 특성화한 학교(기술학교: Technology colleges)에서 출발하여 1995년에는 외국어분야(외국어학교), 1997년에는 예술과 스포츠분야(예술학교, 스포츠학교)로 확대되었다.

그 후 영국 교육부는 Specialist school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보다 다양한 분야의 학교 설립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존의 기술, 외국어, 예술, 스포츠 분야 이외에 2002년에는 비즈니스와 기업, 공학(engineering), 과학, 수학과 연산(mathematics & computing) 등 4개의 새로운 분야를 전문화한 Specialist school을 새로이 설립하였다. 또 2개의 특정분야를 조합하여(예컨대, 과학과 공학분야) 특성화한 학교도 만들었다. 한편, 2003년부터는 음악이나 인문(humanities) 등의 Specialist school도 설립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의 특정 관심 분야를 반영하기 위하여 과학이나 비즈니스와 기업과 같은 분야를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재구조화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Specialist school의 특성화 교과 영역은 예술, 비즈니스와 기업, 공학, 인문, 언어, 수학과 연산, 음악, 과학, 스포츠, 기술 등 10개 분야이다. Specialist school로 지정된 학교는 3년마다 특성화 분야를 재조정하여 교육

부에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Specialist school은 특성화 분야에 적성과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10%까지 선발할 수 있다.

Specialist school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관련 기업 등 외부 후원자로부터 일정액의 학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상응하여 대응투자를 하며 매년 학생 1인당 일정액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Specialist school은 2007년 9월 현재 잉글랜드에만 2,807개교가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는 중등학교의 86%에 해당하는 것이며, 모든 잉글랜드 지역의 모든 지역교육청(LA)에 최소한 1개교씩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 교육부는 2008년까지 잉글랜드 지역 공영 중등학교의 95%를 Specialist school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북아일랜드에서도 Specialist school의 본격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시범 운영 프로젝트는 2006년에 12개 학교(정보통신기술(ICT), 공연예술, 비즈니스와 기업, 과학, 음악, 언어 특성화 분야)로 시작하여 2007년에는 13개 학교를 추가하여 확대되었다.

제 5 장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 방안

제1절 학교 특성화의 기본 방향 및 체제

1. 학교 특성화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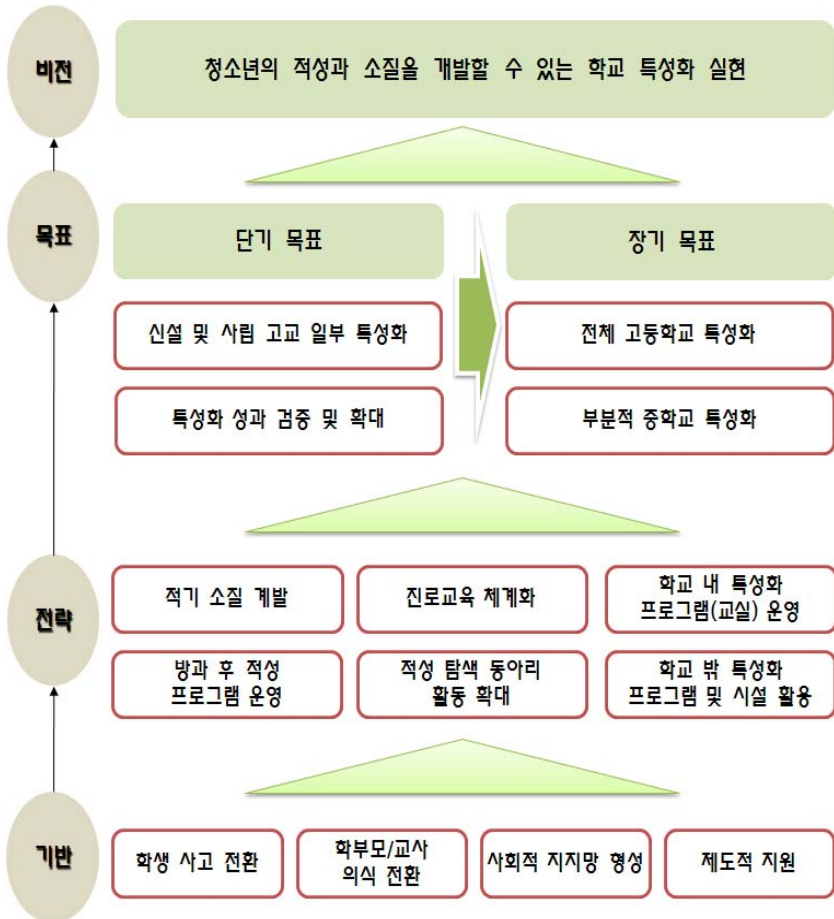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의 비전 체계는 [그림 V-1]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청소년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학교 특성화 실현을 최종 비전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단기적인 목표는 신설 학교나 사립 고교 중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고, 추후 특성화 학교 운영 성과를 검증하여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목표는 단기 목표를 확대하여 전체 고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고, 중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특성화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적기 소질 계발, 진로교육 체계화, 학교 내 특성화 프로그램(교실) 운영, 방과 후 적성 프로그램 운영, 적성 탐색 동아리 활동 확대, 학교 밖 특성화 프로그램 및 시설 활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략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하여 발휘하는 것에 대한 사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

들은 학생들의 자기 발견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직업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지지망을 형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특성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V-1]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의 기본 방향



2. 학교 특성화 운영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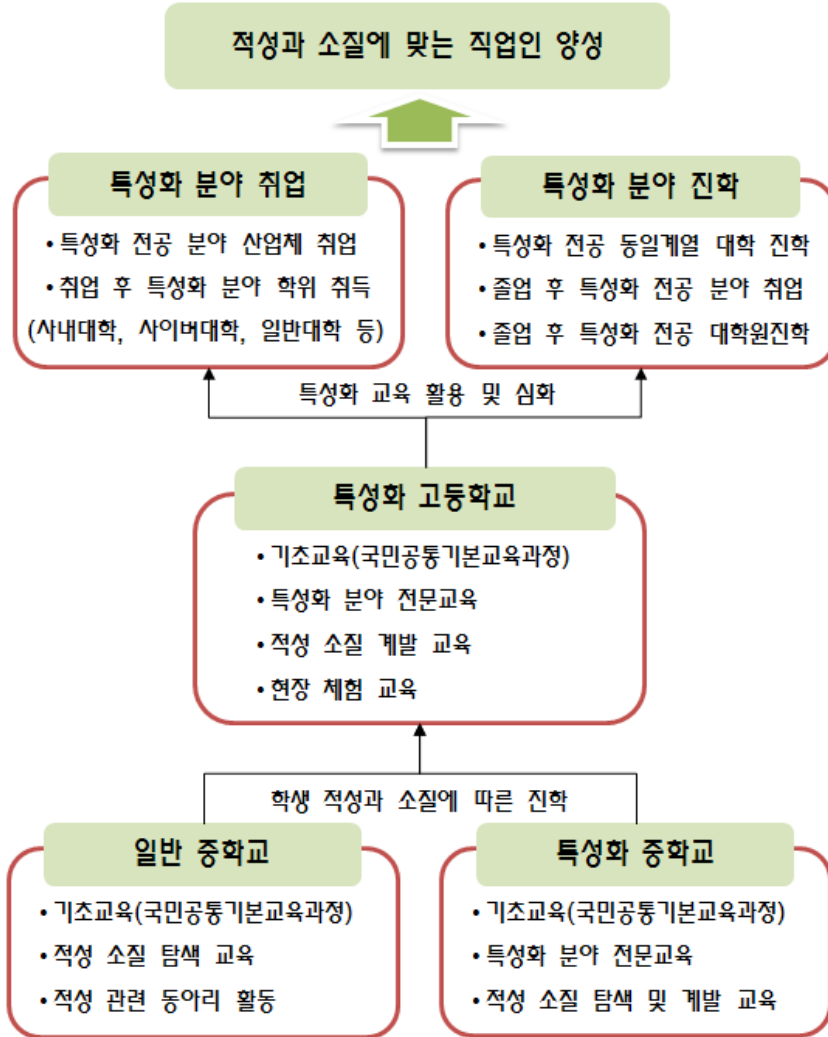
학교 특성화 운영 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미래의 해당 분야의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특성화 진로 경로를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V-2 참조).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대해 탐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일반 중학교에서는 기초교육과 함께 적성 소질 탐색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이와 관련된 동아리 및 특별활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반면, 특성화 중학교에서는 일반 기초교육 뿐만 아니라 특성화 분야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또 다른 적성과 소질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또 다른 특성화 분야로의 고교 진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모든 고교가 특정 분야의 특성화 학교로 체제를 개편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준수하되, 특성화 분야에 대한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적성 및 소질 계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특성화 분야에 대한 현장 체험 교육을 강화하여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특성화 분야로의 취업 및 진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취업을 하는 학생의 경우 특성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산업체로 취업을 유도함과 동시에 관련 분야로의 계속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내대학, 사이버대학 및 각종 대학으로의 진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반면, 특성화 분야로의 진학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전공과 동일계열의 대학으로 진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졸업 후 특성화 전공 분야로의 취업을 지원하거나, 특성화 분야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지원하여 적성과 소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림 V-2] 학교 특성화 운영 체제



제2절 학교 특성화 장·단기 방안

1. 단기 방안

현행 고교 체제를 단기간 내에 전체 특성화고교로 전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림 V-3]과 같이 일부 고교를 대상으로 특성화고교로 체제를 개편하는 단기 방안을 적용한 후 전체 고교로 특성화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V-3] 학교 특성화 단기 방안



학교 특성화 단기 방안은 현재 고교 체제에서는 현행 학교 내·외부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성 및 소질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내 특성화 교실,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게 하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설 고교, 사립 고교, 체제 개편이 용이한 고교 중 희망하는 고교를 대상으로 특성화고로 체제를 개편해야 하며, 개편 시 특성화 분야는 단위학교 및 재단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선정하되, 기존의 영재교육 및 특수목적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야와는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부 고교의 특성화 체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진단하고, 성과 진단 결과를 반영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한 후 향후 전체 고교의 특성화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장기 방안

학교 특성화 단기 방안을 적용하여 성과를 확인한 후에는 [그림 V-4]와 같이 학교교육 시스템 전체를 특성화하는 장기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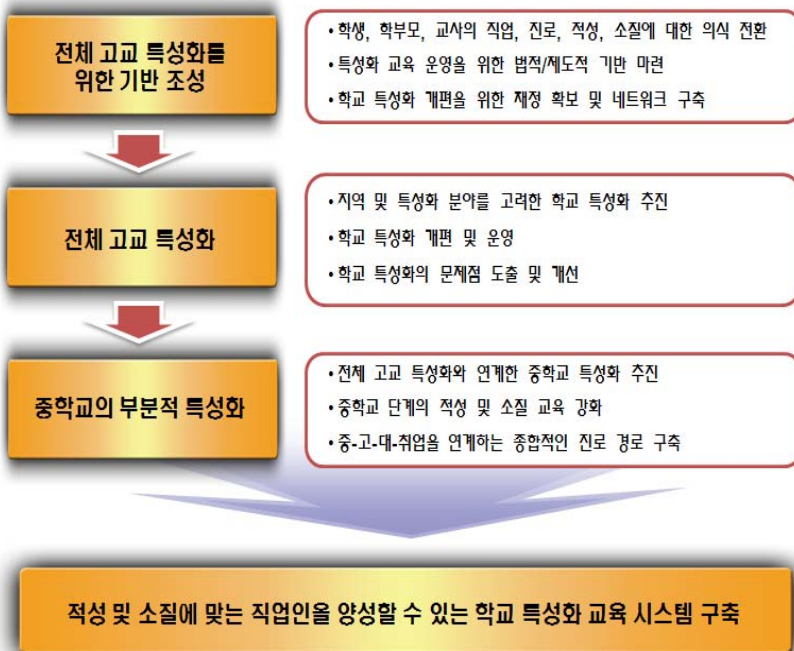
학교 특성화 장기 방안은 우선 전체 고교 특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학벌과 직업에 대한 편견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직업, 진로, 적성, 소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특성화고 성과를 알리고, 진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특성화고 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 재정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 고교 특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 후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지역 및 특성화 분야를 고려하여 학교 특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적 특성 및 기존 특성화고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단위 고등학교별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성화고로의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교 특성화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운영 요소에 대한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특성화 분야에 적합한 교사 및 학생 확보,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등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단계의 특성화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중학교 단계의 특성화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적성과 소질에 따라 조기 특성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특성화 분야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실시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는 적성과 소질을 한 분야에 맞추기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성화 중학교에서의 학생 확보를 위해 중-고-대-취업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진로 경로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V-4] 학교 특성화 장기 방안



제3절 학교 특성화 세부 추진 방안

1. 특성화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체제 개선

특성화 학교의 취지는 학교에 교육 및 학교 운영에서의 자율과 자유를 대폭 허용해 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교육의 특성화 시도는 개별 학교의 개성과 특징이 어우러진 독자적 교육 실험으로서, 이 실험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와 아이디어는 학교 운영의 자율적 풍토 위에서만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 학교가 특성화의 기획에서 실천,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적인 자율과 자유를 향유할 때 특성화 교육의 질적인 성장은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그림 V-5]와 같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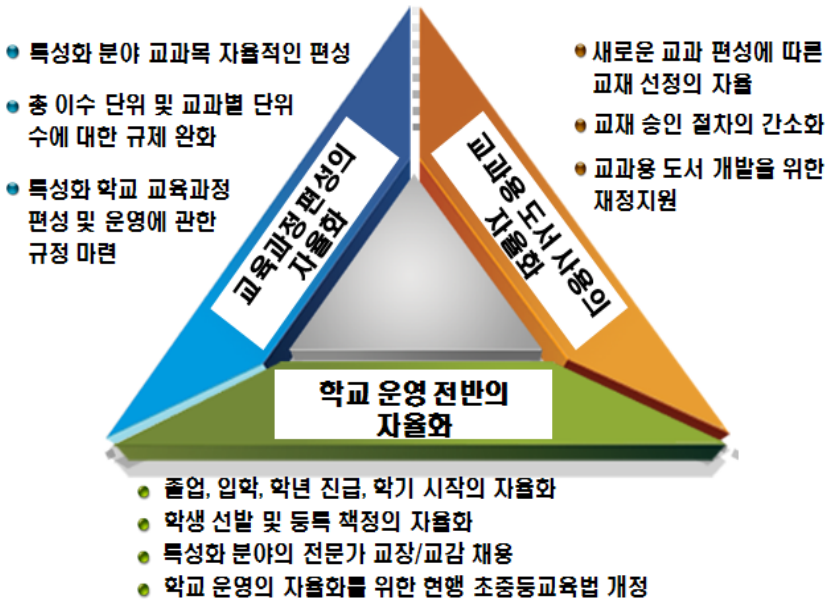
첫째, 특성화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즉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 제시하고 있는 총 이수단위 및 교과별 단위수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 총 이수단위는 준수하되, 보통교과의 국민공통기본교과는 필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편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용 도서의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즉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새로운 교과편성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새로운 교재선정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성화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새로운 교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니고 있으나, 새로운 교과의 편성에는 새로운 교재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자유로운 교재선정의 재량권이 확보되지 않는 한 독창적인 교과편성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성화 학교의 특정 분야에 대한 교과 중 국정 혹은 검인정 교과서가 없는 경우 학교가 교육의 특성을 살려 독자 개발한 교과서에 대해서

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사후보고 만으로 승인을 대신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특성화 학교 운영의 전반에 걸쳐 학교가 자율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졸업과 입학, 학년의 진급, 학기의 시작, 학생선발, 등록금 등에서 학교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장 뿐만 아니라 교감도 자격과 상관없이 특성화 분야의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교장 공모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자율학교의 자율 운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다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전향적 개정은 물론 여타 법규에 대한 개정도 아울러 요구된다.

[그림 V-5] 특성화 학교의 자율성 확보 방안



영재 학교나 특성목적고와 같이 대학 진학에 유리한 분야가 아닌 축구고, 재즈고, 방송고, 와인고 등의 다양한 직업 분야를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② 특성화 분야에 대한 직업군 및 직업 분류

직업군 및 직종의 분류는 학교의 특성화 분야의 직종을 대상으로 분류한다. 직업의 종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성, 소멸, 변화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직종 및 외국의 직업을 참조하여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직업인력 수요 현황 및 전망 분석

분류된 직업군 및 직업의 종류(직종)별 인력수급의 현황과 전망은 지역사회 및 산업사회에서 현재 필요한 인력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방법은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면담조사 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력 양성 유형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도록 한다.

④ 직무분석(K·S·A 추출)

직무분석은 우선 특성화 분야의 인력육성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를 선정하여 선정된 직무에 대한 책임 영역(duty)과 그에 따른 업무 단위(task)를 도출하며, 도출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갖추어야 할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 기능(skill)으로 분류한다. 이 때 직무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 뿐만 아니라 특성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⑤ 특성화 분야 교과목 교육목표 설정

일반적으로 특성화 분야의 교육목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향후 고등교육 단계에서 더욱 심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⑥ 특성화 분야 교과목 도출

특성화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문 교과목에 한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학생들의 수학능력 및 출발점 행동을 고려하여 일반 교과목에 대한 연계까지 포함한다. 또한 특성화 분야의 기초적인 내용에서부터 심화적인 내용의 계열성까지를 고려하여 교과목을 도출하여야 한다.

⑦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수립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수립은 해당 분야의 교과목 이수를 체계적으로 나타내며 특별활동, 현장체험, 그리고 특별프로그램 등 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⑧ 특성화 분야 교과목 수업 설계

수업설계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교과목의 필요성을 학생, 교원, 유관기관 인사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검토 받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련 교과를 검토한다. 수업설계는 교과의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학습내용을 도출하며, 교수·학습 방법을 설정하고, 평가 전략을 수립한다. 수업설계를 위해서는 직무분석 단계에서처럼 교사, 관련 분야 대학 교수, 유관기관 인사가 공동으로 수업설계에 참석해야 하며, 특히 참석자는 관련 교과목의 전공자 및 관련자이어야 한다.

⑨ 특성화 교과목 교재 개발

학생들에게 제공할 학습자료(교재) 및 보조 자료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단계로, 특성화고 및 대학, 유관기관 인사로 구성된 교재개발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⑩ 수업 전개

개발된 특성화 분야의 교과목 및 교재를 활용하여 실제 시범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개발된 교육과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 단계이다.

① 교육평가 실시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목표 설정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반영한다.

3. 특성화 교육에 적합한 교원 및 학생 확보

학교 특성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특성화 분야 및 목적에 적합한 교원과 학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그림 V-7]과 같은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V-7] 특성화 교육에 적합한 교원 및 학생 확보 방안



특성화 학교는 특성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교사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특성화 학교의 교사는 전문성, 투철한 교육 철학과 열정을 가진 분을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공립학교의 경우 특성화 체제 개편으로 인해 교원의 재배치가 요구된다. 이는 학교별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함에 따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원을 제외한 교원은 특성화 분야에 적합한 학교로 재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특성화 분야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교원의 경우 부전공 혹은 재교육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교육을 통한 특성화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성화 분야의 심화과목 담당 교원에 한하여 관련분야의 경력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교직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심화과목의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특성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분을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공립 특성화 학교 교원의 경우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해당 분야의 유능한 교원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본인이 원하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 근무제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넷째, 특성화 학교에서 우수한 관련분야 인사를 겸임 교사나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현실화하고 학교 근무 경력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교원 정원의 1/3 범위 내에서 산업체 겸임 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전체 고교 특성화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성화 학교에 소질과 적성, 재능과 관심이 있는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학교 대상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에 학교 안내 책자를 발송하거

나 중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특성화 학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관련 분야의 미래와 전망, 관련 분야의 직업 세계,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특성화 수업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특성화 학교는 전체적인 학교 성적은 높지 않지만 특성화 분야에 소질과 적성, 재능과 관심이 있고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목적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성화 분야와 관련된 경시 대회 입상 경력, 자격증, 학교생활 기록부, 실기시험, 면접시험, 적성 검사 결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해야 할 것이다. 전체 교과에 대한 성적보다는 특성화 분야와 관련된 교과의 성적에 더 가중치를 주어야 할 것이며, 중학교 내신 성적이 학생 선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학생이 일정한 학습 능력 수준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만 활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특성화 학교에 진학한 후 자신의 적성 및 소질과 특성화 분야가 맞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학교로의 전학제도를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의 적성 및 소질은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특성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다른 적성 및 소질을 발견했다면 전학을 통해 해당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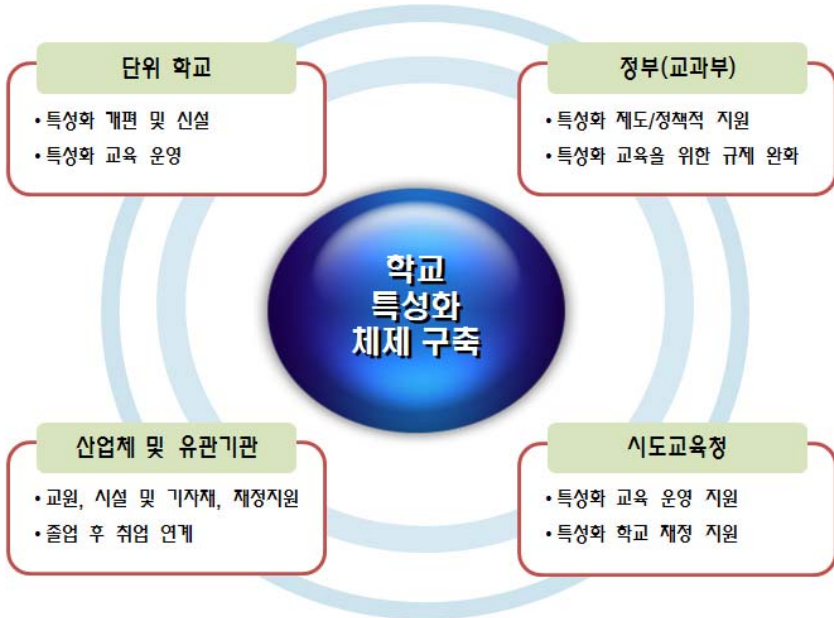
4. 특성화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학교 특성화는 단위학교,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산업체 및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단위학교에서는 특성화 체제로 개편과 이를 운영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 제도 혹은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특성화 교육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단위학교의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성화 교육을

위한 장학 및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산업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특성화 분야와 관련된 교원, 시설 및 기자재, 재정 등을 지원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학교 특성화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 관계자, 정부부처 관계자, 산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학교 특성화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특성화 추진에 따른 현안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특성화와 관련한 사이트 및 DB를 구축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간 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있다.

[그림 V-8] 학교 특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제 6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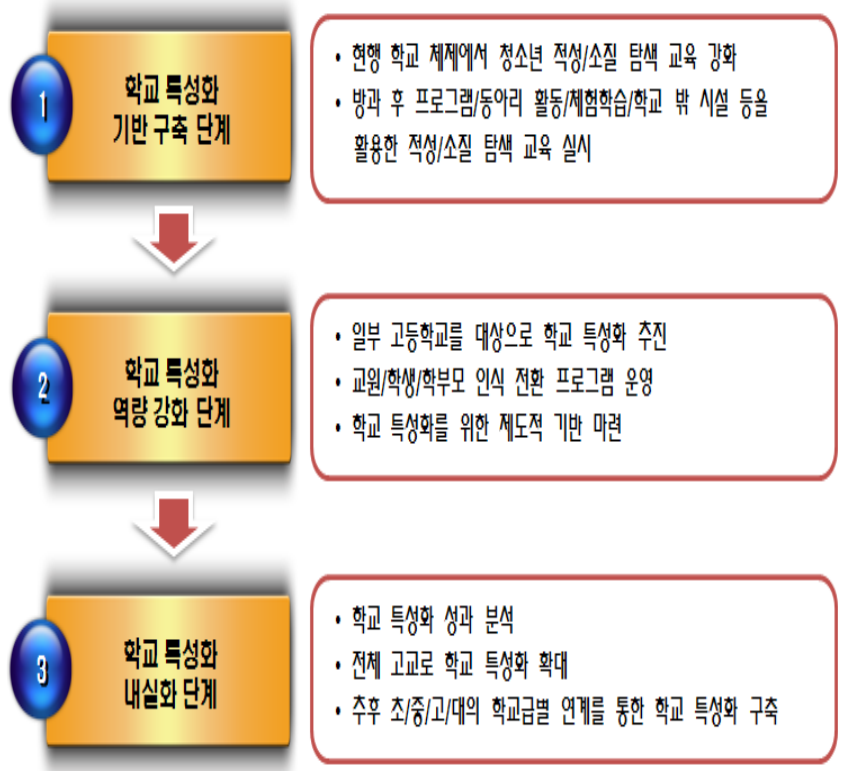
향후 학교 특성화 추진을 위한 제언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의 추진은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행 고등학교 체제를 일순간에 특성화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안 적용 후 성과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로 특성화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포함한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 추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특성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림 VI-1]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교 특성화는 학교 특성화 기반 구축 단계, 학교 특성화 역량 강화 단계, 학교 특성화 내실화 단계를 거쳐 전체 고교로 특성화 추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 시점에서 모든 고교를 특성화로 전환하는 것이 물리적·환경적 여건 상 어렵기 때문에 우선 현행 학교 체제에서 청소년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체험학습, 학교 밖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 구축 단계를 거쳐 역량 강화 단계에서는 일부 고등학교 중 특성화 전환을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화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교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특성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 체제 변화,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재정 지원 등의 학교 특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특성화 역량 강화 단계 이후에는

학교 특성화를 실시한 학교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전체 고교로 학교 특성화를 확대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계에서는 초·중·고·대 등 각 학교급별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교육 시스템의 특성화 체제 구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I-1]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학교 특성화 추진 절차



둘째, 학교 특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단위 학교에서 특성화를 추진할 경우 현재의 학생선발방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원 배치, 학교 시설 및 기자재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학교, 교원, 학생을 유지한 채 특성화를 추진할 경우 청

소년 진로개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 달성이 어려우며, 특히 제대로 된 특성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교원, 학생, 교육과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특성화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특성화 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 특성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교육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영재교육 및 일부 특수목적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특성화가 우수한 대학에 진학하는 데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직업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학교 특성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학교 특성화 추진 이후에는 특성화 학교 운영에 대한 추진과정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특성화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관련 법령 및 제도 보완, 특성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들은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성과에 대한 파악도 힘들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특성화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과 총괄을 할 필요가 있으며, 특성화 학교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특성화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의 기초적인 성격의 연구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학교 특성화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특성화로 인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은 학교 내·외부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특성화 추진에 대한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학교 특성화가 우리나라 전체 교육 시스템의 개혁에 밀거

름이 될 수 있는 성공 모델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과도한 학벌 위주의 교육과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과 관계없이 인문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진정한 교육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 특성화가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된다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개혁 및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교육, 진학, 취업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School Specialization Plan for Promoting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Jung-hee Lim, Ji-won Kang, Kyeong-jong Kang

1. Research Outl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lan of introducing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 for activating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s in Korea. Basic direction, operational system, short-term and long-term plan, and strategy for the specialization were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data analysis, expert panel interview, and seminar workshop.

2. Basic Direction of Specialization

“The school specialization for developing the aptitudes and the temperaments of adolescents” was established as a vision of the secondary school specialization. The short-term objectives are to convert voluntary schools out of newly-established schools and private high schools into the specialized schools and to expand the school specialization after verifying the outcomes. The long-term objectives are to convert all high schools into the specialized schools and to convert some voluntary middle schools into the specialized schools.

To achieve the short-term and the long-term objectives, the strategies such as in-time temperament development, career education

systematization, specialized in-school program operation, after-school aptitude program operation, aptitude exploration club activity extension, and specialized out-of-school programs and facilities utilization were presented. To deliver the strategies, students' thoughts should be changed, parents and teachers should be aware that students discover themselves, social support for eliminating the discriminative treatment according to occupational and educational background should be established, and institutionalized foundation for promoting the school specialization smoothly should be formed.

3. Operational System of Specialized Secondary School

For the operational system of the specialized secondary school to be settled successfully, a linkage system, in which future workforce are cultivated according to the aptitudes and the temperaments of adolescents, among middle schools, high schools, higher education institutes, and industries should be established.

Middle school students should choose appropriate type of specialized high school based on their own aptitude and temperament. Basic education, technical education in specialized area, aptitude and temperament development education, and field experience education should be delivered in the specialized high schools. The graduates from the specialized high schools could be employed or continue their studies at higher education institutes. Employed workers can get a degree from corporate universities, cyber universities, and also from traditional type of universities.

4. Short-Term Plan of Specialization

Considering current school system, all high schools cannot be converted into the specialized high schools within the short period of time. The short-term plan of the specialization consists of three stages. Firstly, the aptitude and temperament education should be intensified in current type of high schools through various programs such as in-school programs, after-school programs, club activities, and out-of-school facilities and programs. Secondly, some voluntary high schools out of newly-established schools and private high schools can be converted into the specialized high schools. The specialization area should be determined by the school itself and the area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special objective high schools. Thirdly, after verifying the outcomes of the voluntary specialized high schools, problems and necessary measures can be identified and a foundation for all high schools to be converted into the specialized high schools can be established.

5. Long-Term Plan of Specialization

After verifying the outcomes of the short-term plan of the specialization, the long-term plan of the specialization should be introduced. Firstly,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all high schools to be converted into the specialized high schools, the perceptions of students, parents, teachers regarding occupation, career, aptitude, and temperament should be changed, the legal an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operation of the specialized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sufficient fund should be secured, and related network should be constructed.

Secondly, all high schools should be converted into the specialized high schools based on the local environment and problems and necessary measures can be identified. Thirdly, some middle schools can be converted into the specialized middle schools and the aptitude and temperament education should be intensified. A comprehensive career path, which links middle schools, high schools, universities, and employment, can be constructed.

6. Strategy for Specialization

To deliver the plan of secondary school specialization, following strategies are presented: 1) School autonomy and system improvement strategy; 2) Curriculum development strategy; 3) Appropriate teachers and students recruitment strategy; and 4) Network construction strategy. Autonomy in curriculum planning, autonomy in textbook choice, and autonomy in overall

school operation are necessary for the school autonomy and system improvement. To develop appropriate curriculum in the specialization area, the process consisting of specialization area selection, job classification, workforce demand status and prospect analysis, job analysis, educational objectives creation, subjects deduction, curriculum establishment, instructional design, textbook development, instruction delivery, and educational evaluation is presented. To secure appropriate teachers for the specialization education, strategies such as teacher relocation, retraining of current teachers, experienced field professional utilization, and exceptional overtime service permission in a school were suggested. To recruit students for the specialization education, public relations activities intensification, school experience program, student

recruitment method improvement, student transfer system expansion, and so on were suggested. Network strategy among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 government(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local government offices of education, and industries was presented.

참고문헌

- 강영혜 외(2007). 『고교평준화 정책: 그 진실과 미신』, 한국교육개발원.
- 곽병선 외(199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교육적 인간상 및 교육목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개혁위원회(200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Ⅱ)』, 교육개혁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부문 국정과제』.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2008년 1차 전국진로교육협의회 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취업지원과(2008).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추진 방향』.
- 교육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5. 교양』.
- _____ (200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 총론』.
- 교육인적자원부(2001).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 _____ (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
- 교육인적자원부 외(2006).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07~'11) 계획안』.
- 교육인적자원부 외 7개 부처(20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 교육혁신위원회(2005.6).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 금명자(2007). 『전문상담교사의 학교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와 예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843-861쪽.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노동부·여성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2008). 『청년고용촉진대책』.
- 김경선 외(2003). 『고등학교 평준화 보완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1(4), 69-90쪽.
- 김병관 외(2006). 『학령인구 감소의 교육부문 영향 예측과 관련 정책의 연계·통합 방안 수립』.
- 김영철(2003).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체제연구1』, 한국교육개발원.

- 김희대(2006). 『전문상담교사 제고의 구축과 정착 방안』, 한국교육정책연구소.
- 나승일 외(2007). 『광주광역시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및 종합발전방안』, 광주광역시교육청.
- 문형표 외(200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문부성(1977). 『중학교·고등학교 진로지도 수인』, 동경: 진로지도주사편.
- 박영숙·김갑성·전제상·김지희(2007). 『국가 수준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종찬(2006).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성장산업으로서의 헬기산업』, 『산업경제연구』, 9(5), 2,097-2,110쪽.
- 산업자원부(2004).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보고서』.
- 삼성경제연구소(2007). 『한일 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 송달용 외(2008). 『특성화 고등학교 성과분석 및 운영 활성화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송병국(2002).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 위상과 실천 방안』,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제7차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발표 논문.
- 오호영·이지연·윤형한(2007). 『진로정보센터 운영(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우남희(2004). 『뇌발달과 아동의 인지발달』, 『생활과학연구』, 9, 158-168쪽.
- 이재형(2007). 『우리 산업의 경쟁구조와 산업집중 분석: 광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이지연(2002). 『OECD 진로정보·지도 및 진로상담 정책 협력사업(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외(1999). 『한국의 진로유형에 따른 진로교육모형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3). 『생애단계별 진로지도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5). 『진로전환기 청소년의 진로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2005). 『직업진로교육의 실태 및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석민(2001).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진로교육 연구』, 14, 1-16쪽.
- 장창원 외(2005).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인적자원정책 개선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 정부·민간 합동작업단(2006).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 진미석 외(2006). 『직업진로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진로개발지원 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
- 최금진 외(2003). 『자율학교의 자율권 활용실태 및 교육효과 분석』, 『교육학연구』, 41(2), 253-275쪽.
- 최동선(2008). 『학생의 소질 및 적성 관련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초·중등학교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 방안 2차 포럼자료.
- 최동선 외(2005).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ssue Paper.
- _____ (2008).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와 추진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통계청(2002, 2006).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_____ (2005, 2006, 2007). 『경제활동인구연보』.
- _____ (2006). 『장래인구추계』.
- 한국산업개발연구원(2005). 『KHP사업의 경제성분석』.

■ 저자 약력

- 임정희
 - 사단법인 밝은 청소년 지원센터 이사장
- 강지원
 - 사단법인 어린이 청소년 포럼 이사장
- 강경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청소년의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 방안

- | | |
|-----------|--------------------------------------------------------------------------------------------------------------------------------------------------------------------|
| · 발행연월일 | 2008년 12월 30일 인쇄
2008년 12월 31일 발행 |
| · 발 행 인 | 권 대 봉 |
| · 발 행 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 · 인 쇄 처 | (주)법신사 (02)720-9786 |
| · 등 록 일 자 | 1998년 6월 11일 |
| · 등 록 번 호 | 제16-1681호 |
| · I S B N | 978-89-6355-017-6 93370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가 5,000원 >